

디자인 충남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전문저널

Vol. 7 December. 2018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전문저널

디자인 충남

Vol. 7 December. 2018

cpdc 충청공공디자인센터

발행
2018년 12월 30일

발행인
윤 황

발행처
충남연구원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041-840-1123
www.cpdcre.kr

기획
박혜은

디자인 및 편집
김성희 · 오병찬 · 방재성

협력기관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공공디자인팀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제작 · 인쇄
삼성애드피아

CONTENTS

Issue

- | | | |
|-----|-----------------------------|---------|
| 002 |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건축가의 책무 | 이경훈 교수 |
| 007 |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디자인의 시도 | 이형복 센터장 |
| |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 |

Review

- | | | |
|-----|----------------------------------|------------|
| 014 | 개방과 연결을 통한 소통 | 김연준 교수 |
| | : 최근 파리 공공건축 및 도심 재개발 | |
| 022 | 충청북도 행복마을사업 | 변혜선 선임연구위원 |
| | :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촌스러운 마을디자인 | |

Level up 컨설팅 사례

- | | | |
|-----|------------------------|---------|
| 030 | 학교 스튜디오 연계 사례 | 김진기 교수 |
| 036 | 집중지원 사례 | |
| 042 | 유형별 사례 | |
| | - 태학산 자연휴양림 유아숲 체험원 | 천안시 |
| | - 공주시 무인대여 공공자전거 색채디자인 | 공주시 |
| | - 당진시 클린하우스 디자인 | 당진시 |
| | - 홍성군보건소 치매안심지원센터 | 홍성군 |
| | - 서산동문초등학교 내부 색채디자인 | 충청남도교육청 |
| | - 방포초등학교 내부 색채디자인 | 충청남도교육청 |

Team 예산군

- | | | |
|-----|---|---------|
| 056 | 지역별 개성 · 고유 경관 살리는
예산군 신(新)활력 창작소 조성시범사업 | 신연길 주무관 |
|-----|---|---------|

Focus on

- 062 센터 소식
- 「충남공공디자인센터 하반기 워크숍」 개최
 - 「충남 디자인 특강」 개최
 - 「컨설팅 설명회」 개최
 - 「충남공공디자인센터 자문위원 간담회」 개최
 - 충남공공디자인센터 홈페이지 개편

국내 정책동향

- 070 중앙부처
- 081 광역지방자치단체
- 108 충청남도 및 15개 시 · 군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건축가의 책무¹⁾

The Liability of Architects for
the Public Happiness and Safe Society against Crime



고려대학교 건축학과_이경훈 교수

미래이슈로서의 사회안전과 범죄예방환경설계의 대두

“그 남자에겐 가족을 만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나 그 여자에겐 가슴이 조마조마한 길입니다.” 이는 어두운 밤, 골목길을 혼자 걷는 젊은 여성이 혹시라도 누가 따라오는지 몇 번이나 조바심치며 귀가하는 장면과 함께 나레이션되었던, 서울시의 여행(女幸: 여자가 행복한) 프로젝트 홍보문구이다. 이 프로젝트가 여성이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다는 사실은 여성이 현대의 도시 건축 환경에서 얼마나 범죄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범죄발생, 혹은 범죄에 대한 불안감은 모든 사람, 특히 여성의 일상 생활행위를 위축시키고 생활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통계청에서 격년으로 실시하는 사회통계조사에서 ‘범죄위험’은 매년 가장 중요한 사회 불안 요인으로 꼽혀왔으며, 특히 여성의 불안감은 남성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얼마 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2010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약 3년 동안 주요 언론사의 뉴스를 수집하여 총 6백 42만 개의 뉴스문서를 확보하고 각 문서별 대표 키워드를 도출하는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안전위험의 증가, 네트워크 사회 가속화, 경제불황 지속”의 세 가지 트렌드가 나타났다²⁾. 이처럼 안전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 주요 이슈로 자리매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할 우려가 있다.

1) 본고는 대한건축학회 「건축」지 2018년 9월호에 게재된 원고를 일부 수정보완한 원고임을 밝힙니다.
2) 최창택·김상일. 2014. KISTEP이 바라본 미래사회 안전 10대 유망기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우리나라의 헌법 전문은 국가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판결문에서 “국가는 .. 국민에 대하여 국가 외부에서 초래되는 외적의 침입과 국가 내부에서 초래되는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를 물리칠 의무를 스스로 부담하고 있다³⁾”라고 판결하여, 단순히 상징적 의미에서의 안전보장 뿐 아니라 실질적 의미에서 ‘국가의 국민 안전에 대한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이고 기초적 복지라고 할 때, 전통적인 형사 사법적 범죄대책에 비해 도시·건축공간을 변화시킴으로써 애초에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차원의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이하 셉테드)의 도입은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매우 매력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셉테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현황

사회적 요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회변화를 가져온다. 국내에서도 사회안전, 특히 ‘범죄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이를 위한 각종 제도의 변화가 뒤따르게 되었다. 우선 2008년 서울시는 최초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계획’을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건축 및 재개발을 추진하는 주체는 계획 단계에서 범죄예방계획안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였다. 경기도는 2013년 11월 11일자

3)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선고 88헌마3(1999. 4.17).



▲ 서울시의 소금길 프로젝트



「경기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조례」를 제정하였는데, 경기도의 조례제정에서 눈여겨볼 것은 도지사가 5년마다 ‘범죄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을 의무화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경찰이나 검찰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범죄예방 노력을 다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한 국내 최초의 조례제정이라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

2014년 5월에는 「건축법」 제53조2항의 개정을 통해 「시행령」 제61조의 3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등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범죄예방 기준(2018년 3월 시행)에 따라 건축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셉테드는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환경개선 전략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범죄예방 및 대응방식을 제시함으로써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관심을 모았고, 그 결과 셉테드 조례 제정, 건축법 개정 등과 같은 각종 제도적 정비바 조기에 정착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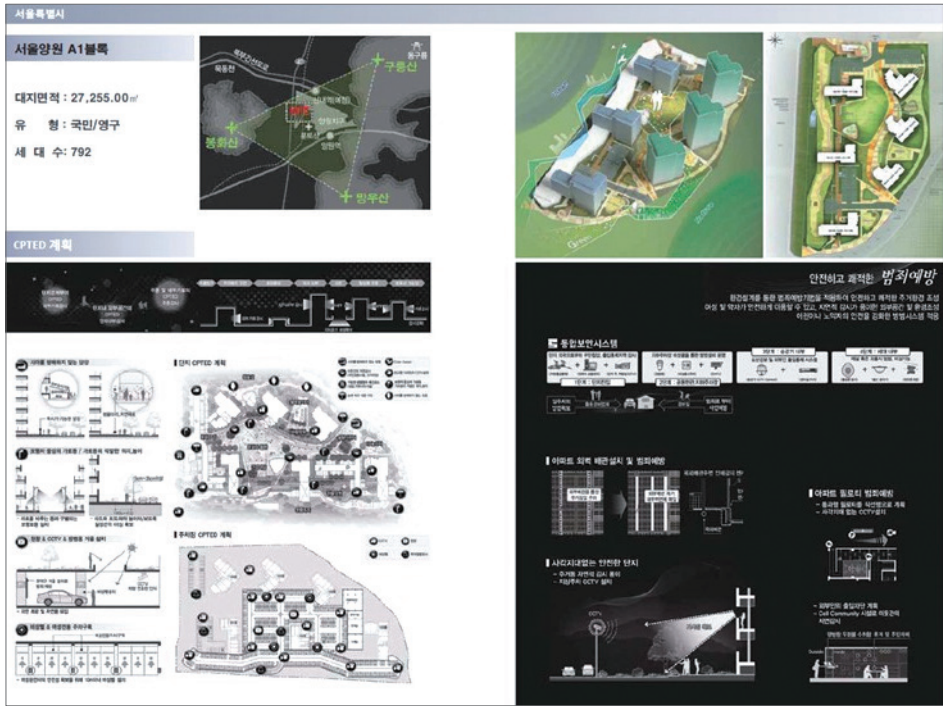
셉테드 제도의 허와 실 누구를 위한 안전인가?

2014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직후 박원순 서울시장은 다른 지자체장들이 일제히 팽목항으로 달려갈 때, 서울에서 ‘재난 예방을 위한 전문가 속의회’라는 긴 명칭의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뉴스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일부 언론에서는 재난 대처에 있어 다른 지자체장과 차별성을 홍보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퍼포먼스라는 비난도 있었지만, 그것까지는 필자가 알 도리가 없다. 그러나 그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제시한 참사의 원인은 ‘대응 매뉴얼의 부실’이라는 의견 일색으로 당시 언론이 연일 떠들어대던 내용과 대동소이했다. 하지만 필자는 국내에는 이미 재난 대응 매뉴얼이 차고도 넘치며, 기존 매뉴얼도 연구용역을 통해 선진국의 매뉴얼을 벤치마킹하여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매뉴얼의 부실에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정확한 진단이 아니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필자는 사실 매뉴얼의 부실보다는 매뉴얼을 실행하는 사람들의 인식, 그리고 매뉴얼이 실행되는 전 과정을 컨트롤하는 운영시스템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셉테드의 현 상황에 대해서도 똑같은 비판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제도화 현황은 어떤 셉테드 선진국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으며 어느 면에서는 앞서간다고 할 만큼 체계적 틀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발 빠른 제도화 추세와는 달리 실행에 관여하는 이해집단의 인식과 운영시스템은 아직도 걸음마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필자의 솔직한 진단이다.

현장에서의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자. 아파트 입주 시 주민들은 건설사에 CCTV 한 대라도 더 설치해 달라고 졸라 대지만 단지 내에 설치된 수백 대의 CCTV가 아무에게도 모니터링되지 않는 채 헛돌고 비싼 비용으로 설치된 최첨단 보안시스템이 경비원들의 사용방법 미숙지로 꺼져있는 것은 수수방관한다. 범죄에 가장 취약한 여성 1인 단독가구가 밀집한 대학가 원룸 건물에서는 외부인에 대한 출입통제가 매우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공용 현관 앞에는 야식 배달원들이 적어놓은 현관 비밀번호가 버젓이 적혀 있으며, 셉테드 시범사업에 선정되었지만 정작 사업대상 지역의 주민들이 사업을 반대해서 예산을 도로 반납해야 하는 자자체의 딱한 사정이 들리기도 한다.



▲ LH공사 범죄예방디자인 도판사례

주민들의 인식은 그렇다 치고 공간을 디자인하는 전문가인 건축가의 인식은 어떠한가? 2011년부터 LH 토지주택공사에서는 공동주택 현상설계 시 셉테드 도판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시행한 지 벌써 6년 남짓 경과했지만 지금도 맞춤형 디자인을 개발할 동기나 의욕이 전혀 없는 건축가들은 그저 형식적이고 원론적인 내용으로 일관하거나 그것도 서로 베끼기 일쑤다.

그렇다면 건축물 인허가 시 고시된 범죄예방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를 검토해서 해당 법의 준수를 확인하고 유도해야 할 관의 인식은 어떠한가? 수원 시나 안양시 등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 건축위원회는 범죄예방 설계기준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검토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서울시, 경기도, 동작구 등 일부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서는 경관위원회나 별도의 범죄예방디자인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나 사실상 이런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시행령 적용대상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기준의 반영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실질적 효과는 거의 없다. 또한 정책이나 법을 만들고 그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해야 할 국토교통부는 법만 개정해 놓고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적 제도 준비를 조기에 이루고도 안타깝게도 제도의 운영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럴까? 건축가들은 전통적으로 건축디자이너가 추구해온 가치에 사로잡혀 안전에 대한 사회의 요구에 대응하는 것이 자신의 책무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관 역시 범죄예방은 경찰의 고유업무이고 건축의 영역이 아니라는 소극적이고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

건물이 붕괴되면 건축가나 구조기술자들이 법적 책임을 지고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기술자나 건물주가 법적 책임을 진다. 이처럼 건축가나 건물주도 범죄가 발생하면 잘못된 설계에 대해, 혹은 잘못된 건물관리에 대해 법적 책임은 아니라도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느껴야 한다. 책임 문제가 아니더라도 학원에서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은 딸자식을 기다리느라고 현관문 앞에서 서성거려 본 적이 있다면, 그리고 새벽녘에 늦게 귀가하면서 인적없는 어두운 거리에서 누가 따라오지는 않는지 종종걸음을 쳐본 적이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이 문제를 대해야 한다. 범죄로부터의 안전이란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문제이고, 건축물의 적절한 디자인과 관리가 안전을 담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축가, 건축정책 입안자 및 실행자, 그리고 도시·건축공간의 모든 사용자들의 과감한 인식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사진출처

- 1) <https://m.blog.naver.com/PostList.nhn?blogId=didalstjr777>
- 2) 서울시의 소금길 프로젝트(서울시 정책 아카이브)
- 3) LH공사 범죄예방디자인 도판사례(우수설계사례집)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디자인의 시도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센터_이형복 센터장



최근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이 새로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은 물리적인 환경에 따라 범죄 발생 빈도가 달라진다는 개념에서 출발한 것으로 범죄 문제에 취약한 환경 요인을 개선해 범죄를 예방하는 기법을 말한다.

2016년 5월 17일 새벽, 강남역 인근 노래방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강남역 문지마 살인사건’은 사건 발생 이후 ‘여성 혐오 범죄’, ‘조현병 환자의 문지마 범죄’ 등의 논지로 뜨겁게 우리 사회를 달구었다. 경찰청은 이 사건을 계기로 ‘여성안전 특별치안대책’을 발표하고, 여성 대상 범죄 대응 특별치안 활동을 강화하였다. 경찰조직에서도 사후관리가 아닌 사전에 범죄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해결방안을 고민하는 범죄예방진단팀 신설¹⁾을 통해 범죄예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간 우리 사회는 김수철 사건을 계기로 CCTV통합관제센터의 본격적 구축,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을 계기로 버스정류장에 대한 조명 설치 의무화, 오원춘 수원 토막살인사건을 계기로 112 위치추적법 시행, 강남역 문지마 살인사건을 계기로 안심벨 설치확대 등 강력범죄 발생 후 재발 방지를 위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적인 다양한 범죄예방 조치를 취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생한 이영학 여중생 살인사건, 김성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을 보면 강력 범죄의 피해자들이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인지시켰다. 이처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강력범죄를 단속하고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을 공공의 역할만으로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어쩌면 한정적인 경찰력에 의존해 범죄를 줄이는 것은 한계에 다다랐을지도 모른다.

1) 2016년 6월 전국 1급지 경찰서 140여 개소 경찰서 내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출범한 전문팀으로 ‘CPO’란 Crime Prevention Officer의 줄임 말이다. 지역사회와 함께 범죄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거리·공원·공공 시설·건축물 등 특정 지역이나 시설의 물리적·사회적 요인을 분석하여 범죄 취약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여 경찰의 범죄예방 활동 역량강화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임무로 하는 경찰관을 의미한다.



▲ 경찰 CPO



▲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 추모(사진출처: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



▲ 염리동 소금길 프로젝트

전통적 경찰의 업무에서 탈피한 범죄예방의 디자인적 시도는 2005년 경찰청의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 지침’ 제작에서부터 출발하였다. 하지만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개념은 8년이 지난 2013년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 제작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본격 이식되어 범죄예방에 대한 행정의 변화를 보였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4년 건축법에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관련 조항을 추가하였다. 2015년에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통해 범죄예방 시책을 강화하였고, 올 11월에 이르러서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거지에 대한 국민 안전강화를 위해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 주거지 확대’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강화된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다. 이제서야 한정된 경찰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 본격적으로 제도화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관련 모법이 없는 상황에서 제도적 기반의 보안을 위해 자주 조례 형태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2013년 10월 31일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18년 11월 기준, 20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운용되고 있어 무엇보다 모법 제정의 필요성이 시급하다. 조례 제정과 더불어 몇몇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자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지침을 개발하여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들은 제도적 마련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범사업 추진 및 도시재생사업에 CPTED 개념 적용을 통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실화를 진척시키고 있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곳은 서울 마포구 염리동 소금길 프로젝트를 꼽을 수 있다. 2012년 서울시는 취약계층의 생활속 깊숙이 들어가, 실효성 있는 디자인이 무엇인지 고민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관심을 끌게 된 것이 범죄예방 디자인이었다. 어두운 염리동의 골목길을 안전하게 조성하고자 추진한 ‘범죄예방 디자인 프로젝트’는 상당한 범죄예방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금길 프로젝트에서 주목할 것은 하드웨어 정비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주민 참여로 범죄사각지대가 되기 쉬운 버려진 가압장을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인 ‘소금나루’로 리모델링하여 안전교육 등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을 전개해 나갔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환경디자인으로 범죄 심리를 위축시켜 사후조치가 아닌 예방 행정으로 범죄율을 낮추고자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 부산 사하구 감천2동



▼ 부산 북구 구포2동



▼ 부산 서구 남부민2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최초로 제정한 부산시는 서울시와 함께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청뿐 아니라 부산지방경찰청도 2014년부터 ‘셉테드 행복마을’ 추진을 통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오고 있다. 부산시는 2013년부터 매년 3~4곳을 지정해 지금까지 19곳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도 2014년에 셉테드 행복마을 16곳을 지정한 데 이어 지난해 안심골목길 3곳을 조성하는 등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에 관심을 쏟고 있다.

대전시는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공감대를 높이고 지역의 환경 및 여건에 맞는 공공디자인 실현을 위한 ‘도심으로 돌아온 등대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사업대상지인 대화동은 낙후된 주거환경으로 범죄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높은 지역임을 감안하여 도시재생 콘셉트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먼저 도입하였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통하여 범죄예방은 물론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지역 커뮤니티가 제고될 수 있도록 주거문화 마을형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 사업이었다. 더불어 공공디자인을 통해 기존 주거지역의 기능강화는 물론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을 개선하고 대화동의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었다. 도심으로 돌아온 등대 프로젝트는 하드웨어적 측면에서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 첫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시설물과 주민들의 자연 감시를 유도하는 운동코스를 조성했다는 점이다. 둘째, 활용도가 떨어진 어린이놀이터를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원리가 적용된 다용도의 작은 주민커뮤니티센터로 설치하고 개방된 문화이벤트 공간을 조성했다는 점이다. 셋째, 폐가 리모델링을 통해 노년층의 문화 공간을 조성했다는 점이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다음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첫째, 존(Zone)별 공간 활용 문화 프로그램 개발, 둘째, 마을 이벤트 개발, 셋째, 소식지 및 홍보물 제작, 넷째, 아카이빙 사업의 충실한 추진이 그것이다. 또한, 사업의 정체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을 브랜드(BI) 개발도



▲ 도심으로 돌아온 등대



병행하여 대전의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도심으로 돌아온 등대’라는 등식을 만들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통하여 지역 이미지 향상 및 주민들의 문화공유·소통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협력체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은 범죄가 치밀한 계획하에 저질러지기보다는 물리적인 환경에 따라 발생 빈도가 달라진다고 보고 환경디자인 개선을 통해 범죄를 미리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은 개념을 탄생시킨 미국뿐 아니라 영국, 네덜란드, 독일, 호주, 캐나다, 일본 등에서 확인되었고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사업이 추진된 동서양 지역 대부분은 지역 환경 낙후 및 쇠퇴가 진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으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전략을 적용하여 범죄 문제 해결과 함께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그러나 범죄예방을 위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크게 나뉘고 있다. 높은 주민 만족도, 지역 환경 개선, 주민들의 협업 등 긍정적인 평가가 있지만 사업 추진 후의 관리 부실, 단발성 사업, 중복 투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은 범죄예방을 위한 도깨비방망이는 아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은 거시적·장기적 관점에서 범죄예방의 한 축으로 이해해야 한다. 범죄로부터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시민들에게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준수 및 관련 정책에 참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한정된 치안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사회구성원 전체가 범죄예방을 위해 협업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성공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은 범죄 취약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마을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하는 동시에 안전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 커뮤니티의 재생을 이끌어 낸다. 어쩌면 지역 커뮤니티의 활발한 활동이 최고의 방법 시스템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본다. 도래하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도 지능화된 ICT(Information&Communication Technology) 접목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사람의 눈만큼 감시 효과로 최고인 게 없다. 우리가 모두 눈을 크게 뜨고 범죄예방에 관심을 가질 때, 보다 안전한 사회가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사진출처
1) 사진촬영 : 이형복



▲ 강동구 부영이 마을



▲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쾌적하게 정비한 과천시역의 터널



▲ 자연적 감시를 높인 후쿠오카 공중전화 부스

REVIEW

014 개방과 연결을 통한 소통
: 최근 파리 공공건축 및 도심 재개발

김연준 교수

022 충청북도 행복마을사업
: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촌스러운 마을디자인

변혜선 선임연구위원

개방과 연결을 통한 소통

최근 파리 공공건축 및 도심 재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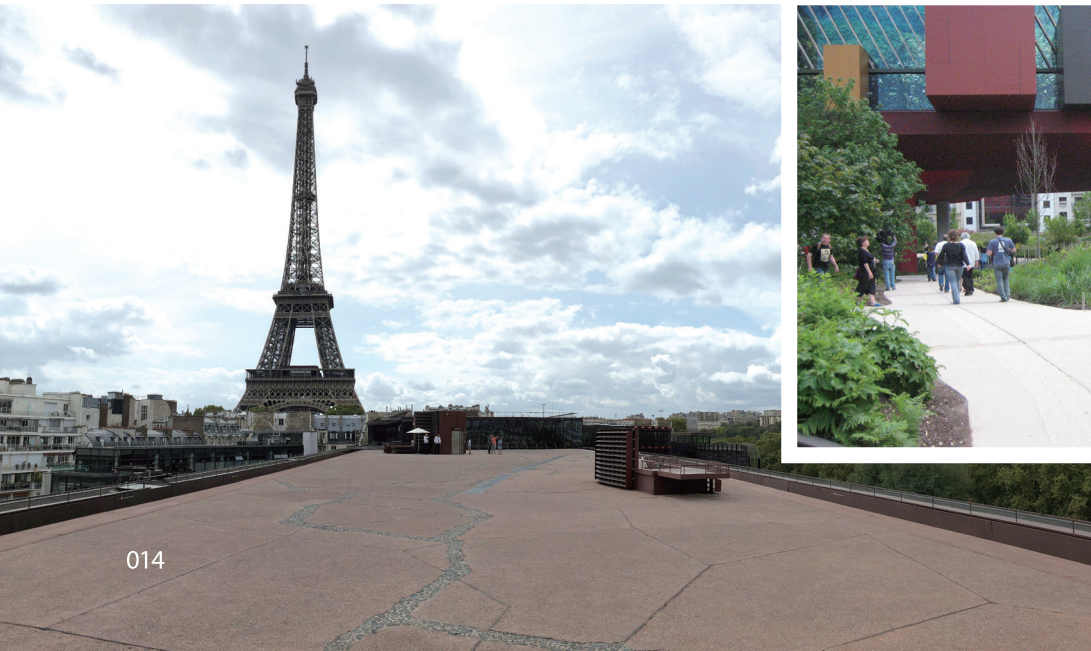


목원대학교 건축학과_김연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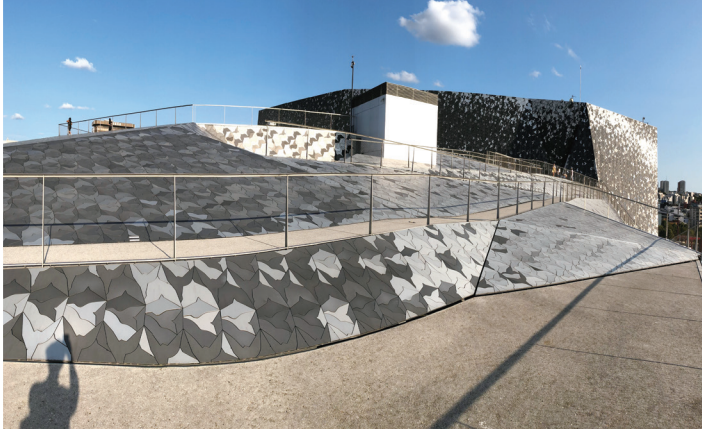
1. 공공건축에서 적극적인 옥상 정원의 활용

2000년 이전에 지어진 조르주 폼피두 센터(Centre George Pompidou, 1977)와 국립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de Paris, 1995)은 대형 공공건축물답게 커다란 외부 공간을 가지고 있다. 폼피두 센터는 경사져 내려오는 전면 광장을 가지고 있어 이 건물을 찾는 수많은 관광객을 포용한다. 국립도서관의 경우는 건물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계단과 그 계단에 올라서면 보이는 거대한 나무 데크 광장이 있어 지하의 열람실로 내려가고자 하는 많은 이용객들을 수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파리의 최근 공공건축의 경향은 다소 파격적인 건물의 형태를 가지며 특히 지상의 외부공간뿐 아니라 옥상 정원을 활용하여 파리 시내의 전경을 조망하게 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지는 건물은 우리나라

▼ 케 브랑리 박물관 : 에펠탑과 파리 시내 조망



▲ 파리필하모니 : 경사로에서 도심파노라마 조망



▲ 파리필하모니 : 옥상조경 산책로

에도 리움미술관을 설계하여 알려진 프랑스의 세계적인 건축가 장 누벨(Jean Nouvel)이 설계한 케 브랑리 박물관(musée du quai Branly - Jacques Chirac, 2006)과 파리 필하모니 공연장(Philharmonie de Paris, 2015), 빌바오 미술관으로 세계 건축의 한 축을 이끌고 있는 프랭크 게리(Frank. O Gehry)의 루이 뷔통 미술관(Fondation Louis Buitton, 2014)을 들 수 있다.

파리 16구에 위치한 케 브랑리 박물관은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문명의 예술품을 전시하는 이국적인 박물관이다. 프랑스 전(前) 대통령 자크 시라크의 주도하에 건립된 까닭에 박물관 명칭에 그의 이름이 남아있다. 이 박물관의 주된 개념은 도심에 세계적인 식물학자 질 클레망(Gilles Clement)이 계획한 정원을 만들고 그 정원 가운데에 박물관을 자리 잡게 하여 자연스럽게 정원을 산책하게 하는 것이다. 박물관의 내부는 상당히 어둡게 계획되어 전시품을 관람하는 데 집중하게 하였고, 옥상 정원에 올라가면 파리 시내를 360도로 조망할 수 있다. 특히 에펠탑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 옥상에서 에펠탑이 손에 잡힐 듯 보인다. 파리 시내에 고층 건물이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한 옥상 정원 활용계획으로 박물관의 영역을 내부에서 외부까지 확장하고 있다는 의미가 있다.

라 빌레트 공원(Parc de La Villette)에 있는 파리 필하모니는 음악학교, 음악박물관과 더불어 하나의 음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건물의 형태는 비정형으로 입면 패턴의 변화를 주고 있다. 이 건물은 형태적으로도 인상적이지만 공공건축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은 공연을 보지 않더라도 외부 공간이 계단과 경사로를 통하여 1층부터 옥상까지 전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건축적 산책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옥상에서는 라 빌레트 공원 주변을 비롯하여 파리의 북쪽 지역과 인근 도시까지도 조망할 수 있다.

▼ 케 브랑리 박물관 : 진입부 조경과 필로티



▼ 파리필하모니 : 주진입부 전경





▲ 루이 뷔통 박물관:진입부 수공간과 전경



▲ 루이 뷔통 박물관:옥상 공원과 투명한 지붕 구조



▲ 루이 뷔통 미술관:지붕 사이로 에펠탑 조망

루이 뷔통 미술관은 볼로뉴 숲에 위치해 있으며 아클리마타시옹 정원(Jardin d'Acclimatation)과 인접해 있다. 해체주의 건축가이며 빌바오 미술관을 설계하여 유명해진 프랭크 게리의 작품이다. 돛 모양의 기울어지고 비정형적인 유리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루이 뷔통 미술관은 비록 유명 의류 회사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앞서 언급한 장소성으로 인해 많은 파리 시민과 관광객들이 찾는 곳으로 공공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 유리벽들은 내부뿐 아니라 외부 공간도 둘러싸고 있어 내부와 외부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는 새로운 성격의 공간을 만들어 내고 있다. 즉 외부 공간이지만 덮여 있되 투명한 유리벽을 통해 하늘과 주변 환경을 투시해 볼 수 있는 특성을 가지는 공간인 것이다.

이 미술관은 옥상의 레벨이 변화하면서 계단을 통해 오르게 되어 있다. 앞서 언급했던 건축적 산책이 이루어지며 미술관의 영역이 내부에서 외부로, 미술품에서 자연으로 넓혀지게 되는 것이다. 이곳에서의 조망은 인접한 정원뿐 아니라 파리의 서북부 즉 라데팡스 지역까지 미치며 에펠탑 조망도 가능하다. 전부 오픈된 조망이 아니라 유리 한 겹을 통해 바라보는 조망은 여러 프레임을 제공해 줌으로써 집중력을 높여 준다. 완전하게 인공적인 장치를 통해 자연을 끌어들이는 점이 앞서 두 작품보다는 한 차원 진일보한 건축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3개의 작품은 최근의 중요한 건축에서 공공적인 성격을 강화하는 장치로서의 옥상 조경의 의미를 일깨워준다. 또한, 단순한 옥상이 아니라 건축적인 산책을 통해 공간적인 체험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공공건축이 지향해야 할 바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 세종청사의 경우는 옥상 정원을 계획하고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이나 관리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개방하지 않고 있는데 시간 및 장소를 한정하더라도 공공에 개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 파리 13구 국립도서관 구역 개발

아래의 사진에서 강의 상단부는 파리 동쪽의 12구 센(Seine)강 오른쪽에 자리 잡은 약 51ha 규모의 베르시 지구(Quartier Bercy)로 조화롭고 개성 있는 도시 경관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1986년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되었다. 센강의 하단부에는 국립도서관 구역이 보이며 가장 아래 쪽으로는 13구의 구시가지 건물들이 각기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베르시 공원에서 시몬 드 보부아르 다리(Passerelle de Simone de Beauvoir)를 건너면 곧바로 파리 제 13구(13eme Arrondissement)가 시작된다.

▼ 센강 좌우안 전경(사진출처 : www.google.co.kr)





▲ 시몬 드 보부아르 다리와 국립도서관



▲ 국립도서관 주변 경관

센강 변, 즉 좌안(Rive Gauche)의 국립도서관을 포함한 개발지역은 센강과 오스테를리츠역(Gare d'Austerlitz) 철로 사이에 끼어 있는 독특한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하면 같은 행정구역 내에 있지만 13구의 다른 지역과 분리되어 소통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13구 좌안 개발 계획에 따라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1995년 완공되고 강을 따라 양옆으로 공동주택이 지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좀 더 안쪽으로 업무시설이 자리 잡게 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개발에도 불구하고 고립과 불소통이라는 과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하였다.

▼ 13구 : 철로 복개 개발(사진출처 : www.google.co.kr)



▲ 철로 복개지 업무시설1



▲ 철로 복개지 업무시설2

그리하여 다음 단계로 철로 위로 인공지반을 조성하고 그 위에 건물을 배치하고 도로를 만들어 강변 쪽의 신개발 지역과 기존 주거 지역을 연결하게 되었다. 철로 위 인공지반에 들어서는 건물은 업무용 건물과 공동주택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상복합처럼 한 건물에 섞이지 않고 업무용 건물군이 끝나면 공동주택의 건물군이 이어지는 식으로 배치되어 있다.

업무용 건물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층 형태가 아니라 8층 규모의 수평형으로 주변 공동주택과 유사한 형태로 되어 있어 이질감을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개별 건물 역시 전체적으로 통일된 원칙에 따라 계획되었는데 건물의 중간 부분을 분절하여 안으로 집어넣거나 테라스로 구성하여 외부와 소통하도록 배려하였다.

▼ 13구 : 국립도서관과 13구 개발(사진출처 : www.google.co.kr)





▲ 업무시설 보이드 구성 1

▼ 업무시설 보이드 구성 2



▲ 공동주택 다양한 파사드 구성



▲ 공동주택 파사드 구성



▲ 공동주택 단지 내부



▲ 공동주택 파격적 파사드 구성

공동주택의 경우 역시 전체를 꽉 채우지 않고 부분적으로 보이드로 처리하여 거리에서 건물 뒤편의 공간을 시각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른 하나의 특징은 예전의 파리 주거 건축이 비교적 전체적인 분위기를 맞추어 무난한 형태였던 것에 반해 최근의 경향은 사진에서와같이 불규칙한 형태의 발코니를 도입하거나 반사유리나 밝은 녹색을 사용하는 등 상당히 과감한 표현이 많이 보인다는 점이다.

사진출처
1) 사진촬영 : 김연준

충청북도 행복마을사업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촌스러운 마을디자인



충북연구원 공간창조연구부_변혜선 선임연구위원

1. 촌스러운 그곳의 현실

<방치된 쓰레기들과 빈집들>

농촌이 아름다운가? 라고 묻는다면 일단은 그럴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 농촌을 가보면, 각종 쓰레기로 지저분하다. 비닐하우스에서 벗겨낸 찢어진 비닐들, 너덜너덜해진 검은 차양막, 이 외에 각종 비료포대, 농약병 등을 비롯하여 여러 쓰레기들이 많이 배출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도시 지역과 달리 분리수거가 힘들고, 폐기물의 수집 등도 원활하지 않다. 그래서 농촌의 전원적인 공간이 쓰레기들로 덮혀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또한 요즘에는 관리되지 않는 빈집들이 점점 많아져 마을의 경관을 더욱 더 악화시키기도 한다.

▼ 방치된 쓰레기들은 언제 치울까?



▲ 원래 빈집이 방치되었던 곳. 빈집을 철거하고 주민들이 직접 만든 꽃밭



▲ 기와모양의 지붕으로 개선한 사례 : 요즘 농촌 지역의 지붕 개량은 거의 대부분이 이런 모습이다.

<빨간 지붕, 파란 지붕 그리고 초록 지붕>

언젠가 어느 농촌마을을 환경개선 사업 설명회를 갔었다. 지붕개량사업에 대한 설명 후 질문을 받는 시간이었다. 지붕개량사업이란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을 걷어내고 다른 지붕으로 교체하는 사업인데, 기와모양을 한 철제 지붕으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어느 어르신께서는 우리 집은 기와지붕인데 바꾸고 싶다. 물이 샌다. 이 기회에 꼭 하고 싶다는 말씀도 덧붙이신다. 결국 그 어르신은 기와지붕을 걷어내 시고, 새 지붕으로 교체하셨을 것이다. 요즘 흔히 하는 검정색일지, 아니면 주황색, 초록색 지붕일지도 모른다. 어느 다른 농촌마을처럼 말이다.

2. 주민들이 스스로 가꾸는 마을디자인

<충청북도 행복마을 사업 : 주민들에 의한 사업 >

충청북도에서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행복마을 사업은 상대적으로 저발전된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마을별로 도비 300만원이라는 적은 금액을 지원하여, 잃어버린 공동체를 회복하고 마을 구성원이 행복감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대부분의 농촌마을은 사실 매우 지저분하다. 그러나 그것을 잘 치우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행복마을사업에서 쓰레기 분리함 설치, 마을꽃길 조성 등의 사업을 주로 추진한다. 올해로 4년차인 이 사업을 그 동안 80개 마을에서 운영되었다. 전반적으로 사업의 결과는 매우 높은 편이다. 마을의 환경개선효과는 물론이고, 마을공동체의 회복 효과, 주민들의 자신감 향상 등이 그러한 효과이다.

<주민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

마을주민들은 적은 금액 300만원으로 우리 마을에서 무엇을 할지 스스로 결정한다. 대부분은 마을꽃길조성, 쓰레기 분리함 설치 등 마을 경관개선사업의 내용이 포함되고, 각종 주민들의 동아리 모임이 운영된다. 꽃길 조성부터 살펴보면, 금액이 워낙 적은지라 주민들은 모종이 아닌 꽃씨를 사서 꽃을 피운다. 관광객이 많이 지나다니는 도로 주변에 관광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치우고 꽃길을 만들거나, 마을 내 빈 공터를 활용하여 꽃을 심는 작업이다. 마을 주민들이 돌도 나르고 하여, 휴식공간이 조성되었다. 그들에게 매우 소중한 공간이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그들은 꽃에 물도 주고, 잡초도 뽑는다. 그러다 서로 만나 인사도 하고, 같이 커피도 한잔 한다. 그동안 서먹서먹했던 귀농귀촌인도 나와 거든다. 이렇게 조금씩 마을 주민과 친해지고, 마을에 애착이 생긴다. 처음에 꽃길 만들라 하니, 반응이 별로였다. 그런데, 하나둘씩 꽃길을 만들기 시작하니 주민들이 한명 두 명 나와서 같이 하기 시작했다.

서울 손주들이 외가에 놀러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꽃에 물주고, 잡초 뽑고. 외가를 좋아하니 할머니, 할아버지도 뿌듯했다. 그동안 외손주들이 와도 스마트폰으로 게임만 하고 그냥 하룻밤 자고 가는 것이 고작. 할머니, 할아버지와는 별로 말도 안하고 그랬었는데 말이다. 꽃길을 가꾸면서 잠시 쉬는 시간에 마을회관에서 여럿이 같이 먹는 믹스 커피. 그것이 제일 꿀맛이었다. 그동안 방치되었던 빈집을 정비하여 깨끗한 사랑방으로도 꾸민다. 보은군 이원리의 한 약국은 약사가 사망한 이후, 더 이상 운영하지 않던 빈 공간이었다.

자식들과 연락하여 이 공간을 마을이 사용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았고, 지역농협의 자원봉사자들이 예쁘게 페인트칠도 해주었다. 이제는 새로운 마을의 공유공간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모두 주민들이 스스로 이루어낸 성과이다.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만들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 그들이 만들어낸 분리수거장은 세련되지 않았다.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무통을 가져다 라벨을 붙여놓았을 뿐이다.

이렇게 마을을 꾸미다 보니, 마을의 재주꾼들이 나타났다. 전에 몰랐는데, 솟대 만드는 장인, 시조를 읊는 장인, 춤을 추는 장인, 짚풀 공예를 하는 장인 등이 마을 속에 숨어있었다. 그들이 밖으로 나와 주민들과 함께 만들고, 함께 즐거웠다.

<서툰 주민들과 함께하는 전문 컨설팅의 역할>

전국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으나 충북의 행복마을 사업이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는 이유라고 한다면, 컨설팅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을주민들의 원활한 참여와 운영을 위해 전문 컨설팅 집단이 투입되고, 거의 매주 주민들과 같이 의논하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도와주는 역할이다. 주민들은 서툴다. 디자인도 세련되지 못하다. 그렇다고 그것을 알잡아 보는 것은 금물이다. 그들의 애정이 담겨진 디자인이기 때문이다. 전문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잘 만들어주는 것은 오히려 주민들에게 의존하는 습관만 만들어 주는 결과로 이어진다. 주민들에게는 삶에서 나온 지혜가 있다.

▼ 방치되었던 공간을 새단장하여 주민공용공간으로 활용할 예정



▼ 주민들이 직접 만든 마을 분리수거함



▼ 마을 장인이 만든 솟대



그러한 지혜를 듣고,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매우 필요하다. 시도한 적이 없는 주민들이 나서서 시작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주민들은 사람들 모으는 것도 쉽지 않다. 우리 마을에 어떤 좋은 점이 있고, 어떤 나쁜 점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 이때 전문가들은 그들은 돕는다.

3. 삶과 함께 하는 주민참여 디자인의 특징

<지역과 생활 관습을 먼저 이해하는 디자인>

농촌은 도시와 다르다. 도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 기능에 따라 구분된다. 그런데 농촌지역은 주거지역 겸 상업지역이고, 상업지역 겸 생산지역이고, 생산지역 겸 녹지(여가)지역이다. 그리고 관광지도 아니고, 문화재가 있는 곳도 아니다. 농촌은 그저 삶의 공간이다. 농촌 공간을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농촌만의 삶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농촌계획은 도시계획과 다르다. 기능적으로 구분하는 도시지역의 공간디자인과 달리, 농촌지역의 공간디자인은 그들의 삶을 먼저 이해하고 삶을 담아야 하는 계획이다. 소유관계도 다양하다. 도시지역과 같이 이곳은 내 땅, 저 곳은 너의 땅이 아니다. 농촌지역의 지적도를 실제로 보면, 집들이 서로 엉켜있는 경우도 많으며, 개인의 땅이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법보다 관습이 더 중요

한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습은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해 나간다. 주민의 구성 역시 도시와 다르다. 익명성이 보장되고, 삶터와 일터가 다르고, 이웃과의 접촉을 억지로 만들어야 하는 도시지역과 다르다. 농촌지역은 삶터와 일터가 같으며, 이웃과의 접촉이 항상 이루어진다. 그래서 농촌 공간의 디자인은 그들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디자이너가 계획하고 설계한 만들어진 공간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 같이 계획하고 설계하여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농촌이다.

<노동의 힘 : 서로 땀을 흘린다.>

돈이 나오지도 않는데 공동 작업을 한다는 것. 쉽지 않다. 자기 일에만 집중하는 시대에 공동으로 일을 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다. 더구나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그러나 같이 노동을 하면서 그들은 친해졌다. 같이 꽃을 고르고, 꽃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 과정에서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다. 내가 힘들여 작업한 것이기에 더욱더 소중하다. 비가 오거나 하면, 심어놓은 꽃이 걱정되어 나와 보면, 나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와 쓰러지지 않게 묶어주고 있다. 이때 동질감을 느끼는 것이다. 노동을 같이 하는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같이 청소하고, 같이 분리수거를 하는 과정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기 쉽다고 한다. 이런 측면에서 꽃길 가꾸기 등 노동 중심의 마을만들기는 주민들 사이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 주민들이 작성한 마을지도



▲ 도로변 꽃길 조성을 위한 주민들의 노동작업
(자료 : 충북 괴산군 행복마을분지리 발표자료, 2018)

<나눔의 힘 : 서로 도움이 된다.>

농촌지역의 경우, 귀농귀촌하신 분이나 고령자인 분들은 마을만들기를 통해 소속감과 자신감이 생긴다. 새로 마을로 이사 오면 서먹서먹했다. 그러다가 노동 중심의 마을만들기를 통해 마을에 자신의 재능을 기여하게 된다. 도시에서 교사를 하던 사람, 상가를 운영하던 사람 등이 그들이 가진 재능을 발휘한다. 재능이 없어도 노동에 참여한다. 또는 꽃씨를 사러 운전을 하거나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거나. 이렇게 마을사람들과 알게 된다. 점차 마을에 적응하게 되는 것이다. 또 지역 내 숨어있던 장인들도 있다. 그들은 그동안 자신의 재능을 굳이 마을에 들어내지 않고, 오히려 외부 수강생들과 접촉이 더 많았다. 그러나 마을만들기를 통해 그들의 재능이 마을을 더욱 풍성하게 해준다. 그동안 그를 몰랐던 마을 주민들도 이제는 그에게 와서 이것저것 배우기 시작한다. 이렇게 지역 내에서 서로 소통을 하게 된다.

<자아 개발의 힘 : 나에게 이득이 된다.>

노인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동안 마을 노인정에서 시간만 죽이면서 지냈는데, 이제는 잡초도 뽑고, 꽃에 물도 준다. 아직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르신들은 더욱 신이 나서 참여를 하신다. 나름 잔소리도 한다. 그분들에겐 경험이 있으니까. 또 그동안 자식 키우느라 공부를 못하신 어르신들. 그분들에게 한글교실을 연다. 같이 배우자. 이제 내 이름은 자신있게 쓸 수 있다. 나중에 자서전도 쓰고 싶다고 하신다. 참여하면서 소득이 있다. 물론 경제적인 소득은 아니다. 글을 배우고, 악기를 배우고, 댄스를 배우는 소득이다. 이것은 즐거워서 하는 것이다. 이런 즐거움 없이 노동만 한다면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참여함으로써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무언가가 있다면, 참여는 지속될 것이다.

<느슨함의 힘 : 천천히 부담스럽지 않다.>

마을만들기가 부담스러운 작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무엇이든 꾸준히 할 수 있으면 힘들지 않아야 한다. 벼락치기 공부를 하고 나면, 금새 잊고 마는 것처럼. 심한 다이어트를 하고 나면 다시 요요 현상이 돌아오는 것처럼 몰아치기로 추진하는 마을만들기는 지속되기 어렵다. 지속가능할 수 있으려면 큰 맘 먹고 하지 않아야 한다. 큰 맘 먹고 하는 것은 힘들다. 그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꽃길 가꾸기, 쓰레기 치우기, 한글교실, 사물놀이 등을 추진했던 마을에서는 이러한 모임을 주 1회 정도, 월 1회 정도 등 느슨하게 추진하였다. 당장 모든 것을 해치우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그냥 일상에서 즐기면서 시작하였다.

참고문헌 및 사진출처

- 1) 변혜선 외, 디자인의 두얼굴, 2016
- 2) 변혜선 외, 공감을 디자인하다, 2018
- 3) 거름, 행복마을 컨설팅 및 역량강화사업 종합보고서, 충청북도, 2015
- 4) 2018 충청북도 행복마을 사업 발표 자료, 2018
- 5) 사진촬영 : 변혜선

LEVEL UP

컨설팅 사례

030 학교 스튜디오 연계 사례	김진기 교수
036 집중지원 사례	
042 유형별 사례	
- 태학산 자연휴양림 유아숲 체험원	천안시
- 공주시 무인대여 공공자전거 색채디자인	공주시
- 당진시 클린하우스 디자인	당진시
- 홍성군보건소 치매안심지원센터	홍성군
- 서산동문초등학교 내부 색채디자인	충청남도교육청
- 방포초등학교 내부 색채디자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스튜디오 연계 사례

유구초등학교 학교숲 조성사업

사업유형 공공공간

신청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

신청시기 실시설계

자문위원 김진기 교수(공주대학교)

사업내용 및 현황분석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에 있는 유구초등학교는 유구천과 아름다운 산으로 둘러싸인 100여 년 전통의 학교이다. 컨설팅 대상인 유구초등학교 학교숲 조성사업은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학교숲 공모 선정사업으로, 친자연적인 학습공간 제공과 생활권에 부족한 녹색공간 확충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학교숲 대상지는 학교 정문을 중심으로 담장을 따라 ㄷ자형으로,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다수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으나 시설 및 수목의 재배치와 함께 숲 조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 사업대상지 현황도(사진촬영 : 김진기)



사업비는 6천만 원으로 주로 학교숲을 조성하기 위한 식재와 시설물 공사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 설계안은 학교숲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아 이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했다. 학교숲은 산림청의 학교숲 조성사업 시행지침에 명시되어 있듯이 학교와 그 주변 지역 사람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해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그러나 기존 설계안은 정형식 식재 기법을 주로 도입하여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결여되어 있고 교과서에 나오는 향토수종 대신 외래종이나 원예품종이 제시되어 있었다. 또한 동선의 흐름이 부자연스럽고 휴게시설이 부족하였다.

컨설팅은 2018년 3월 초부터 진행되었다. 첫 번째 현장 방문 시 학교 관계자, 학부모 회장, 공공디자인센터와 컨설팅에 대한 회의를 했다. 마침 봄학기가 시작되던 터라 3학년 식재캡스톤디자인이라는 과목에서 실습프로젝트(Class Project)로 학교숲 조성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실제로 외국대학에서 디자인 스튜디오를 진행할 때는 프로젝트 대상지가 지역주민이나 기관의 요청으로 정해지고, 클라이언트와 의견교환을 하면서 설계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란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학교숲 대상지를 답사하면서 학교장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학교측의 요구인 컨설팅범위는 기존에 있는 수목과 시설물의 재배치,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숲 조성, 지역주민을 위한 산책로, 이용공간의 다양성, 도입수종의 종류, 야생화원 조성, 휴게시설물 설치 등 학교숲 조성을 위한 전반적인 이용공간 계획과 동선계획에 관한 것이었다.

학교 스튜디오 수업과 연계

수업은 일반 디자인스튜디오의 설계과정과 같이 자료수집(Research)-분석(Analysis)-종합(Synthesis)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수업 첫 시간에 학생들과 히데오 사사키(Hideo Sasaki)의 디자인과정(Design Process)¹⁾이라는 논문을 주제로 토론한 결과이다.

학생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는 학교숲에 관한 자료수집(Research)이었다. 학교숲과 관련된 법, 제도, 지침뿐 아니라 기존의 학교숲 조성 사례,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나무의 종류를 조사하고 초등학교 학생들과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드론을 이용한 사진촬영으로 전체적인 공간과 동선의 흐름을 조사하였고 특히 식생에 대해서는 형태상 특징 및 생태적 특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기존 수목의 위치 및 규격과 해당 식물의 생육환경을 조사하였고 계절적 영향을 받는 식물의 특성은 관련 식물 도감이나 인터넷 자료를 활용하였다.

1) Hideo Sasaki. 2002. "Design Process." in *Theory in Landscape Architecture*, edited by Simon Swafeld, 35-37.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분석단계에서는 수집한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식생 및 시설물 현황도 작성과 이용공간과의 상호관계 및 동선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도입될 프로그램에 따라 공간의 크기, 형태, 위치가 제시되었고, 이용 공간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동선이 제시되었다. 대상지가 학교숲이므로 식생 현황의 문제점과 잠재력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식재 수목 선정 시 각 식물의 조경상 특징 및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였으며 특히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나오는 수목을 중심으로 생육환경, 즉 기온, 광선, 토양, 공해, 내염성, 토양 등을 검토하였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식물 중 대상지 학교숲에 도입 가능한 수종

구분	도입가능수종
상록교목	소나무, 향나무, 잣나무, 측백나무, 주목
낙엽활엽교목	느티나무, 단풍나무, 참나무류(떡갈, 굴참, 신갈, 상수리, 졸참), 목련, 벚나무, 오동나무, 은행나무, 배롱나무, 산수유, 계수나무, 매화나무, 붉나무, 자작나무
유실수	감, 대추, 호두나무
관목류	사철나무, 회양목, 개나리, 진달래, 철쭉, 장미, 수수꽃다리, 무궁화
초화류	갈대, 국화, 나팔꽃, 맨드라미, 민들레, 봉선화, 억새, 제비꽃, 조릿대, 짚레, 채송화, 코스모스 등

기본구상 및 컨설팅 내용

학생들에게 제시되었던 프로그램의 기본방향은 첫째, 유구초등학교 주변 숲과 연계된 생태적으로 건강한 숲 조성, 둘째, 학생들의 숲 체험활동을 통한 자연의 이해도 증진, 셋째, 지역공동체 문화교류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조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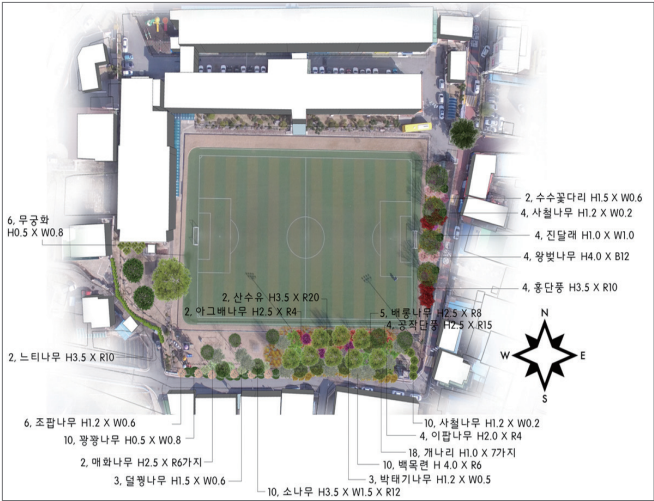
도입 활동으로는 휴식 및 명상, 체험, 학습, 소통, 놀이, 운동을, 도입 시설/공간으로는 숲 체험공간, 산책로, 어린이 놀이터, 야외운동시설, 정자, 야생초화원, 암석전시원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각 공간에 도입될 프로그램 및 컨설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프로그램 및 컨설팅 내용
자연체험공간	학생들이 더 편하게 자연을 접할 기회를 제공. 도입프로그램으로는 은행나무의 암수 구별하기, 교과서에 나오는 식물 찾아보기, 단풍이 드는 이유 알아보기, 잎의 형태 알아보기, 나뭇잎이 떨어지는 이유 알아보기, 야생화단을 조성하여 꽃말 알아보기 등
휴게공간	산책로 주변 휴게시설 설치 및 느릅나무 근처 그늘막을 이용한 휴게공간 계획으로 지역주민과 학생들 간의 교류의 장
운동공간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기능뿐 아니라 산책로, 야생화정원, 느릅나무 휴게공간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의 문화교류공간 조성
야생화단	계절별 야생화를 선정하여 다양한 경관 연출
암석전시원	교과과정 및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자연에 대한 이해 도모
놀이공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며, 시설물 재료는 자연 친화적 소재와 내구성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선정

제시되었던 학교숲 내의 이용공간에 대한 계획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종의 다양화와 다층구조 식재로 학교숲 기능을 강화하며 숲 속 느낌을 체험케 하며, 계절에 따른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수종선정 및 식재계획으로 시각적 즐거움과 교육 효과를 증진시킨다. 둘째, 생육상태가 불량한 수목은 생육환경 개선이나 제거를 하고, 기능상 어울리지 않는 수목의 이식과 대상지 내 시각적으로 불량한 구조물의 차폐식재로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셋째, 산책로는 학교숲과 이용공간 간의 연계성을 유지하며, 지역주민들의 문화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며, 나무그늘을 이용한 휴게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한다.



▲ 공간구상(안)



▲ 마스터플랜



▲ 학교숲 체험공간



▲ 놀이공간



▲ 휴게시설 정면도



▲ 산책로 단면도

최종발표

2018년 5월 유구초등학교에서 최종발표회를 했다. 발표는 두 팀으로 나뉘어 한 팀당 15분 발표에 15분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학교 측에서는 학교장을 비롯하여 교사 다섯 명이 참석하였다. 학생들은 발표 후 교사들과 깊이 있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제시안에 큰 관심과 흥미를 보였고, 학생들의 세심한 현장 조사와 설계과정에 대해 많은 격려를 보내 주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발표를 듣고 평소에 그냥 지나쳤던 부분들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학생들은 클라이언트와 직접적인 대화를 함으로써 현장 감각을 익힐 수 있었다. 일반 수업 실습프로젝트와 비교해 볼 때, 지역사회와 연계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열의와 집중도, 성취도를 높힐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실제로, 발표한 학생들에게 물어보니 “외부에서 발표하니 긴장감이 더하긴 하지만, 자신감과 무엇을 해냈다는 뿌듯함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 촬영 김진기, Panasonic Lumix 2018. 05. 30



▲ 학교숲 조성사업팀 작업 판별

마치며

첫 번째 현장답사 시, 사업기간에 여유가 있다고 해서 학교수업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컨설팅을 시작하였는데, 상황이 변경되어 도중에 학교숲 조성공사가 먼저 착수되었다. 그로 인해 학생들의 안이 반영되지는 못하였으나, 최종발표회 때 학교숲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의견이 제시되었고, 학교 측에서도 추후 단계적으로 제안된 마스터플랜에 따라 일부 보완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공공사업이 회계연도에 의해 예산이 편성 집행되므로 많은 사업들이 기간 내에 맞춰 서둘러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이번 컨설팅도 시간적 여유가 좀 더 있었거나 또는 사업계획수립단계에서 이루어졌다면, 여러 의견들이 수렴된 보다 건강하고 교육적인 학교숲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그러나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민과 대학생이 서로 교류하며 상생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컨설팅이었다. 지역사회에게는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할 좋은 기회였고, 학생에게는 직접적인 현장 경험을 습득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현재 컨설팅 추진체계는 각 시·군에서 사업계획서를 충남도에 제출하고 공공디자인 센터에서 컨설팅 대상, 내용, 시기 등을 총괄관리 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디자인 컨설팅 의뢰는 주로 사업계획 수립과 기본계획 수립 사이에 이루어지는데, 이번 학교숲 조성공사의 경우는 실시설계가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컨설팅 의견의 반영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특히 식재 공사를 필요로 하는 공공공간의 경우 봄, 가을 식재에 맞추어 사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시설물이나 공공매체 컨설팅보다 일정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때, 사업 초기 단계부터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업계획서가 검토되고, 보다 많은 컨설팅이 학교 수업과 연계하여 이루어진다면, 공공디자인 사업이 다각적인 소통과 교류를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집중지원 사례

태안군 어린이10호 공원조성사업

사업유형 공공공간
신청기관 태안군 도시건축과
자문위원 김준연 교수(나사렛대학교)
최창호 박사(천리포수목원)
박혜은 전임연구원(충남공공디자인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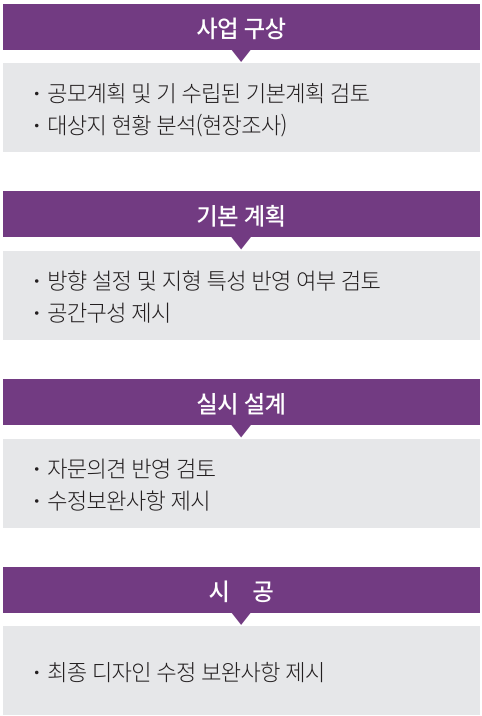
사업개요 및 컨설팅 추진단계

- 본 사업은 충청남도에서 공모한 <2017년 충남형 공원 조성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기 조성완료(리모델링) 또는 신규 조성이 필요한 공원 중 여성, 어린이, 노약자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조성하는 공원사업에 선정된 것임
- 본 대상지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으로 2015년 수립된 「기본계획」에 일부 포함되어 있었음
- 공모사업 선정 후, 사업구상단계에서 담당자의 신청으로 총 4차례에 걸친 단계별 컨설팅이 진행됨

대상지 분석

- 사업 진행 전 대상지는 경사가 있는 지형으로 애초 계획은 성토를 통한 평탄화 작업 후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토목공사 비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음
- 대상지 주변에는 어린이집, 도서관, 초등학교, 아파트 등이 인접해 있어 공원을 조성한다면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 예상되는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음
- 공모사업 방향이 인권 및 약자를 고려한 공간조성이므로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등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방향설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 사업 추진단계에 따른 컨설팅 진행 방향



▲ 사업대상지 현황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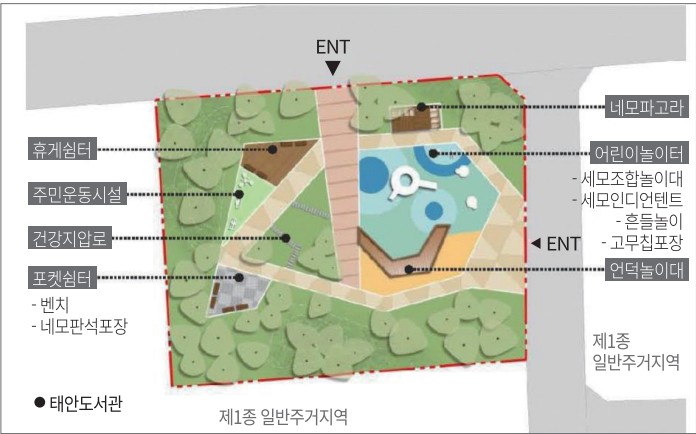


▲ 사업대상지 현황 2

컨설팅 내용

<1차 컨설팅:사업구상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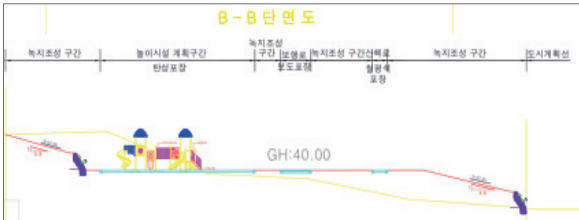
- 2015년에 수립된 기본계획 검토 결과, 일반적인 어린이 놀이터에 조성되는 시설물 위주의 계획으로 지형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
- 이에, 대상지의 지형 경사를 활용하여 재미있는 공간을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여 방향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진행함
- 또한, 관 주도의 계획이 아닌 공원의 주 이용자 중심의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음. 이에 주변 어린이집 아이들과의 워크숍 진행으로 아이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방식을 제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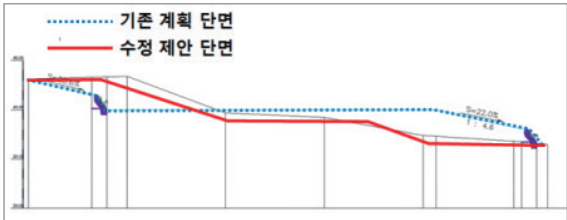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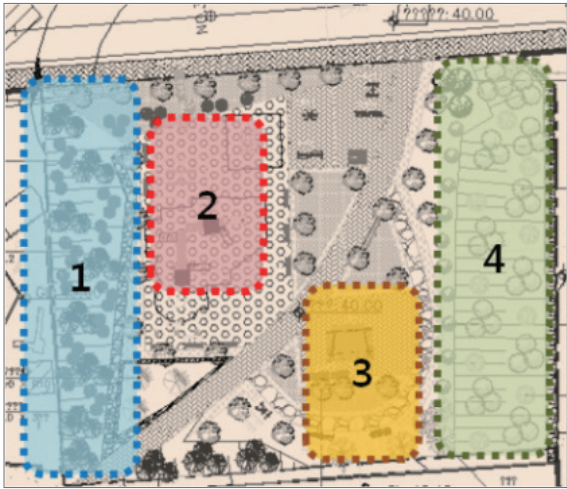
▲ 2015년 도시관리계획 시설에 대한 기본계획 중 대상지 계획

<2차 컨설팅: 기본계획단계>

- 제시된 기본계획안은 아파트단지 내에 조성되는 일반적인 어린이 공원으로 지형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함
- 이에, 1번 공간은 경사면을 최대한 살려 경사면을 활용한 놀이 시설물을 배치하여 경사면이 하나의 놀이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2번 공간은 취학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으로 그네 등을 배치, 3번 공간은 미취학 어린이인 유아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합 놀이대 등을 배치, 4번 공간은 도로와 접해있는 곳으로 접근성을 고려하여 평탄하게 하도록 제시하였음
- 또한, 단면에서 지형의 경사를 활용한 놀이시설물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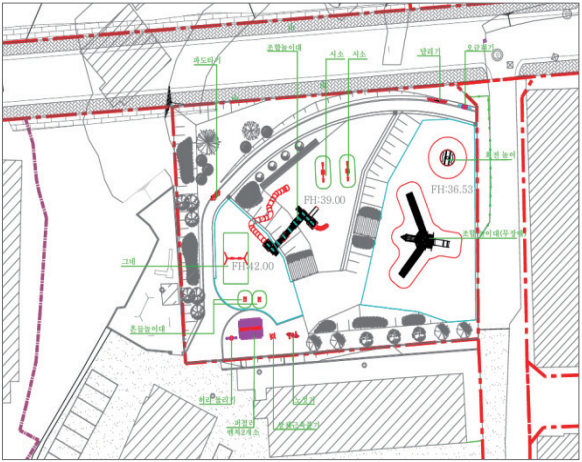
▲ 기존 기본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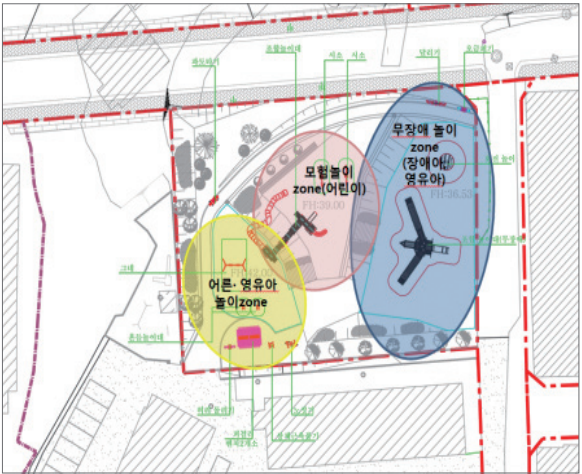
▲ 2차 컨설팅 제시안-지형에 맞는 공간구성

<3차 컨설팅: 실시설계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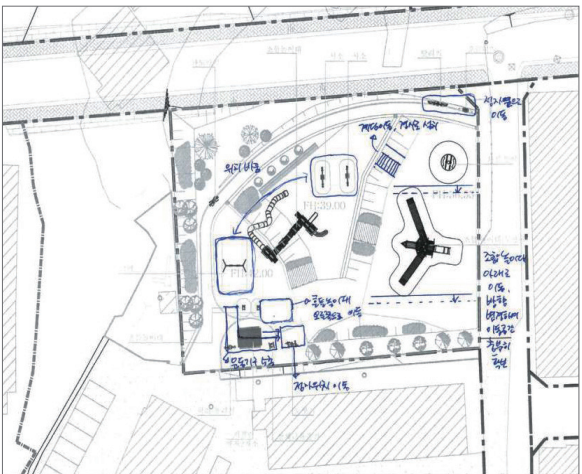
- 실시설계안은 2차 컨설팅을 반영하여 지형의 경사를 살린 공간구성, 어른과 노약자를 위한 공간 마련, 장애아를 배려하면서 어린이들의 모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공간 등 본 사업의 목적에 맞는 공간설계가 되어 있음
- 다만, zoning 계획에 따른 시설물 및 놀이기구 배치 변경, 장애아를 위한 시설물 설치 등의 수정 보완이 필요한 상황으로, 무장애 통합놀이 zone, 모험놀이 zone, 어른-영유아 놀이 zone의 각 zone에 맞는 시설물 배치의 수정사항을 제안하였음
- 또한, 장애아를 위한 경사로 설치 및 공원안내 표지판 설치 등 추가적인 시설물을 제안하였음



▲ 기존 실시설계안



▲ 3차 컨설팅 제시안-zo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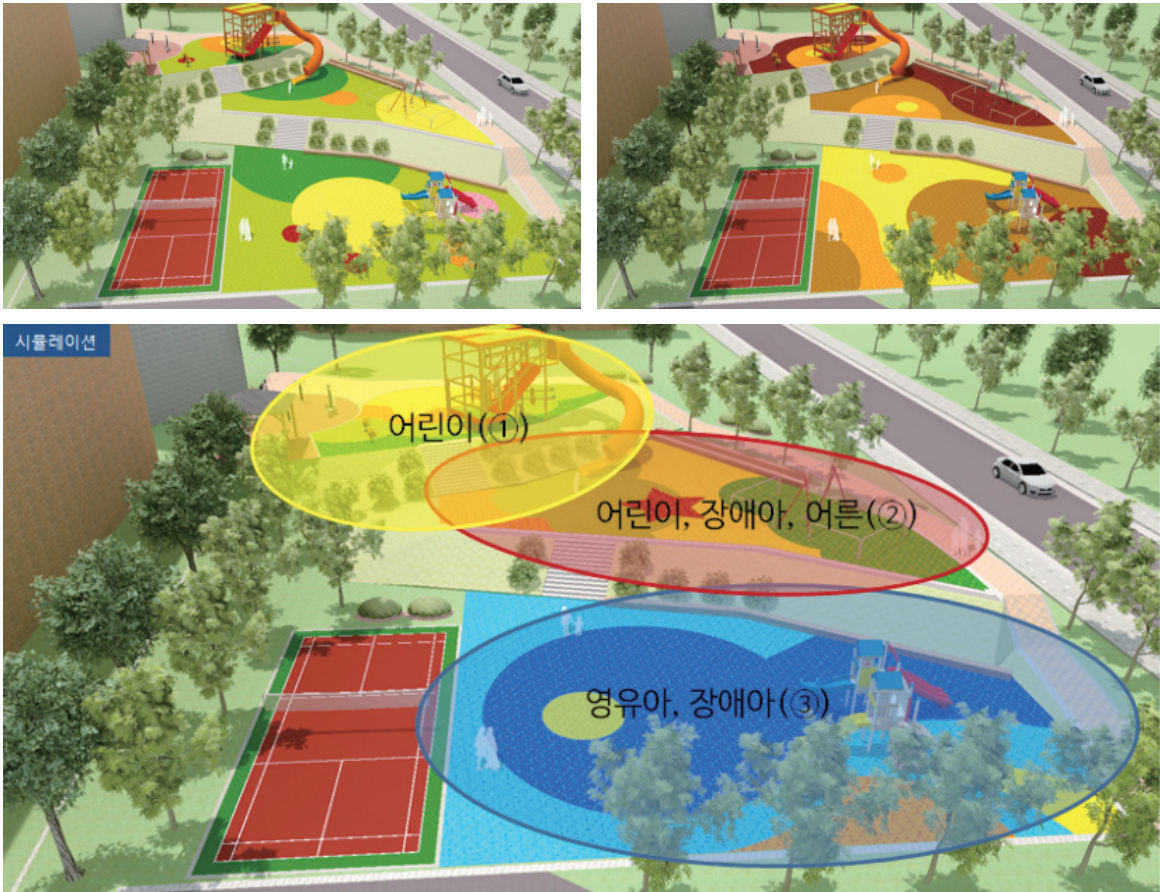


▲ 3차 컨설팅 제시안-zone 별 배치계획

<4차 컨설팅: 시공단계>

- 3차 컨설팅을 반영한 설계도면을 토대로 공원 시공 마무리 단계에서 바닥 포장에 대한 디자인 컨설팅을 하였음
- 바닥 포장 디자인을 공원 이용 대상별(공간기능별) 시설물 및 놀이 영역과의 연계성, 교육 및 체험 등의 기능을 부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여 본 대상지에 적합한 디자인 방향을 제시하였음
- 공간에 대한 주 이용 대상을 구분하면 어린이를 위한 모험놀이 공간(①), 어린이/장애아를 위한 공간(②), 영유아/장애아를 위한 공간(③)으로 구분할 수 있음
- ①은 주 이용 대상이 초등학교생임을 고려하여 교육과 체험을 할 수 있는 패턴 디자인, ②영역은 ①, ③ 영역과의 연계성, 그리고 주 이용 대상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시각적으로 패턴의 인지가 가능하면서 ①, ③영역 공간의 동선 정보를 제시해줄 수 있는 디자인, ③영역은 이용 대상자가 영유아와 장애아임을 고려하여 패턴 자체를 아이들이 인지하면서 공간에 대한 친근감을 부여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적용하도록 방향을 제시하였음

▼ 기존 제시 바닥 패턴 디자인안



▲ 4차 컨설팅 제시-기존 바닥 패턴 디자인에 공원 이용 대상별 구분(공간기능별 구분) 제시



▲ 컨설팅 반영 결과(사진출처: 공주대학교 조경학과 김진기 교수)

유형별 사례

태학산 자연휴양림 유아숲 체험원

사업유형 공공공간

신청기관 천안시 산림복지과

자문위원 김준연 교수(나사렛대학교)

정원영 대표((주)4B)

사업내용 및 현황분석

- 본 사업은 태학산 자연휴양림 내 자연환경 및 자연재료를 이용한 유아들의 숲속 체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임
- 대상지는 숲, 잔디, 계곡 등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벤치 및 타이어 재료의 놀이 등 시설물이 조성되어 있는 상황이며, 공간의 성격에 따른 개념 및 시설물 디자인에 대해 제시하고자 함

▼ 디자인 적용



컨설팅 내용

- 계획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감의 숲은 자연의 숲으로, 자연의 숲은 교감의 숲으로 공간 개념을 변경하여, 자연의 숲에서는 넓은 잔디에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교감의 숲에서는 계곡이나 나무, 풀 등 자연 속에서 오감을 느끼도록 함
- 또한 계곡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안전 난간 추가 설치, 화장실에서 가능한 거리를 두고 놀이기구 설치, 입구 게이트 디자인은 자연소재를 사용, 안내판에는 숲 공간에 대한 설명을 추가할 것을 제시하였음



▲ 디자인 적용

유형별 사례

공주시 무인대여 공공자전거 색채디자인

사업유형 공공매체
신청기관 공주시 교통과
자문위원 서동진 교수(상명대학교)

사업내용 및 현황분석

- 공주시 공공자전거는 특수 제작한 자전거로, 일반 자전거와 규격 및 재원이 달라 공공자전거를 위한 차별화되고 계획적인 색채디자인이 필요함
- 기존 공공자전거의 키오스크 및 거치대와 어울리고 공주시 CI·BI 그래픽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며, 홍보와 운영관리에 적합한 디자인이 요구됨



▲ 현황사진

▼ 디자인 적용



컨설팅 내용

- 자전거 물받이 부분에 주목성이 높은 ‘GONGJU Yellow’를 사용해 시각적으로 잘 보이도록 하여 안전성을 확보함
- 체인커버 부분에는 공주시의 White BI를 사용하고, 배경색에 ‘Gray(시안 1)’, ‘GONGJU Brown(시안 2)’을 적용함
- 프레임은 White를 적용하여 간결함을 나타내고, 일부 ‘홍미진진 공주’를 ‘GONGJU Brown’으로 표기하여 공주시의 정체성을 드러냄



▲ 디자인 시안 1



▲ 디자인 시안 2

유형별 사례

당진시 클린하우스 디자인

사업유형 공공시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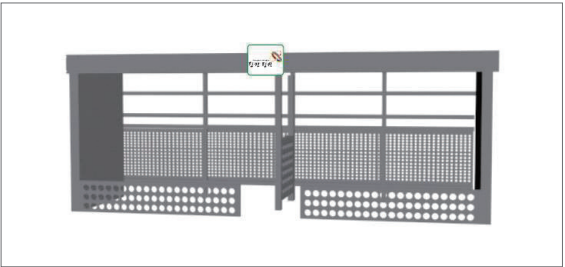
신청기관 당진시 자원순환과

자문위원 이단비 교수(호서대학교)

사업내용 및 현황분석

- 당진시에서는 기성품을 최대한 활용하여 필요한 공간의 환경에 맞추어 설치하고자 함
- 기존 계획안의 시설물 사이즈는 현장에 적합한 크기가 아니며, 디자인 비율을 확인하여 현장 여건에 맞는 디자인 계획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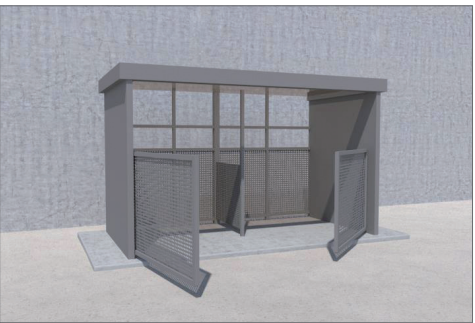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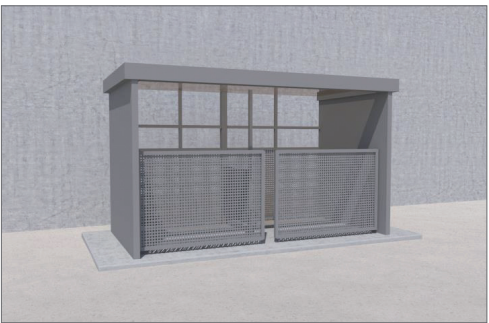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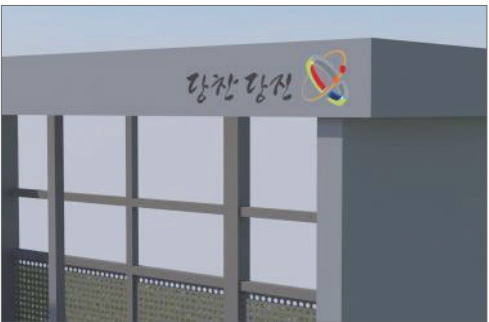
▼ 디자인 적용



▲ 기존 계획안

컨설팅 내용

- ‘당찬 당진’ 부착물은 실크스크린 인쇄로 진행하여 무채색의 시설물 색과 어울리도록 하고, 중앙보단 오른쪽으로 배치하여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함
- 시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역으로 유동인구가 많아, 배출물 적재로 지저분한 내부가 잘 보이지 않도록 전면부에 타공된 여닫이문을 설치하여 배출물의 환기와 가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함



▲ 디자인 시안

유형별 사례

홍성군보건소 치매안심지원센터

사업유형 공공건축

신청기관 홍성군 정신보건팀

자문위원 김학래 교수(한남대학교)
이기석 교수(선문대학교)

사업내용 및 현황분석

- 홍성군 보건소 주차장 부지에 치매안심지원센터를 조성하는 사업
- 홍성읍 행정복지센터, 홍성군보건소가 인접하고 있으며 주거지역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기능적, 경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
- 보건소와의 기능 및 동선 연계, 주차장 상부에 증축되는 여건 등을 감안하여 설계 방향 및 주안점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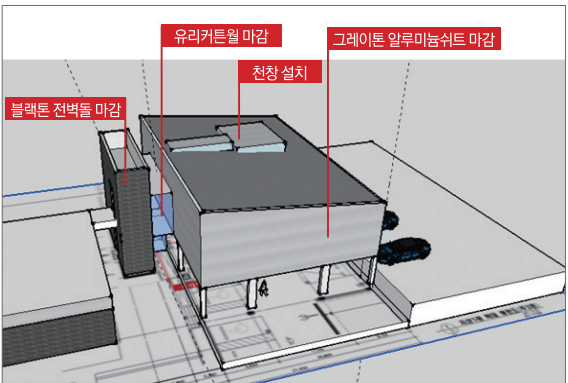
▼ 디자인 적용



▲ 현황사진

컨설팅 내용

- 기존 홍성군보건소의 마감재료인 그레이톤의 알루미늄 시트 패널, 전벽돌(저층부)과의 재료의 질감, 색채의 이질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접근
- 치매안심지원센터의 채광, 주차장에서의 진입 동선, 보건소와의 연계 등을 고려한 의견 제시



▲ 입면 제시안



▲ 디자인 적용 1



▲ 디자인 적용 2

유형별 사례

서산동문초등학교 내부 색채디자인

사업유형 공공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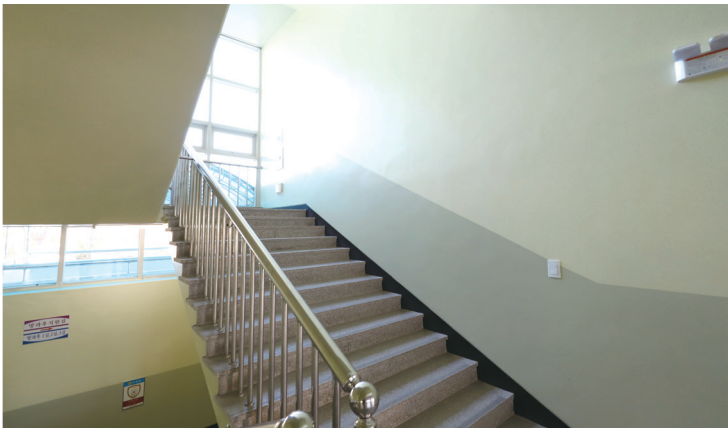
신청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

자문위원 정 민 교수(호서대학교)

사업내용 및 현황분석

- 컨설팅 대상 건축물은 2개동 4개 층으로 건축된 복잡한 구조의 초등학교 교사 건물로써, 방문 당시 내부 색채는 2008년에 선정된 색채로, 오염 등의 이유로 부분 보수가 다수 이루어진 상태여서 색채디자인의 일관성이 사라지는 등 보수가 필요함
- 기존 색채는 내부의 경우 파스텔 톤의 하늘색, 연녹색, 흰색의 세 가지 색조를 상하 투톤으로 배열한 상태였으며, 외부는 벽돌 외벽에 크림색 테두리로 구성되어 있었음
- 계단실 역시 상기 색상으로 동일하게 도색되어 있었으며, 학교 담당자의 의견으로는 유지 보수의 편리를 위해 다채 무늬도로도 색을 원하고 있었으나, 방화문이 없는 계단실은 색채디자인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디자인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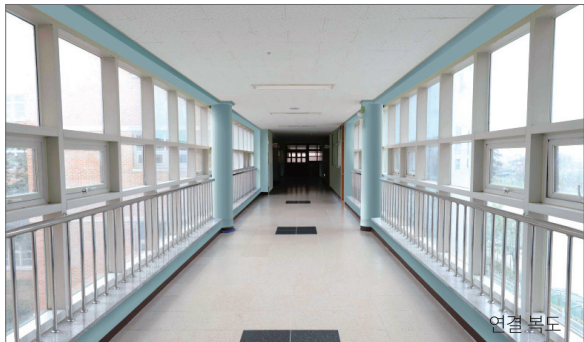


▲ 현황사진

컨설팅 내용

- Dunn Edwards 2018 Color of the Year에서 제안한 색채를 중심으로,高明도, 파스텔톤의 색채를 선정하여 교실/특별실, 관리실(행정실,교사연구실,교장실등),복도,계단실로 나누어 각각의 색을 제안함
- 각 실은 제안된 색상으로 통일하여 도색하고, 바닥에서 1m 20cm까지 투명 낙서 방지 페인트를 덧칠함으로써 투톤의 효과를 적용함

▼ 디자인 시안



교사 휴게실

유형별 사례

방포초등학교 내부 색채디자인

사업유형 공공건축

신청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

자문위원 이단비 교수(호서대학교)

사업내용 및 현황분석

- 해당 학교는 2개 층의 작은 규모의 학교로 내부 복도와 계단부의 도장이 훼손되거나 오염되어 있으며, 벽 부분에는 부식과 결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
- 현재 교실 내부의 기존 주조색은 화이트에 가까운 밝은 색상이며 하단에 보조색으로 청록색 계열을 사용하고 있음
- 초등학교 이미지에 맞는 색채디자인계획이 필요함



▲ 현황사진

컨설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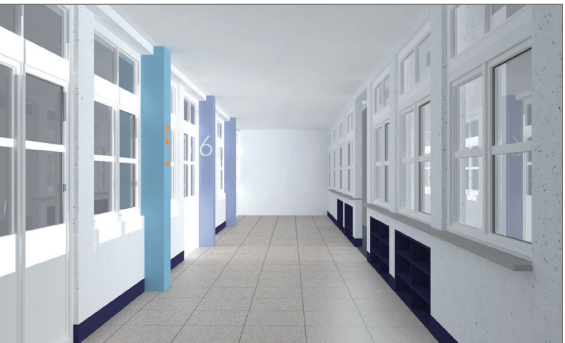
- 전체적으로 실내는 차분하고 학업에 집중하기 용이한 배색을 제안함
- 복도를 이전보다 덜 복잡하게 하기 위해 최대한 좁은 범위의 색채를 적용함
- 인지를 돕는 기능의 강조색을 돌출 부분에 일부 적용함

▼ 디자인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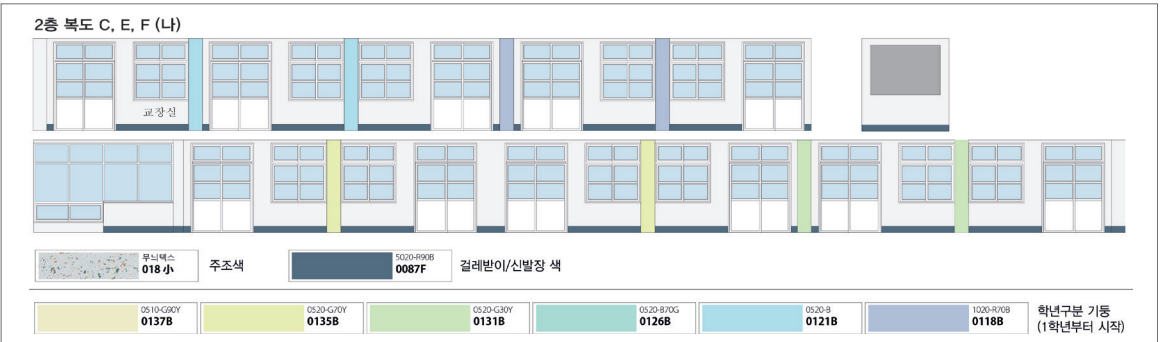


	1020-R70B 0118B	6학년
	0520-B 0121B	5학년
	0520-B70G 0126B	4학년
	0520-G30Y 0131B	3학년
	0520-G70Y 0135B	2학년
	0510-G90Y 0137B	1학년

▲ 색채팔레트



▲ 시뮬레이션(복도)



▲ 디자인 시안(복도)

예산군

신연길 주무관

지역별 개성·고유 경관 살리는

예산군 신(新)활력 창작소 조성시범사업



예산군 도시재생과 주택팀_신연길 주무관

예산군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개발사업은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사업부터 산업단지·관광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 주민 밀착형 소규모 생활 SOC사업까지 다양한 유형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건축물을 포함한 가로, 광장, 공원 등 공간 전반에 대한 디자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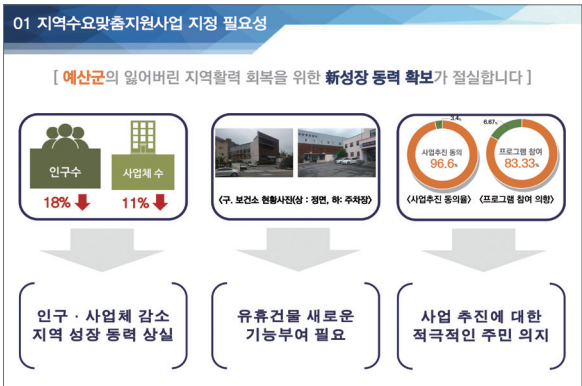
그동안 사업준공 및 예산집행에 집중하는 행정으로 디자인에 대한 인식 부족, 담당자의 디자인 전문성 결여 등으로 종합적인 공간 전략이나 디자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사업 결과물이 지역 내 공간 단절을 일으키거나 지역 고유 경관을 훼손하는 등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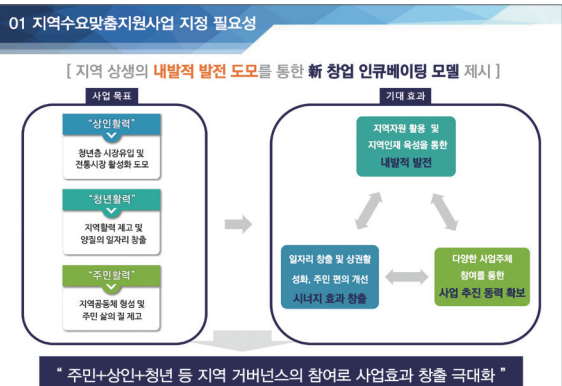
▲ ‘예산군 신(新)활력 창작소’ 마스터 플랜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더욱 완성도 높은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개발사업의 특징을 반영한 「지역개발사업 디자인 관리의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고 예산군 신활력 창작소 조성사업(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이 지역개발 디자인 관리를 도입한 첫 번째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영광을 차지하였다.

「신활력 창작소 조성사업」은 2018년 9월 신 군청사 부지로 이전하는 구 보건소 건물을 활용해 청년들의 요리 등 창업 인큐베이팅과 함께 주민 이용 편의성 및 이용자 간 소통을 극대화하는 다양한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 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청년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도모(청년 활력), 상인 역량 강화를 통한 상권 활성화 도모(상인 활력), 주민편의개선 및 삶의 질 제고(주민 활력)를 목적으로 주민과 상인, 청년 등 지역 거버넌스의 참여로 국토교통부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에 선정되었고, 총사업비 29억(국비 19억, 군비 10억)으로 추진하며 예산군의 잃어버린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신성장 신활력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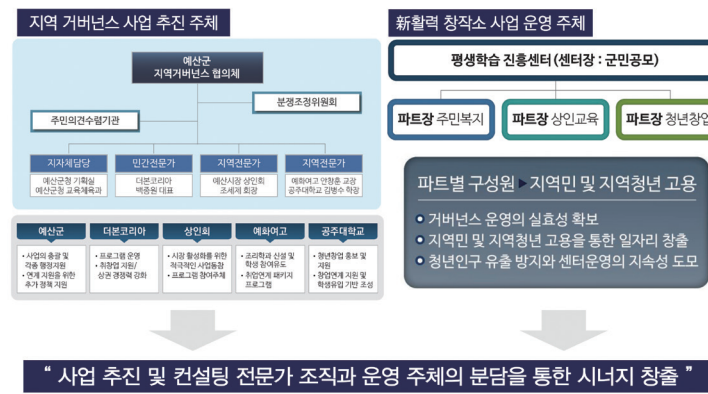
예산군은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디자인 관련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민간전문가 총괄디자인어 위촉, 다양한 관계자 사이에서 디자인 방향에 대해 합의할 통합디자인협의회 구성, 사업이 지향하는 디자인 가치를 담은 디자인 관리기준 설정, 지역 개발사업구역 및 인접 구역을 대상으로 건축물, 가로, 공원 및 광장, 시설물 등의 연계를 강화하여 조화롭고 입체적인 공간계획을 규정하기 위한 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 등 지역개발사업 디자인 관리를 통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로써 지역성을 극대화하면서도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지역의 특성과 고유 경관을 살리면서도 많은 사람이 지속해서 찾을 수 있는 신활력창작소 조성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예산군 신활력 창작소 조성사업 디자인 관리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개발 효과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앞으로 군에서 시행하는 원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 예당호 착한농촌 체험 세상 조성사업,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 등 군 사업 전반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03 기대효과

1. 거버넌스 운영 추진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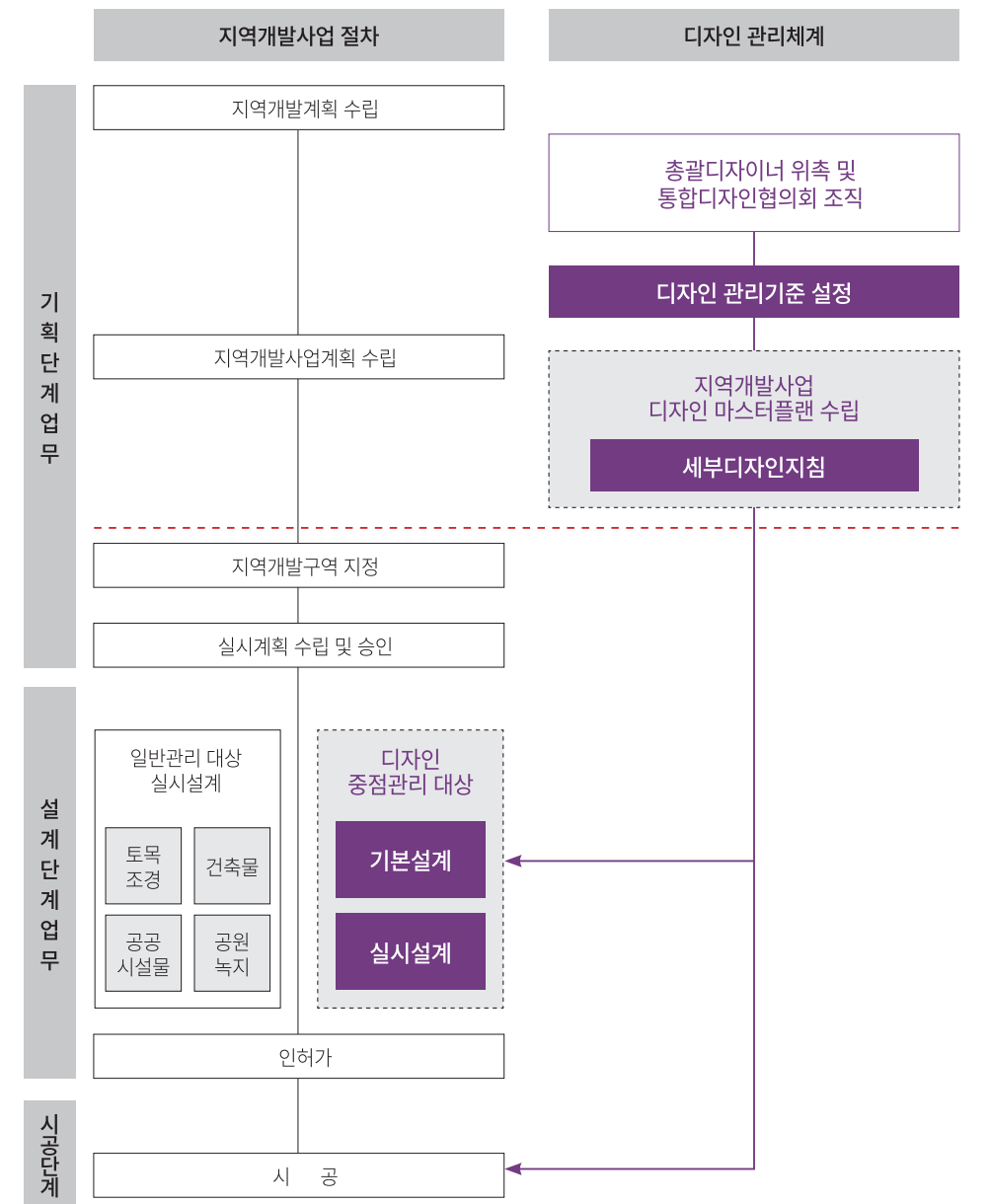
03 기대효과

2.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효과



▲ 기대효과

▼ 지역개발사업 디자인 관리 절차(국토교통부)



FOCUS ON

- 062 센터 소식
- 「충남공공디자인센터 하반기 워크숍」 개최
 - 「충남 디자인 특강」 개최
 - 「컨설팅 설명회」 개최
 - 「충남공공디자인센터 자문위원 간담회」 개최
 - 충남공공디자인센터 홈페이지 개편

「충남공공디자인센터 하반기 워크숍」 개최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는 12월 21일(금) 본원에서 「디자인 정책과 계획의 활용」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워크숍은 ‘천안시의 디자인 정책’에 대하여 송영민 팀장(천안시 건축디자인과 디자인정책팀), ‘국토환경디자인 지원 사업과 민간 전문가 제도의 이해’라는 주제로 심경미 박사(auri 건축연구본부 연구위원)의 발표로 진행되었다. 워크숍 진행에 앞서 공공디자인센터 운영에 도움을 준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김관호 과장에 대한 감사패 증정과 2018년 한 해 헌신적으로 공공디자인 컨설팅을 수행한 김지현(한밭대학교), 김진기(공주대학교), 정재훈(대전대학교) 교수에 대한 공로패 수여식이 있었다.

‘천안시의 디자인 정책’ 발표에서 송영민 팀장은 천안시의 경관계획,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범죄예방디자인 및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였다. 또한, 2016년에 도입하여 천안시 공간환경개선의 마중물이 되고 있는 도시디자인 공모전과 천안시의 디자인협업 시스템을 소개하여 시·군 디자인 행정에 시사점을 던져 주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참여하여 일상의 공간을 미술관으로 변화시키는 ‘오늘미술관 프로젝트’를 소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국토환경디자인 지원 사업과 민간 전문가 제도의 이해’의 주제로 발표한 심경미 박사는 국토환경디자인 사업의 목적, 지자체 활용사례와 성과를 소개하였다. 특히, 거창군, 하동군, 울진군의 ‘통합마스터플랜’을 통한 국비 확보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지역 정체성 확립 및 공간관리의 방향 설정을 위해 충청남도 시·군의 국토환경디자인 지원 사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용을 당부하였다.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에서는 디자인 관련 국내·외 이슈 및 동향 정보 제공을 통해 충남 시·군 관계자들의 디자인 마인드 향상에 기여하고자 ‘충남 디자인 특강’을 하반기에 총 4회 개최하였다.

‘건축사연(建築事緣) : 공공건축 설계 및 추진과정’이라는 주제로 윤승현 교수(중앙대학교 건축학부)가 9월 18일(화) 충남연구원, 11월 27일(화) 홍성군에서 특강을 하였다. 이 특강에서는 ‘북촌마을안내소’와 ‘영주시 조제보건진료소’를 공공건축 프로젝트 사례로 소개하면서 발주처와 건축가, 건설사가 하나의 팀이 되어야 질 높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고 제언하였다.

11월 8일(목) 예산군에서는 김주경 소장(오우재 건축사 사무소)이 ‘공공이 짓는 건축, 기획과 자율 사이에서’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였다. 공공건축 프로젝트 사례를 바탕으로 사업 초기단계에서의 기획의 중요성과 공공기관 관계자의 인식개

「충남 디자인 특강」 개최

선 및 역량강화의 필요성, 그리고 질 높은 결과물을 위한 합리적인 발주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11월 29일(목), 충남연구원에서 이진숙 교수(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의 ‘빛의 테마가 있는 도시’라는 주제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야간경관계획 수립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특강을 개최했다. 주요 내용으로 국내·외 야간경관 우수사례와 대전광역시 야간경관계획 수립 과정을 소개하면서, 현재 야간경관 현황 및 문제점, 기본구상 및 계획, 실행계획, 가이드라인 등 수립 방법을 설명했다. 아울러, 충청남도 15개 시·군에서 야간경관계획 수립 시 참고하되, 각 시·군의 현장 여건에 맞는 계획 수립을 당부하였다.

2019년에는 시·군 관계자들의 디자인 마인드 향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군의 월례회의 시간을 활용한 찾아가는 방식의 디자인 특강을 진행할 계획이다.



「컨설팅 설명회」 개최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주요 사업인「공공디자인 컨설팅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도시 이미지 상승을 위해 2018년 컨설팅 대상사업 담당자를 중심으로 하반기 ‘컨설팅 설명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설명회는 컨설팅 신청이 미미한 시·군을 대상으로 개최하여 충청남도 디자인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계획 및 상호협조 방안을 마련하였다.

첫 번째 설명회는 10월 18일(목), 청양군에서 개최하였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설명회는 11월 8일(목), 금산군과 예산군에서 개최했다. 방재성 센터장(충남공공디자인센터)은 ‘공공디자인 컨설팅의 이해와 활용’이라는 주제로 센터의 역할, 공공디자인 영역, 컨설팅 대상, 컨설팅 활용 방안, 컨설팅 운영 성과 등을 설명하며, 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사업 방향 설정이 중요하므로 초기 단계에서 컨설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2019년도 「공공디자인 컨설팅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여 활용한다면 공공사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충남공공디자인센터 자문위원 간담회」 개최

(공간·산업·시각디자인 분야)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에서는 충청남도 디자인 현안 공유 및 효율적인 컨설팅 운영을 위한 분야별 ‘자문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11월 6일(화)에 진행된 공간·산업·시각디자인 분야 자문위원 간담회에서는 컨설팅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체크리스트 개발 및 사업 담당자들이 이해하기 용이한 도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컨설팅이 명확한 결과 제시보다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며, 해당기관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2019년에도 충청남도 디자인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사업 발굴 및 공공디자인 컨설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분야별 ‘자문위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충남공공디자인센터 홈페이지 개편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에서는「공공디자인 컨설팅」의 효율적인 관리 및 DB구축을 위해 홈페이지를 개편하였다. 현재 On-line과 Off-line의 이원적 컨설팅 관리체계를 On-line 중심으로 개편하여 사용자 편의성 증진 및 업무 효율을 강화하였고, 컨설팅 프로세스 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을 On-line 보안시스템을 활용하여 차단하였다.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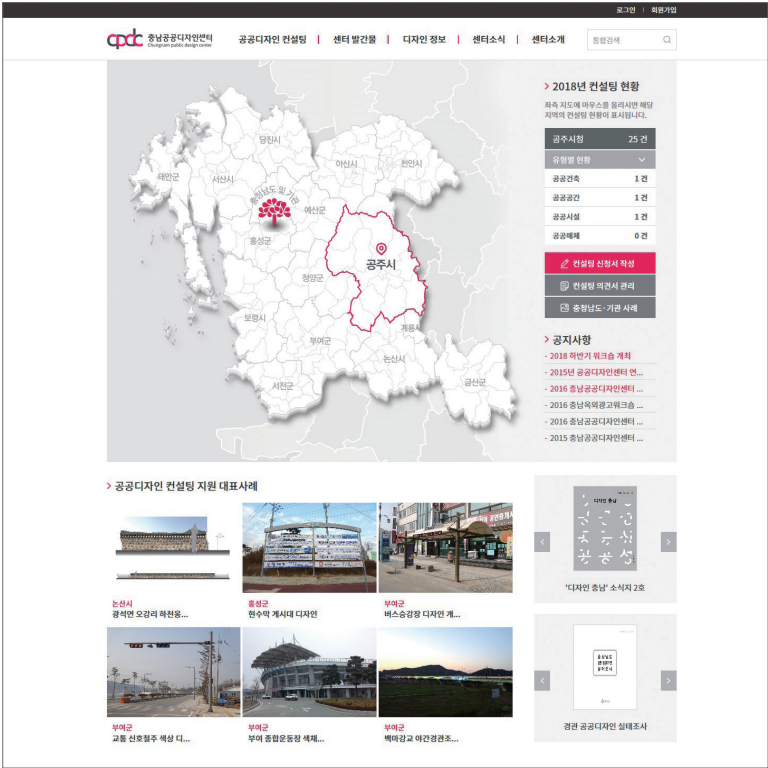
① 홈페이지 구성 변경

대분류	중분류	내용 및 구성방식
공공디자인 컨설팅	컨설팅이란	컨설팅 개요 / 절차 / 주요내용 / 대상
	컨설팅 지원현황	컨설팅 신청 목록
	컨설팅 지원사례	컨설팅 대표사례 / 시·군별 지원사례
	컨설팅 신청서 작성	신청자가 웹에서 작성
	컨설팅 신청서 관리	컨설팅 신청 정보 관리
센터 발간물	5개 하위 범주	연구보고서 / 디자인 가이드라인 / 디자인 충남(디자인 전문저널) / 컨설팅 지원 자료집 / 행사자료집
디자인 정보	3개 하위 범주	선진사례 / 충남 디자인 인증제 / 충남 디자인계획
센터소식	공지사항	-
	보도자료	-
	1:1문의	-
센터소개	인사말	-
	주요업무	-
	연혁	-
	조직도	조직도 / 구성원 / 자문위원
	오시는 길	-

② 홈페이지 디자인 개선

■ 메인 색상

: 센터 로고의 RP 계열 색상은 강조색, Gray 계열은 보조색으로 적용하여 ‘충남공공디자인센터’ 이미지를 표현함



■ 메인 페이지

: 도 및 15개 시·군의 컨설팅 지원 현황을 알기 쉽게 지도로 시각화하였으며, 주요 컨설팅 지원 사례와 센터 발간물을 노출시켜 방문자들의 접근을 편리하게 함

■ 공공디자인 컨설팅 페이지

: 공공디자인 컨설팅 시스템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컨설팅 진행단계별로 신청자, 자문위원, 관리자에게 자동(문자)으로 진행 상황이 전달되도록 함

: ‘컨설팅 신청서 작성’과 ‘컨설팅 의견서 작성’을 오른쪽 탭에 고정해 신청자와 자문위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컨설팅 지원사례는 도 및 시·군별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시·군에서 유사 사업 진행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함

■ 센터 발간물 및 디자인 정보 페이지

: ‘센터 발간물’은 연구보고서, 디자인 가이드라인, 디자인 충남, 컨설팅 지원자료집, 행사 자료집으로 구분하고, ‘디자인 정보’는 국내·외 선진사례, 충남 디자인 인증제, 충남 관련 디자인계획으로 구분하여 방문자가 쉽게 검색하고 찾아볼 수 있도록 함

※ 자세한 내용은 www.cpdc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정책동향

070 중앙부처
081 광역지방자치단체
108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

중앙부처

건축 및 도시

국토부, ‘충북 영동 레인보우 힐링타운’, ‘충남 홍성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 예정

2018. 06. 26. | 국토교통부 | 지역정책과

국토교통부는 ‘충북 영동 레인보우 힐링타운’과 ‘충남 홍성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①충북 영동 레인보우 힐링타운:가족형 휴양·체험 관광지 조성 사업으로 와인터널, 와인연구소, 힐링센터, 웰니스 단지 등을 조성하고, 지역자원을 단순 생산·가공하는 것에서 체험을 통한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함으로써 인구 감소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농촌 활성화 모형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②충남 홍성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부품, 태양광 등 지역 전략산업 중심의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이를 통해 충남도청 이전으로 조성된 내포 신도시를 지속가능한 자족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부품 등 새로운 전략산업과 철강 등 기존 주력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상승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며,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통한 규제특례와 홍보 효과 등을 통해 입주기업 유치도 한층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기반시설 체계 개편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 입법예고

2018. 06. 27. | 국토교통부 | 도시정책과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주요 내용은 ①기반시설 통합·신설 등 시설 체계 정비(현 52종→46종), ②기존 건축물 특례규정 연장 추진,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보전관리지역 명확화, ④ 기초조사정보체계 구축

·운영 필요사항 규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공장은 추가적인 부지 확보 없이도 설비 증설이 가능하게 되어 기업의 투자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운동장·체육시설 등 유사 기반시설 통합 관리한다

2018. 06. 27. | 국토교통부 | 도시정책과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기반시설 통합·신설 등 시설 체계 정비(현 52종→46종), ② 기존 건축물 특례규정 연장 추진,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보전관리지역 명확화, ④ 기초조사정보체계 구축·운영 필요사항 규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여건 변화를 반영한 시설 정비로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기존 공장은 추가적인 용지 확보 없이도 설비 증설이 가능하게 되어 기업의 투자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건축물 안전성 검토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규정

2018. 07. 01. | 국토교통부 | 건축정책과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설립할 수 있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①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②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 ③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공동 설치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별 지역건축안전센터가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되어 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연구개발 본격 착수

2018. 07. 10. | 국토교통부 | 도시경제과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연구개발 사업의 실증도시 2곳을 선정하고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실증도시는 연구목적에 따라 2개 유형(도시문제 해결형, 비즈니스 창출형)으로 구분되며, 국가전략프로젝트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구광역시와 경기도 시흥시가 최종 선정되었다. ‘도시문제 해결형’은 교통·안전·도시행정 등 도시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대규모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실증연구로, 대구광역시가 실증도시로 선정됐다. ‘비즈니스 창출형’은 에너지·환경·복지 등 새로운 산업을 스마트시티에 적용하기 위해 중소규모의 도시에서 리빙랩(LivingLab) 형태로 추진하는 연구로 경기도 시흥시가 실증도시로 선정됐다. ‘지속가능한 스마트 프로슈밍 시티’를 연구 목표로 제시한 시흥시는 지역산업의 쇠퇴, 고령인구 증가, 도시과밀 등 중소도시의 보편적 특성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어 실증연구의 적합성을 인정받았다. 국토교통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마트시티는 시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처리하고 연계하는 데이터 허브 기술이 핵심이며, 이러한 기술을 적용하는 실증도시들은 세계적인 지능형 도시 관리 선도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18년 대한민국 국토대전’ 대통령상에 한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서울한방진흥센터」

2018. 07. 17. | 국토교통부 | 건축문화경관과

‘서울약령시 서울한방진흥센터’가 ‘2018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서울한방진흥센터는 전통적인 한방의 이미지를 한옥형 외관으로 극대화하고 내부 조형

미를 잘 살렸으며, 특히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센터 운영에 고스란히 담아 지역상생 차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국토대전은 ‘품격 있는 국토, 아름다운 경관’을 주제로 국무총리상에는 수원시의 ‘파장초등학교 안전통학로 및 안전골목싹터 만들기’가 선정됐다. 또한, ‘영월 마차리 폐광촌 프로젝트’ 등 7개 사업이 국토교통부장관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특히, 특별 부문의 장관상 수상작인 ‘순천시 안력산 의료문화센터’는 전문가·주민·공무원 등이 협력하여 100년의 근대 의료 역사가 담긴 건축물을 세심하게 복원·활용함으로써, 도시재생의 철학이 잘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 ‘붉은벽돌 마을’ 사업 대상지



▼ 수원 파장초등학교



도시재생 소통·협력위한 ‘제1차 광역 협치포럼’ 개최

2018. 07. 18. | 국토교통부 | 도시재생역량과

‘제1차 도시재생 광역 협치포럼’을 개최했다. 지역 순회 포럼의 첫 단추인 이번 포럼에는 지난해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68곳 기초지자체장을 비롯하여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도시재생 지역 거버넌스’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전주시와 함께 ‘제2차 청년 도시재생 해커톤 행사’를 전주 전통문화전당에서 개최했다.

해커톤 행사는 도시재생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 창업가·활동가들과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청년·대학생들이 함께 지역을 탐방하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전략을 모색하는 단계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문화예술,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실현하여 해당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의 행정·금융기관·사회공헌기관·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지원조직들이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응원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지자체 핵심 전략사업에 금융·관광·디자인 등 종합
컨설팅 제공

2018. 07. 25. | 국토교통부 | 지역정책과

국토교통부는 '지역 주도형 발전 모델 구축을 위한 지역 혁신 컨설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① 토지주택연구원은 국토·도시 분야 전문 인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발사업 지원 등 풍부한 실무 경험을 토대로 사업 타당성 검토, 금융 구조화 등 투자 컨설팅 지원, ② 한국관광공사는 관광 분야 전문 인력 및 관광 사업 경험을 활용하여 지역개발사업의 관광 콘텐츠 개발, 지역 관광자원 연계 방안, 관광지 운영·홍보 전략 등 관광전략 컨설팅을 집중 지원, ③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도시·건축·조경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 지역개발사업의 공간·시설 배치, 주민 친화형 공간설계, 디자인 콘셉트 및 콘텐츠 개발 등 디자인 컨설팅을 중점 지원, ④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대학·연구원·은퇴자 등 다양한 국토·도시 분야 전문가를 활용, 지역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기여방안, 지역 전략사업 연계 방안 등 정책 컨설팅을 수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과 다양한 전문가가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지역 역량 강화뿐 아니라 고품질의 지역개발사업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을관리 협동조합」,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초석을 다진다

2018. 07. 26. | 국토교통부 | 주거재생과

국토교통부는 「마을관리 협동조합」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서비스는 주택 잔손보기와 같이 가입 즉시 제공되는 기본서비스와 경비, 청소, 태양광 설치 등 가입을 통해 자부담을 낮추는 비용 절감형 서비스로 구성된다.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협동조합 출자금, 연회비 등은 모두 협동조합 총회에서 주민들이 결정하며, 주민이 결정한 부담 수준, 희망하는 서비스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된다. 주요 내용으로 ① 저층 주거지에 필요한 5대 서비스 사업화 지원, ② 초기 사업비 지원 및 기초생활인프라 관리·운영 위탁, ③ 신협 및 새마을금고 시범사업 참여이다. 한편,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지역 사회적 경제와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도 추진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외에서 활동하는 기존 사회적 경제들은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법인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조합원들에게 자신들이 생산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별도의 도시재생지원기구 지정, 신협 및 새마을금고와의 협업체계 구축, 표준정관 등 공공지원 시스템도 신속히 구축할 예정이다.

경남 고성·충남 보령·전남 나주 3개 사업 투자선도
지구 선정

2018.08.01. | 국토교통부 | 지역정책과

국도교통부는 3개 사업을 최종 투자선도지구로 선정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① 경남 고성 무인기 종합타운(성장축지 지역): 드론 연구·개발, 제작, 시험 비행 등 전 단계가 집적된 무인기 종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향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주요 신산업 중 하나인 무인기 산업의 생태계 기반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② 충남 보령 원산도 해양관광 웰니스(특수상항지역·도서지역): 휴양콘도미니엄, 물놀이 공원, 해안유원지, 자동차 야영장 등을 포함한 복합해양관광리조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원산도의 우수한 해양경관자원과 국도 77호선 연결에 따른 획기적인 접근성 향상 등 지역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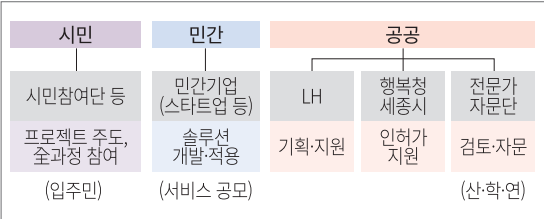
강점을 활용하여 충남 서해안 관광벨트(태안·보령·서천)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③ 전남 나주 빛가람 에너지클러스터(성장촉진지역) : 올해 신설된 ‘혁신도시 연계형’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나주 KTX역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에 에너지 혁신 창업타운, 에너지 체험·체육공원, 에너지 자립 도시 등 에너지를 주제로 한 다양한 기능의 협력 지구(클러스터)가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투자선도지구 선정을 통해 약 8천억 원 이상의 민간투자 유치와 지역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하였다.

행복청, 시민참여형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업 추진

2018.08.06.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도시공간정보팀

행정중심복합건설텔은 행복도시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초로 시도되는 이번 사업은 주민입주가 완료되어 성숙단계에 접어든 도담동에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공공-민간-시민의 협력을 통해 추진될 이번 사업은 온·오프라인 모집 등을 통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도시문제의 발굴에서 해결 과정 및 사업평가까지 모든 과정에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복청과 세종특별자치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3개 기관은 상호 협력하여 모든 행정사항을 지원하고,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시민과 소통·조정하는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담당하며, 공모를 통해 스타트업 등 민간기업을 참여시키는 등 시민참여 기반의 개방형 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번 사업에서 실증된 서비스는 앞으로 조성될 국가시범지구인 행복도시 합강리(5·1생활권)에 우선 적용하고 타 도시 및 사업지구에도 확산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 행복도시 스마트시티 리빙랩 협력체계 구성(안)



문화적 도시재생을 위해 국토부와 문체부 손잡다

2018.08.13. | 국토교통부 | 도심재생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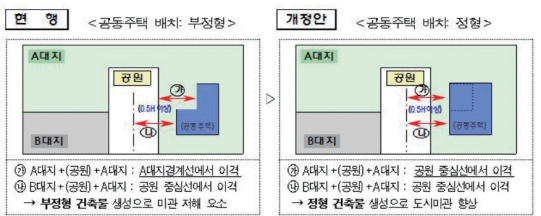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문화도시 조성 등 문화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상호협력 기반을 다지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부처는 문화적 관점에서 도시재생을 추진할 경우 사업성과를 높이고 지역문화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데에 공감하고 그동안 문화적 도시재생 촉진 방안을 모색해 왔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①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각종 문화사업 간 연계 강화, ② 공동 연구·홍보 및 교류 활동 확대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문화적 재생이 이루어져 쇠퇴한 구도심이 역사와 문화가 살아나는 혁신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각 지역이 간직한 역사와 문화를 토대로 쇠퇴지역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을 향상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겠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문화적 도시재생이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국토부, 건축물 건축 신고 및 후속 행정 일괄 위임 관련

2018.08.28. | 국토교통부 | 건축정책과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① 건축물의 대수선 허가 절차 구체화, ② 가설건축물의 허가 및 존치기간 연장 절차 구체화, ④ 공동주택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개선, ⑤ 건축행위별로 행정권한의 위임사무 일원화, ⑥ 건축물의 세부용도 신설 및 구체화, ⑦ 심의 대상 정비, 변경 절차 정비, 방화구획 정비, 고시 근거 마련, 이행 강제금 감경기간 연장, 법령용어 정비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개정 내용에 따라 즉시 또는 6개월 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 「건축법 시행령(공동주택 배치)」 개정 전/후



지역사회 활력 회복을 위해 행안부·복지부·국토부 손을 맞잡다

2018. 09. 11. | 국토교통부 | 도시재생역량과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는 “공유공간 나눔”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① 3개 부처 협력 시범 사업 추진, ② 공모사업 간 연계, ③ 관련 지원 기관 간 연계·협력 및 주민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④ 보건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이다. 행정안전부는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하였으며,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와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중심의 케어가 정착되도록 힘쓰겠다고 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부처의 사업을 도시재생 공간에 담아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쇠퇴하고 있는 도심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남해안 경관 명소 인근 국공유지 11곳 투자유치 추진

2018. 09. 16. | 국토교통부 | 해안권발전지원과

국토교통부는 남해안 해안도로를 따라 해안 경관이 우수한 경관 명소 인근의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남해안 오션뷰(Ocean View) 명소’ 인근의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개발 가능성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투자유치 대상 부지 11개소를 발굴했다. 투자유치 유형은 문화예술시설(미술관, 전시관, 공방, 체험시설 등)과 전망카페, 소규모 상업·숙박·테마시설 등 다양하다. 이번 투자유치는 국토교통부가 남해안을 국제적 해안 경관 명소로 육성한다는 ‘남해안 오션뷰 명소화 사업’의 일환이다. 지난 7월에 ‘남해안 오션뷰 명소 20선’을 선정·발표한 바 있으며, 2019년부터 해안 경관 명소에 전망 공간(건축가, 설치미술가 등 참여)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투자유치를 통해 경관 감상형 관광휴양·체험시설이 조성될 경우, 예술적 전망공간과 결합되어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2018년 한옥대상에 ‘장안사랑채’...한옥의 현대적 해석 돋보여

2018. 09. 30. | 국토교통부 | 건축문화경관과

국토교통부는 ‘2018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수상작으로 경기도 수원시의 ‘장안사랑채’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장안사랑채’는 수원 화성의 한옥 집단 조성지역 내 기존 한옥과 번잡한 중심가로라는 상반된 분위기를 부드럽게 순화하는 디자인을 통해 도시건축으로서 한옥이 나아가야 할 덕목을 충분히 살렸다는 점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계획부문에서는 ‘적층한옥’이 영예의 대상을 받았으며, 한옥구조와 재료, 형태에 대한 이해도와 완성도가 높았고, 한옥을 현실적인 상업공간으로 제안하여 한옥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토교통부는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이 한옥과 관련한 국내 최고의 공모전으로서 앞으로도 이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우리 한옥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하고 확산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하였다.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SOC, 동네건축부터 확 바꾼다

2018. 10. 04. | 국토교통부 | 건축정책과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공공건축 혁신을 위한 9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① 공공건축의 사업 초기 기획을 강화하고 발주기관의 전문성 보완, ② 제대로 된 건축 설계시장의 조성, ③ 공공건축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관련 사업절차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앞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양질의 공공건축물을 조성하는데 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계획이다.

제2의 제천·밀양 참사 막자...건축물 화재안전기준 대폭 강화

2018. 10. 09. | 국토교통부 | 건축정책과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주요 내용은 ① 건축물 마감재료 기준 : 현재 6층 이상 건축물인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금지 대상 확대와 필로티 주차장 외벽과 상부 1개 층을 화재안전성이 강한 마감재료 사용, ② 건축물 방화구획 기준 : 건축물의 모든 층을 층간 방화 구획하도록 강화, 필로티 주차장은 건축물 내부와 방화구획을 하도록 개선, ③ 소방관들이 재실자를 쉽게 구조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개선, 화재 시 소방관 진입 창의 크기 및 설치 위치 등 구체적인 기준 도입, ④ 주요 건축자재인 방화문은 제조공장 및 시공 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제조업체 스스로 품질관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행 성능시험제도를 인정제도로 전환, 건축물 안전 관련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수준을 높인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고도화함으로써 이번 「건축법」 하위규정 개정과는 별도로 건축안전모니터링 대폭 확대 등 위법 시정을 위한 다양한 조치도 추진 중이라고 하였다.

건설기술, 디지털화·자동화 날개 달고 비상한다

2018. 10. 31. | 국토교통부 | 기술정책과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 상정했다. 건설기술의 발전 방향은 ① 데이터 중심 : 건설 과정에서 생성되는 각종 정보를 공유·유통하고, 빅데이터 및 시뮬레이션을 적극 활용해 건설을 경험 의존 산업에서 정보 기반 산업으로 전환, ② 기술의 융·복합 : 건설 분야에 정보통신기술(ICT), 드론·로봇 등 다른 분야 기술 적극 도입 및 융합, ③ 고객 지향 : 알기 쉬운 3D 시각 정보를 제공하고, 설계·계획단계부터 시공사·운영자 및 이용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발전 목표는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① 설계 단계 : 측량과 건설정보모델링(BIM)을 활용한 디지털정보모델을 정착시킨 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설계 자동화를 추진, ② 시공 단계 : 건설장비 자동화, 조립시공 제어 등 기술 개발 후 시공 전반을 자동화, ③ 유지관리 단계 : 로봇과 드론이 더욱 신속 정확하게 시설물을 점검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디지털트윈을 통한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필요한 법령 등 규정개정, 연구개발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관계부처, 민간기업, 학교 및 연구기관 등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문체부, 문화적 도시재생 뉴딜사업 위해 ‘문화영향평가’ 추진

2018. 11. 19. | 국토교통부 | 도심재생과

국토교통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2018년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를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평가의 대상지는 주변 지역의 파급효과와 도시경쟁력 제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중심시가지형’ 사업지 3곳과 ‘주거지지원형’ 사업지 10곳 등, 총 13곳을 선정했다. 평가에는 광역지자체 소속 지방연구원 일부도 참여하며, 이와 함께 문화관광 및 도시재생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문화영향평가·컨설팅단’도 구성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평가·컨설팅 결과가 이번 평가대상지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서면평가를 거쳐 컨설팅 내용을 확정하고, 늦어도 2019년 초까지는 평가대상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할 계획이다.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 안전관리 대폭 강화

2018. 11. 27. | 국토교통부 | 건축정책과

국토교통부는 필로티형식 건축물 등이 지진에 더욱 안전한 건축물로 건축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 협력 및 시공과정 촬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①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이 설계 및 감리 과정에서 관계 전문가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 포함, ②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은 기초, 필로티 층 기둥, 보 또는 슬래브의 철근 배치를 완료한 때, 특수구조 건축물은 층마다 시공 현황을 촬영, ③ 구조안전이 확인된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면,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 전반에 대한 안전 확인 절차가 강화되었으며,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이 안전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12월부터 시행

2018. 11. 27. | 국토교통부 | 녹색도시과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① 수소차 충전시설 복합 및 노인요양병원 증축 형질변경 허용, ② 야영장·실외체육시설 설치자격 완화 및 장사시설의 수목장림을 자연장지로 전환·허용, ③ 온실, 육묘 및 종묘배양장 설치면적 규정 및 자연휴양림·수목원의 일반음식점 건축면적 규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소차 충전시설의 설치가 쉬워 수소차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고, 또한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경관 및 공공공간

“벽화마을,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건가요?”

‘관광지가 되어버린 삶의 공간, 상생의 길을 찾자’로 제6차 열린소통포럼’ 개최

2018. 07. 08. | 행정안전부 | 국민참여정책과

행정안전부는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결과 상생방안 마련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상호공존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자 ‘관광지가 되어버린 삶의 공간, 상생의 길을 찾자’를 주제로 제6차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다섯 차례 포럼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누리집에서 생중계되었으며, 토론내용은 누리집 ‘아카이브’ 메뉴를 통해 일반 국민과 정부 각 부처에 공유되었다. 또한 ‘열린소통포럼’이 상향식으로 정책을 공문화하여 국민의 뜻을 반영한 정책을 실현해 나가자는 취지인 만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성과로 연결되도록 포럼 결과보고서를 해당 부처에 공문으로 보내 정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하천으로 전남 영광군 앵곡천 선정, 행정안전부 2018년 소하천 가꾸기 우수 14개 시·군 표창

2018. 07. 31. | 행정안전부 | 재난경감과

행정안전부는 2018년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을 실시하고,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14개 시·군에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전남 영광군 앵곡천이 최우수(1개), 경북 예천군 백전천/전북 완주군 기당천/충남 서산시 구진천이 우수(3개), 이 밖에도 장려(4개), 입선(6개) 등 총 14개 시·군이 선정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우수사례를 소하천 정비사업 정책에 반영하고 관계기관의 교육 자료로 활용하여 우수사례의 확산 및 정착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낙산과 동망봉을 품고 흐르는 행복마을 창신송인, ‘2018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수상

2018. 09. 11. | 문화체육관광부 | 시각예술디자인과



▲ 낙산과 동망봉을 품고 흐르는 행복마을 창신 송인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의 서울특별시 ‘낙산과 동망봉을 품고 흐르는 행복마을 창신송인’을 선정하였다. 이곳은 주민 스스로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역 전문가가 지속해서 관리하고 있다. 또한, 봉제 산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이해를 확산하는 등, 도시재생을 위한 인적협업 체계와 콘텐츠 구성, 물리적 구축 사업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그 외 수상작으로는 최우수상(국무총

리상) - 부산광역시 ‘에프(F)1963 복합문화공간’과 좋은 거리·광장에 수여되는 거리마당상(장관상) - 케이비(KB)국민은행 ‘케이비(KB)락스타 청춘마루’, 자연친화적 심터에 수여되는 누리심터상(장관상) - 울산광역시 ‘태화강 지방정원’,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잘 활용한 장소에 수여되는 우리사랑상(장관상) -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통한옥 문화시설 ‘상촌재’가 선정되었다.

지역별 개성·고유 경관 살리는 최적의 디자인 관리방안 마련

2018. 10. 10. | 국토교통부 | 지역정책과

국토교통부는 「지역개발사업 디자인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선도 사례 발굴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추진 사업은 ① 전북 무주군 반디 행복누리 플랫폼 조성사업 : 무주를 대표하는 반딧불 시장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이 문화·생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주차장과 연계한 주민 커뮤니티 센터 건립, ② 경남 하동군 0380 민다리 문화공원 조성사업 : 진교면의 다양한 세대가 함께 모이고 이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야외공연장, 어린이생태학습장, 켄치마루 라이브리 등 조성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역개발사업 디자인 관리를 통해 지역성을 극대화하면서도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개발 효과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비무장지대, 문화예술과 평화의 공간으로 탈바꿈

2018. 10. 22. | 문화체육관광부 | 국내관광진흥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 경기도,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비무장지대(DMZ) 탈바꿈 평화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비무장지대 지역의 어두운 이미지를 걷어내고 그 자리에 문화예술과 평화의 이미지를 심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비무장지대 탈바꿈 콘서트’를 비롯해 중립감독위원회(NNSC)의 기획 사진전, 관람객 체험 프로그램, 공동예술창작활동(아티스트 워크숍), 거리예술공연 등이 동시에

펼쳤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비무장지대 접경 지역 지자체,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비무장지대 평화관광 추진협의회를 발족하는 등 비무장지대 지역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평화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랜 기간 동안 비무장지대가 남북을 갈라놓는 ‘이별과 단절’의 상징이었지만, 다가올 평화의 시대에는 이번 콘서트에서 주는 메시지와 같이 ‘만남과 연결’의 상징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비무장지대를 평화관광지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평화를 기원하는 나비와 리본을 다는 부대행사



행복청, 직접 어린이놀이터 설계하는 ‘어린이 디자이너 캠프’ 개최

2018. 11. 12.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도시특화경관팀



▲ 어린이 디자이너 캠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어린이 디자이너 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이들의 꿈과 상상력을 놀이터에 담아내기 위한 것으로, 시범사업지 내 30여 명의 초등학생이 어린이 디자이너로 참여하여 놀이터를 직접 디자인하고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어린이 디자이너들은 행복

도시 어린이놀이터 시범사업자인 3 생활권 수변공원을 방문 해 대상지를 둘러보고 어떤 놀이터로 만들어졌으면 좋을지 를 스케치하였으며, 놀이터를 디자인하기 전에 놀이터 관련 시청각 자료를 통해 놀이터에 대한 상상력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캠프를 통해 도출된 어린이들의 다양한 상상과 디자인한 놀이시설 등은 실제 놀이터에 설치될 수 있도록 기본설계에 담을 예정이다. ‘행복도시 어린이놀이터 시범사업’은 2018년 말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2019년 초에 실시 설계를 진행하여 2019년 상반기에 개장할 계획이다.

마을만들기

행안부, ‘괜찮아 마을’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휴식과 새 출발 기회 제공

2018. 07. 19. | 행정안전부 | 정책협업팀



▲ ‘괜찮아 마을’의 공간들(출처 : www.dontworryvillage.com)

행정안전부는 ‘괜찮아 마을’ 프로그램에 참여할 1기 청년들을 모집했다. 모집대상은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청년’, ‘더욱 도약하고 싶은 청년’, ‘새로운 기회를 원하는 청년’ 등 ‘괜찮아 마을’을 통해 지방에서 기회를 찾아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청년이다. 선발된 청년들은 6주 동안 함께 생활하며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괜찮아 마을’에는 같이 생활하며 치진 마음을 회복하는 ‘괜찮은 집’, 하고 싶은 일을 준비하며 지역살이를 배우는 ‘괜찮은 학교’, 무엇이든 해 볼 수 있는

‘괜찮은 공장’이 있다. 여행 및 상담 프로그램과 지정·자유주제의 문제해결을 통해 지역살이를 준비하고 발표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이 밖에도, 섬 전문 간행물 발간, 히치하이킹 페스티벌 개최, 지역 상품 재포장 판매 등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콘텐츠 사업이 추진되며, 목포시 등 지자체의 청년 취·창업 지원사업과 연계한 ‘일자리 찾기’가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괜찮아 마을’이 청년과 지역의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좋은 대안이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사업 18건 선정

2018. 08. 16. | 국토교통부 | 지역정책과

국토교통부는 2018년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18개 사업을 최종 선정하였다. 유형별 선정 사업은 ① 지역 거버넌스형 사업 : 강원도 양양군의 ‘서핑비치로드 조성’ 사업, 전라남도 구례군 ‘알콩달콩 장터 만들기’ 사업, ② 고령친화적 공간정비 사업 : 경상북도 의성군 ‘안전하고 정감 넘치는 시골마을 운람골’ 사업, ③ 복수 시·군 연계 사업 : 경상남도 산청군과 합천군은 ‘천상화원 황매산 감성여행’ 사업, ④ 단일 시·군 일반 사업 : 충청북도 괴산군의 ‘젊은이들이 꿈을 그리러 오는 언덕, 몽도래언덕 조성’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 고유자원을 토대로 지역 매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들이 다양하게 발굴·선정됨에 따라 사업을 통한 주민 생활여건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등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국토부, 도시재생 분야 활동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 기업 24곳 추가 지정

2018. 11. 09. | 국토교통부 | 도시재생영량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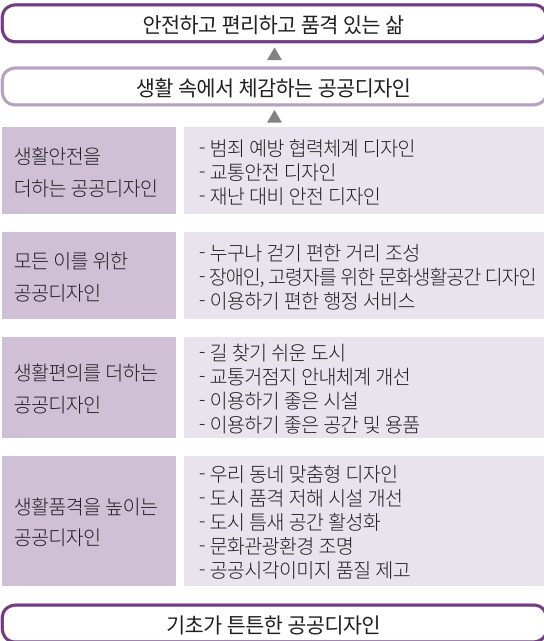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사회적기업)’을 꿈꾸는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기업 24곳이 추가로 지정됐다. 총 63개 신청 기업 중 예비 사회적기업의 공통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도시재생 뉴딜의 4대 목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업을 수반하는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최종 지정·공고했다.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는 고용부 및 지자체가 추진

하는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사업의 참여자격을 부여한다. 또한, ‘사업화 지원비 지원 대상 선정 및 주택도시기금 수요자 중심형 기금 융자상품 실행을 위한 보증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기업이 도시재생 경제주체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도시재생에 참여할 예비 사회적기업을 매년 50개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공시설물 및 매체

사람이 있는 문화, 공공디자인으로 ‘안전·편리·품격이 있는 삶’을 실현한다

2018. 05. 02.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예술정책실 시각예술디자인과



기초가 튼튼한 공공디자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국가 차원의 법정계획으로서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의 공공디자인 지역계획의

방향을 제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하고 품격 있는 삶’을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한 5대 추진전략으로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모든 이를 위한 디자인’, ‘생활편의를 더하는 공공디자인’, ‘생활품격을 높이는 공공디자인’, ‘기초가 튼튼한 공공디자인’을 정하고 19개의 핵심 과제 49개의 세부과제를 설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 이번 계획을 기반으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을 유도하고, 아울러 관련 부처, 기관과 함께 주요 사안별로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 및 예산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모두를 위한 행정을 디자인하다. - ‘유니버설디자인’ 주제로 제10차 열린소통포럼 개최 -

2018. 09. 10. | 행정안전부 | 국민참여정책과

행정안전부는 ‘사람중심, 사회적 가치를 담은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을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로 ‘제10차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했다. 발표주제는 ① 해외 도시에 적용된 유니버설디자인 사례 및 시사점, ② 공공청사 유니버설디자인 및 교통약자 지하철 환승 편의 제고를 위한 협업 등 정책 현황 소개, ③ ‘사회적 투자’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유니버설디자인 사회를 정착 시키는 방법(정부 인식 변화/민·관 협력 등), ④ 청각장애인의 지속가능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협동조합 활동 이야기, ⑤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고령자, 색각이상자 및 안전 취약층의 시각환경을 배려한 컬러유니버설 적용 사례이다. 이번 포럼은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디자인 혁신을 자유롭게 논의하는 공론의 장(場)으로서 2018년 한 해 동안 포럼에서 발굴된 국민참여 정책제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정책에 반영하여 그 결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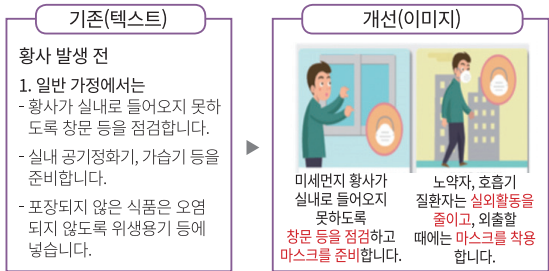
국민행동요령 누구나 알기 쉽게 바꾼다

2018. 09. 20. | 행정안전부 | 안전문화교육과

행정안전부는 기존 문자 위주의 재난안전유형별 국민행동요령을 요약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생활과 밀접한 어린이

안전, 승강기 사고 등 생활안전(8개), 호우와 폭염 등 자연재난(9개), 감염병과 선박사고 등 사회재난(6개), 기타 재난대비(2개) 등 25개 유형을 대상으로 제작하고, 기관별로 제작한 전기사고 등 6개 유형을 추가로 이미지화하여 꼭 알아야 하는 내용 위주로 총 31개 유형의 국민행동요령을 제작하였다. 이미지 중심 국민행동요령은 국민안전교육포털, 국민재난안전포털,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제공하며 안전교육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산사태, 건축물 붕괴 등 25개 유형의 행동요령을 이미지 형태로 추가로 제작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 ‘재난안전유형별 국민행동요령’ 변경 전/후



‘서리풀 원두막, 서리풀 이글루, 온돌 꽃자리 의자’, 2018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수상

2018. 10. 02. | 문화체육관광부 | 시각예술디자인과

‘2018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이 선정됐다. 국무총리상을 받은 서초구청의 ‘서리풀 원두막(트리), 서리풀 이글루, 온돌 꽃자리의자’는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도시 미관을 살리는 생활 밀착형 공공디자인이다. 이번 작품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 필요를 공공디자인 관점에서 적절히 해석하고 접근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프로젝트 부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은 ‘곡성 기차당 뚝방마켓 문화사업’이 받았다. 진흥원장상에는 ‘소통과 협업으로 완성한 친생활형-도심으로 돌아온 등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가고 싶은 학교, 소통하는 교육환경 조성 프로젝트’, ‘배봉산 정상 군부대 이적지 공원 및 둘레길 조성’, ‘신촌 박스퀘어’가 선정됐다. 「학술연구 부문」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진흥원장상, 2017년에 신설된 빅터마골린상을 선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는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의 교통안전 개선 방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과 교통안전 시설물의 접근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제시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았다. 진흥원장상은 ‘컬러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위한 안전색채의 제안’이 받았다. 빅터마골린상에는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활용한 이웃갈등 해소 리빙랩’이 선정됐다. 이 연구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훌륭한 이론적 접근 방법을 제공하였으며, 연구에 활용된 디자인 요소들이 참신하고 좋은 성공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체부, ‘길 찾기 쉬운 도시 만들기’ 주제로 ‘2018 공공디자인 2차 포럼’ 개최

2018. 11. 13. | 문화체육관광부 | 시각예술디자인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18 공공디자인 2차 포럼’이 열렸다. ‘길 찾기 쉬운 도시 만들기’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는 ‘통합적인 공공정보체계의 방향’에 대해 기초연설을 시작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버스터미널 안내체계 개선 사업’, 서울특별시의 ‘교통약자를 위한 서울지하철 환승지도 개발’,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표지 픽토그램 개선’, 어플라이드 웨이파인딩의 ‘도시 통합형 보행 안내체계 프로젝트 읽기 쉬운 런던(Legible London)’ 등 기관별 추진사례를 공유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누구나 불편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걸어서 원하는 목적지에 찾아갈 수 있도록 도시안내체계 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논의 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광역지방자치단체

건축 및 도시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2018. 06. 11. | 서울특별시 | 건축기획과

서울특별시는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무료로 시행한다. 신청 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된 노후 조적조로서 10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이며,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제외된다. 정밀 점검을 통해 판명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신청자에게 구조체 보수·보강, 유지관리방안 등을 안내하여 노후 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비구역 지정 10년 이상 된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시행한다. 50년 이상 벽돌조, 30년 이상 블록조를 우선 점검대상으로 자치구별 구청장 주관하에 조합과 전문가 참여로 단계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점검 후에는 점검결과 미흡, 불량인 경우 구청장이 소유자와 협의하여 시설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퇴거, 철거 조치한다. 점검 사항으로 주요 부재의 구조적 균열과 변형, 건축물의 부등침하, 건축물 축대, 옹벽의 안전상태 등이며 건축물과 관련된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점검을 실시 할 예정이다. 점검을 통해 소유자에게 조치방안을 상세히 안내하고, 위험도가 높을 경우 정밀안전진단 실시 요청 등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 노후 고시원 22곳, 화재 예방 위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2018. 07. 05. | 서울특별시 | 건축기획과

서울특별시가 노후 고시원 22곳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이번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으로 영세한 고시원 운영자는 비싼 공사비 부담을 덜게 되고 5년간의 임대료 동결로 고시원 거주자는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특별시는 22개 고시원 운영자들과 ‘소방안전시설 설치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앞으로도 취약한 고시원 환경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며 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서울특별시, 11개 한강안내센터 ‘고효율 에너지자립형 건축물’로 리모델링 추진

2018. 09. 03. | 서울특별시 | 녹색에너지과





서울특별시는 독성한강안내센터를 에너지자립형 건축물로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앞으로 남은 10개 한강안내센터에 대해서도 리모델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독성한강안내센터는 제로 에너지 리모델링을 통해 단열성능 보강 및 LED 조명 교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추가하여 건물 에너지 등급이 기존 3등급에서 제로 에너지건축물과 같은 등급인 1++등급으로 4단계 상향되었다. 또한, 에너지자립 리모델링과 함께 내진 성능 보강 작업을 병행하여 지진에도 안전하도록 조성하였다. 서울특별시는 2018년에 광나루한강안내센터와 2019년에는 잠실한강안내센터의 제로 에너지 및 내진보강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11개 모든 한강안내센터를 고효율 에너지 자립형 건물로 개선할 계획이다. 11개 한강안내센터가 제로 에너지 및 내진보강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건물 에너지 효율 및 내진 성능 향상에 따른 모범적인 건물 리모델링의 선도 모델로서 기능을 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특별시, 올해 건축상 대상 녹색건축물 _PLACE1_ 선정

2018. 09. 04. | 서울특별시 | 건축기획과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건축상 영예의 대상에 ‘PLACE1’ [설계: 김찬중, (주)더시스템랩건축사사무소]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 건물에 대상이 수여되는 것은 리모델링, 친환경성, 녹색 건축, 앞선 기술의 도입 등 이 시대가 건축에 요구하는 덕목을 두루 갖추었을 뿐 아니라 이를 뛰어난 조형과 공간으로 녹여낸 건축적 성취가 탁월해서이다. 특히 이중외피 시스템은 일조 환경 조절장치인 동시에 발코니를 매 층에 제공하기도 하면서 독특한 외관 또한 만들어내고 있다. 일조가 양호한 남측 벽면을 활용한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는 외피 디자인과 통합한 태양광발전시스템으로 공해 없는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게 된다. 또한, 선크를 통해 지하의 개방성을 극대화한 점, 전면의 공지와 공용부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전용공간을 상당 부분 할애한 점 등은 공공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증거이다. 오프라인 기능이 줄어든 은행을 지역 자산으로 활용하면서 야간 시간대까지 지역사회에 열어놓은 점도 높이 평가되었다.

▼ 건축상 영예의 대상 ‘PLACE 1’

부문	작품명	위치	건물현황			건축사 사무소	설계자	건축주
			층수	연면적(㎡)	용도			
녹색건축 리모델링	PLACE 1	강남구 영동대로 96길 26	10/4	16,295.82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주)더시스템랩 건축사사무소	김찬중	백병준
								

서울특별시, 신축 일반건축물 대상 ‘에어컨 실외기’ 외벽 설치 금지

2018. 10. 08. | 서울특별시 | 건축기획과

서울특별시는 「에어컨 실외기 설치방법 개선대책」을 마련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행 불편, 미관 저해, 화재 등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문제는 아파트처럼 ‘건물 안 설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공감대 아래, 2019년 1월부터 서울특별시에서 건축허가를 받는 모든 신축 건축

물에 에어컨 실외기 건물 내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구 건축 심의·인허가 시 실내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공간을 확보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또 건물 옥상이나 지붕 등에 설치하는 경우 건너편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공간을 마련하거나 차폐시설을 세우도록 한다. 서울특별시는 시 자체 규정 마련과 함께 일반건축물도 공동주택처럼 에어컨 실외기 건물 내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 2018년도 도시건축시민투어 8회 운영

2018. 06. 15. | 부산광역시 | 건축주택과

부산광역시와 사)부산건축제에서는 2006년부터 부산을 탐방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도시와 건축의 소통 관계를 건축전문가와 건축문화해설사의 해설로 들어보는 건축 투어를 운영하고 있다. 2018년도 건축 투어는 8가지 주제로 상·하반기 나뉘어 진행했다. 상반기에는 가덕도 근대건축 투어(가덕도동대~외양포마을), 해양 건축 투어(국립해양박물관~현여울마을), 하반기에는 시간이 멈춘 곳 매죽지(안용복기념관~매죽지마을), 건축제의 중심에서 I II III(부산건축주간 전시투어), 영화의 도시 부산(영화의 전당~부산영화체험박물관), 2018 부산다온건축상수상작이다. 가덕도 근대건축 투어와 영도 해양건축 투어 모집 기간은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참가 신청은 부산건축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부산은 일반지역도 자율주택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2018. 07. 11. | 부산광역시 | 도시정비과

부산광역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시행과 함께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된 단독·다세대 소규모주택 밀집 지역 주택에 신축 등 전면 개량하는 방식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토지 등 소유자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단독 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사업이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조경기준, 대지 안의 공지기준, 높이 제한 등 건축기준을 최대 50%까지 완화, 임대주택 20% 이상 건설 시 용적률

법적 상한까지 완화, 주차장 완화, 사업비의 50~70% 이주비 비용을 융자 지원, 일반분양분 매입 등 이다. 전문성이 부족한 시민들의 지원을 위하여 사업성 분석 및 사전검토도 가능하도록 자율주택 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초기 사업성 분석부터 이주까지 모든 과정을 한 번에 제공한다. 주민이 사업 신청만 하면 사업성 분석, 주민협의체구성, 건축사 및 시공사 선정지원, 이주비 융자까지 모든 절차를 안 내받을 수 있다.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업무편람 발간

2018. 08. 06. | 부산광역시 | 도시정비과

부산광역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누구나 알기 쉽고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2018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이해」를 발간·배부한다고 밝혔다. 2018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2018년 7월 11일자로 전부 개정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정비사업에 꼭 맞는 실무편람을 편찬하여 각 업무 관련 기관과 조합에 배부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간되는 업무편람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지역 내 109개 조합 및 추진위원회와 각 자치구, 업무 관련 기관에 배부할 계획이다.

아동, 청소년 자립을 돕는 HOPE 주택 건축 -HOPE with HUG프로젝트에서 영도공공임대주택 2세대 신축-

2018. 08. 20. | 부산광역시 | 건축정책과

부산광역시는 제30호 HOPE with HUG프로젝트의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30호 사업의 대상지는 영도구내 구유지에 신축되는 ‘(가칭)영도공공임대주택’으로 총 2세대로 구성되며, 건축 설계 재능 기부로 지어져 아동·청소년 시설 퇴소자 등과 같이 자립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계층을 위한 보금자리로서 사상구 저소득층 급식 지원시설을 비롯해 3개소의 공공시설 개보수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부산광역시는 2018년에는 개인 주거를 넘어 공공임대주택, 마을활동가 거점시설, 저소득층급식지원센터와 같이 다양한 목적

으로 활용되고 있는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의 일상에 행복과 희망을 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 ‘HOPE with HUG 프로젝트’ 제30호 조감도



부산광역시, 공공건축 혁신 추진 방향 모색

2018. 08. 23. | 부산광역시 | 건축정책과

부산광역시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승효상 위원장을 비롯한 분과위원장 등을 만나 공공건축 혁신 추진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면담은 공공건축 혁신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건축기본법」에 따른 공공건축에 건축사 등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를 위한 것이다. 이미, 서울특별시, 영주시 등 19개 지자체 공공기관의 경우 시의 공간정책 및 전략 수립에 대한 자문이나,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 조정하는 ‘총괄 건축가’를 운영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에서도 이미 공공사업 시행 시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유지 관리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총괄 조정 관리하는 전문가인 ‘공공건축가’를 위촉 운영하고 있다. 총괄 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제도가 확대될 경우 그간 공급자 위주의 행정 편의적이고 획일적이던 공공건축이 수요자 이용자 중심의 다양하고 창의적이며 시민이 주인이 되는 공공건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아울러, 시민 생활공간 질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HOPE with HUG 프로젝트, 공공시설물 리모델링 2개소 입주식 개최

2018. 08. 24. | 부산광역시 | 건축정책과

부산광역시는 ‘HOPE with HUG 프로젝트’ 26호 주택과 27호 사회복지시설 리모델링 사업을 준공했다. 제26호는 수영구 ‘희망보금자리임대주택’으로 입주식은 한 부모 가정세대와 아동시설퇴소자 등 총 4세대의 입주예정자와 후원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제27호 HOPE주택은 저소득층 아동들의 돌봄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가야지역아동센터로 공사는 주방과 내/외부 구조 개선에 주력하였으며, 센터를 둘러싸고 있던 담벼락을 없애 주민들도 쉬어갈 수 있는 열린 공간을 함께 조성했다. 이 사업은 공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을 품을 기회를 함께 주고자 기획되었고 이번에 완공된 두 시설 모두 아동과 청년층의 자립을 후원하는 시설이라 의미가 특별하다. 2013년 처음 실시된 HOPE 사업은 2018년 6개소 사업을 포함하여 노후주택과 사회복지시설 리모델링, 개보수사업 등 총 31개소 사업이 완료된다.

▼ ‘HOPE with HUG 프로젝트’ 시공 전/후



2018 「부산다운 건축상」 선정 - 금정구 청년창조발전소, 가장 부산다운 건축물로

2018. 08. 27. | 부산광역시 | 건축정책과

부산광역시는 2018년 「부산다운 건축상」 입상 작품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부산다운건축상의 영광스러운 대상은 지역의 낙후한 건물을 청년창업 지원시설로 훌륭하게 재생시킨

‘금정구 청년창조발전소’가 선정되었으며, 금상은 ‘민락동 근린생활시설’, ‘일광 근린생활시설’, ‘도시민박촌 이바구캠프’가 각각 선정되었다. 은상은 ‘고촌리 단독주택’, ‘해운대 인문학도서관’, ‘영도웰컴센터’, 동상은 ‘광안동 근린생활시설’, ‘화명동 근린생활시설’, ‘기장군 철마면 부산 치유의 숲 방문자센터’ 작품이 각각 선정되었다. 대상으로 선정된 ‘금정구 청년창조발전소’는 화려한 외관보다도 평범한 노후시설을 확장해 청년의 창조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담아낸 작품으로 주목을 받았다.

▼ 2018년 「부산다운 건축상」 입상 작품



부산광역시, 제3기 고령 친화 도시 노인 정책자문단 발대식 개최

2018. 09. 13. | 부산광역시 | 노인복지과

부산광역시는 ‘제3기 고령 친화 도시 노인 정책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한다. 노인 정책자문단은 부산광역시가 WHO 고령친화 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며 노인의 정책참여를 목적으로 2016년부터 시작하였으며, 3기를 맞이했다. 2기는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노인회 지회 등 단체 소속 어르신들이 참여했으며 1차 설문 조사 “노인복지서비스 인지도 및 개선방안”과 2차 설문 조사 “노인 교통안전 실태 및 개선방안”을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시와 노인복지 사업기관에 전달되고 사업추진에 반영되었다. 3기 자문단은 공개모집을 통해 관련 활동 경험, 적극성, 활동 이해도 등의 선정기준으로 50명이 선발되었다. 앞으로 1년 4개월간 부산광역시 노인복지

정책 실행현황 및 실태조사 연 2회와 모니터링 결과 집단토론을 통한 정책 제언, 고령 친화 사례 발굴 및 홍보 등 활동을 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 ‘북향통합개발과 연계한 원도심 재생 활성화 업무협력 협약’ 체결

2018. 11. 19. | 부산광역시 | 도시재생정책과

부산광역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북향통합개발과 연계한 원도심 재생 활성화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① 북향통합개발 연계 도심재창조 마스터플랜 수립 공동시행 및 북향통합개발 연계 도시재생사업 발굴, ② 빈집재생사업, 남항권 도시재생 뉴딜, 부산철도시설 재배치 관련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리츠 조성 등에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부산광역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12월 중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상호 협의하였고, 협의가 이뤄진 사항은 ‘2019년 북향통합개발 연계 도심재창조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광역시, 전문성 향상된 ‘도시재생 아카데미 심화과정’ 재생과정과 정비과정으로 운영

2018. 06. 07. | 대구광역시 | 도시재생과

대구광역시는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제3기 도시재생 아카데미’ 심화과정을 운영한다. 2017년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시민들의 관심 또한 폭발적으로 늘어, 기본과정 수강생들의 심층적이고 전문성 있는 강의 요청에 따라 도시재생 아카데미 심화과정을 운영하여 이번 제3기 수강생을 모집 중이다. 도시재생 아카데미 심화과정은 재생과정과 정비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재생과정은 지역공동체 육성과 지역 자산 활용, 주민참여의 의미와 사례 등의 강좌로, 정비과정은 관리처분 절차와 유의사항 및 감정평가, 「도시정비법」 해설 등의 강좌로 구성되어 있고, 공통과정으로 재생 및 정비사업지 내 발생할 수 있는 주민갈등 조정을 위한 갈등조정 전문가와 함께 하는 주민소통 및 갈등관리 과정도 편성되어 있다. 대구광역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은 지역주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전문성을

갖춘 코디네이터 및 현장 활동가의 인적자원 확보, 그리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만이 도시재생사업의 경쟁력과 성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상별 맞춤 교육을 지속해서 개발·추진할 것이라고 하였다.

대구광역시, 철도 상부 복개 구간, 보행로 조성 등 환경개선사업 추진

2018. 11. 21. | 대구광역시 | 도시기반총괄과

대구광역시는 경부고속철도 상부 복개 구간에 공원·조경시설, 보행로, 인조잔디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을 착공하여 2019년 3월에 준공한다. 대구광역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철도 유휴부지 활용 심의를 제안하였고, 2018년 10월 말 공단과 협약을 맺고 환경개선공사를 착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공사는 복개 구간의 안전을 위해 환경개선사업 설계 완료 후 구조검토를 받았으며 복개구조물 전체 L=507m 중 갱도 구간을 제외한 L=480m 구간에 주민들의 생활환경 친화적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원·조경 시설, 보행로, 인조잔디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을 착공하여 2019년 3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 환경개선사업 사업구간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 세대 내부부터 공용부분까지 점검

2018. 06. 08. | 인천광역시 | 건축계획과

인천광역시는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을 통해 입주자 안전 및 생활편의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서구 검단2차 우방아이유셀 공동주택 아파트 380세대에 대한 점검을 실시 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품질 검수는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아파트

입주민을 대신해 품질 검수단이 사용검사 전에 공동주택의 구조, 단지 내 조정, 안전, 방재 등의 시공 상태 및 주요 결함과 하자에 대하여 꼼꼼하게 정밀점검을 실시해 하자 부분에 대한 신속 조치로 입주 후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인천광역시는 공동주택 입주 후 입주민·시공사 및 해당 지자체 간에 하자 문제로 집단민원 등의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시공품질 관련 분쟁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지속 운영으로 하자 관련 분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아파트 품질향상을 도모하겠다고 하였다.

인천광역시, 국토부와 수도권 지자체 공동 ‘맞춤형 주거 복지, 광역 도시계획 체계 개편’ 등 국토교통 업무협약

2018. 07. 17. | 인천광역시 | 정책기획관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교통·주거·도시 등 수도권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속한 정책 이행에 합의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① 수도권 교통 체계 개선 :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여 지자체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견 조율과 예산 지원 등을 통해 광역교통 효율화 및 도심 혼잡 완화를 본격 추진, ② 맞춤형 주거복지 확산 : 신혼희망타운 10만 호를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도심 역세권, 유흥지 및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하여 수도권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확보, ③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체계 발전 방향 : 국토·도시 계획 재정비 시기를 맞이하여 광역 도시계획 체계 개편 방향을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하고 기존 광역도시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 체계를 저성장 시대에 맞는 도시권 발전 계획으로 개편, ④ 과제이행을 위한 지속적 협의 : 국토교통부와 수도권 광역지자체는 합의서 이행을 위한 실·국장급 협의체를 구성하여 성과 창출을 위해 수시로 논의하고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인천광역시, 접경 및 도서지역 ‘인천광역시 어린이 건축창의교실’ 개최

2018. 08. 29. | 인천광역시 | 건축계획과

인천광역시는 연평초등학교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인천광역시 어린이 건축창의교실”을 개최하였다. 2018 인천광역시

건축문화제 체험행사의 일환으로 인천광역시와 인천건축사협회, 청운대학교 연구진 등이 연평면을 찾아가 연평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건축 체험 교실을 운영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건축에 관한 이해 및 공감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연평도에 필요한 건축물을 기획하고 직접 모형을 만드는 체험행사로 구성하여 건축사와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하는 연구진이 어린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서로에게 좋은 추억을 제공하였다. 인천광역시는 건축은 도시발전의 마지막 결과물이고, 우리 곁에 있는 가장 중요한 생활양식으로 우리의 문화가 되어 가는 것이라며, 이러한 문화의 형성이 시민과 함께 발전하도록 계속해서 다양한 공감의 자리를 만들어 가겠다고 하였다.

인천광역시, 건축문화 이해도 향상 위해 ‘인천광역시 건축상’ 시민 관심투표 실시

2018. 09. 05. | 인천광역시 | 건축계획과



▲ 인천국제공항 제2청사 조감도

인천광역시는 2018 인천광역시 건축상 1차 심사에서 선정된 8개 작품을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설문 조사 게시판을 통해 시민 관심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축상 1심사에서 인터넷 시민 관심투표 대상으로 선정된 건축물은 인천국제공항 제2청사, 인천로봇랜드, 송도소방서와 근린생활시설 2개소, 주택 2개소, 판매시설 1개소이다. 시민이 직접 행사에 참여해 건축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각종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체험행사의 일환으로 건축상 심사도 전문가에게 일임하기보다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고자 인터넷으로 설문 조사를 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시민 체험행사를 알차게 준비해 시민이 건축문화에 관해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면 하나하나가 건축물에 투영될 것이고 이러한 시민들의 안목이 아름다운 도시 인천을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광주광역시, ‘건축자원 활용과 지역 활성화 - 공·폐가 활용과 동네 활성화’ 주제로 건축디자인 워크숍 개최

2018. 06. 08. | 광주광역시 | 건축주택과

광주광역시는 광주·전남지역의 쇠퇴하고 활성화가 필요한 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과 건축디자인 대안을 모색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2018 광주건축도시문화제’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워크숍은 ‘건축자원 활용과 지역 활성화 - 공·폐가 활용과 동네 활성화’를 주제로 진행했다. 워크숍의 5개 소주제를 보면, 소주제 1은 ‘송정1동 융복합공용주민센터’로 융복합공용주민센터 계획을 추진해 도심 공공시설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송정동 중심시가지 재생 프로젝트다. 소주제 2는 임동 야구 마을 공·폐가 활용을 통한 동네 활성화로 고령화된 주민과 협업할 수 있는 사업공간을 창출하는 프로젝트다. 소주제 3은 ‘대학캠퍼스를 활용한 도시 활성화’로 북구의 용봉동에 인접한 쇠퇴공간을 대상으로 대학의 강점을 활용해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주목한다. 소주제 4는 ‘충효동 근린형 재생과 동네 활성화’로, 원효사지구의 집단시설 이전지를 예측해 이주 단지형 근린재생을 시도하는 건축디자인 프로젝트다. 소주제 5는 ‘나주 역사문화 구도심 한옥 공·폐가 재생-동네 활성화’로 쇠퇴한 나주읍성 내 서성문을 중심으로 공·폐가를 활용한 동네 활성화 프로젝트다. 광주광역시는 이번 워크숍은 아파트 거주 가구 비율이 높은 광주에서 지역의 청년건축가, 교수, 학생들이 지자체와 협력해 쇠퇴한 단독주거동네를 정주형 동네로 만드는 시범사업으로, 살아있는 도시의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광주광역시, 근대건축물 기록보존사업으로 ‘근대건축물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추진

2018. 07. 03. | 광주광역시 | 건축주택과

광주광역시는 근대건축물에 대한 기록보존사업을 도면·보고서뿐만 아니라 3D 모델링, VR 영상, 3D 애니메이션 제작 등 디지털 아카이브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평면적인 기록보존 방식을 넘어 디지털 변환작업을 통해 근대건축물에 깃든 역사적 의미를 대중화하고, 도시재생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사업 결과물에 대한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광주광역시는 대상 건물의 실측도면 제작과 3D 영상을 만들어 도심 재생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올해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건축물은 일신방직 내 발전소, 보일러실 1·2, 고가수조이다.

▼ 근대건축물 디지털 아카이브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디자인 향상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광주다운 아파트 공급방안’ 추진

2018. 09. 10. | 광주광역시 | 건축주택과

광주광역시가 ‘광주다운 아파트 공급방안’을 마련한다. 먼저 건축,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 건축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공동주택 디자인·안전 향상 모델’을 개발한다. 자문위원회는 ‘디자인’과 ‘안전’을 접목한 개념의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향후 대규모 주택단지 등에 적용하기 위한 조례, 공동주택 심의규칙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신혼부부·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광주만의 차별화된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시행한다. 더불어 기존에 추진해온 창틀 교체, 외벽 도장공사, 담장 보수와 같은 노후 공공임대아파트의 시설개선사업 외에도 좁고 노후되어 공실이 발생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세대벽 철거 등을 검토해 전용 면적을 확대하는 내용의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광주광역시, 에너지, 도시숲, 기후변화 등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 2030’ 선포

2018. 10. 18. | 광주광역시 | 환경정책과

광주광역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광주 ‘SDGs 2030’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홍보 슬로건 제작과 ① 물순환, ② 에너지전환, ③ 녹색경제, ④ 자원순환, ⑤ 도시 숲, ⑥ 교통환경, ⑦ 복지, ⑧ 로컬푸드, ⑨ 녹색건강 등 주제별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SDGs 2030’은 2015년 9월 채택된 UN의 ‘SDGs 2030’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수립한 광주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기반으로 2018년 1월부터 시민사회, 기업, 행정 및 관계기관의 의견수렴과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됐다. 특히 광주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복지, 여성, 건강, 교육, 에너지, 일자리, 공동체, 환경,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인권, 거버넌스 등 다양한 요소를 담았다. 광주광역시는 지속가능한 광주발전속에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하였다.

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간직한 전일빌딩 ‘리모델링 사업’ 추진

2018. 10. 25. | 광주광역시 | 도시정책관실

광주광역시는 ‘전일빌딩 리모델링 사업’ 설계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세부계획 등을 제시했다. ‘전일빌딩 리모델링 사업’은 전일빌딩을 문화전당의 기능을 보완·지원하고 관광자원화해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용역 결과 전일빌딩 리모델링은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는 전자도서관, 남도관광마케팅센터, 시민생활문화센터, 오피라운지, 시민사랑방 등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꾸미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또 지상 5층부터 7층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관된 콘텐츠 창조기업을 집적화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를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원공간으로 활용한다. 지상 8층은 시민 다목적홀과 스카이라운지가, 지상 9~10층은 5·18 당시 헬기 총탄 흔적이 남아있는 현장이라는 역사성을 살려 총탄 흔적을 원형 보존하고 5·18 추념공간으로 조성한다. 옥상은 광주광역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공간 겸 휴게공간으로 마련한다. 광주광역시는 최종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고 반영 여부 등을 논의해

설계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전일빌딩 리모델링 사업’ 조감도



2018 국제도시디자인포럼 개최

2018. 11. 29. | 광주광역시 | 도시계획과

광주광역시는 ‘도시디자인, 광주다움을 찾다!’라는 주제로 도시디자인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2018 국제도시디자인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도시디자인포럼은 총 3회의 전체회의와 특별회의로 구성되었다. 전체회의 I에서는 미래의 가치를 함께 열어나가는 공공디자인, 전체회의 II에서는 미래도시의 모습을 그려가는 경관디자인, 전체회의 III에서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고 행복한 안전 도시디자인이란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마지막 날 특별회의에서는 ‘도시디자인, 광주다움을 찾다!’를 주제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난상토론장을 마련하여 누구나 참여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논의와 숙의 과정을 통해 광주도시디자인 미래비전을 담아 선언문도 발표하였다.

대전광역시, ‘대전 근대문화예술특구’ BI(Brand Identity) 확정

2018. 07. 18. | 대전광역시 | 도시재생과

대전광역시 도시재생본부는 ‘대전 근대문화예술특구’ BI 디자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BI 디자인은 특구 내 대표적인 근대건축물인 옛 충남도청을 간결하게 형상화했으며, 1932년 준공 시 원형 모습을 직관적으로 표현해 대전의 역사성과 대표성을 상징하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디자인이 모호하지 않고 명확하며, 대전 근대

문화예술에 대한 역사성과 대표성을 상징하고 시민들에게 가장 쉽게 홍보할 수 있는 디자인을 특구 BI로 확정했다. 확정된 BI를 특구 내 안내판 등 신설 교체 시 설치기준으로 적용하고 명함, 봉투, 인쇄물 제작 등에 다양하게 활용해 특구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원도심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대전 근대문화예술 특구 브랜드 아이덴티티(BI)



대전광역시, 자치구 담당자 업무역량 강화 위해 지구단위계획 실무 해설집 발간 및 교육 실시

2018. 07. 29. | 대전광역시 | 도시계획과

대전광역시는 지구단위계획 실무 해설집을 마련하고, 자치구 지구단위계획 업무 담당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교육자료 「지구단위계획 실무 해설집」에는 지구단위계획의 개념 및 이해, 수립 절차, 적용 및 운영 방법, 부문별 주요계획 등이 알기 쉽게 수록되어 있다. 지구단위계획 업무는 대전광역시와 함께 자치구에서도 위임된 사무를 관리 및 운영 중으로, 자치구 순회교육을 통하여 지구단위계획 담당자의 업무역량 강화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목적을 달성하고 시민들에게도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대전광역시, 근대건축물 활용하는 문화재 야행(夜行) ‘대전 블루스’ 개최

2018. 08. 15. | 대전광역시 | 문화재증무과

대전광역시가 2018 대전 문화재 야행(夜行), ‘대전 블루스’를 개최했다. 대전 원도심에 남겨져 있는 근대건축물을 배경으로 기획된 ‘대전 블루스’는 메인스트리트 프로그램인 ‘도떼기 시장’과 원도심 일원에서 펼쳐지는 ‘夜(야)심찬 거리’ 등

두 가지 테마로 진행된다. 종교로 일부 구간에서 차 없는 거리로 진행되는 ‘도떼기 시장’은 간단한 개막 퍼포먼스와 함께 다양한 공연·체험·전시 등의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 ‘夜(야)심찬 거리’는 순환하는 야행버스를 타고 달빛 아래의 근대유산을 관람하면서 먹거리와 볼거리 등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재 야행은 문화재청 문화재 활용 정책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야행(夜行)이라는 명칭처럼 밤 시간에 진행되며, 야경(夜景)·야로(夜路)·야사(夜史)·야설(夜設)·야식(夜食)·야시(夜市) 등 다양한 테마로 구성되어 있다.

대전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상세정보서비스’ 시스템 구축

2018. 09. 04. | 대전광역시 | 도시계획과

대전광역시는 시 홈페이지에 ‘지구단위계획 상세정보서비스’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다고 밝혔다. ‘2018년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서비스 개선은 별도의 외부 서버를 통해 제공되던 지구단위계획 관련 정보를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으로 시 메인 홈페이지 안에 두고 반응형 웹을 구축해 PC는 물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다양한 디스플레이 종류에 따라 화면이 최적화되도록 했다. 시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대전광역시 지구단위계획의 궁금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내용이 최대한 빠르게 최신자료로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자치구 및 시 관련 부서 간 협조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대전광역시는 앞으로도 질 높은 도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민들의 알 권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대전광역시, 주민공동체가 계획하는 도시재생 ‘사업화 지원비’ 사업 2개 선정

2018. 09. 25. | 대전광역시 | 도시정비과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화 지원비’ 공모사업에 중구 중촌동, 유성구 어은동 주민공동체와 함께 하는 2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어은동과 중촌동은 모두 지난해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지역으로, 어은동은 도시

재생 현장지원센터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도시재생 스타트업 원링’의 청년들이 중심이 돼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용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소통창구인 ‘양방향 디스플레이’ 아이디어를 신청해 9월 19일 4차 사업비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중촌동은 30년 전부터 조성돼 한때 호황을 누렸으나 지금은 쇠퇴 되어가고 있는 ‘맞춤 패션거리’를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특화거리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하고 패션쇼를 개최해 홍보하는 기획으로 8월 22일 3차 사업과 지원비 사업에 선정됐다.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앞으로도 작은 단위의 공동체들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사업들을 발굴해 지역을 활성화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발굴,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대전 최초 여성 전용 커뮤니티 공간 생긴다

2018. 10. 26. | 대전광역시 | 여성가족청소년과

대전광역시가 여성 친화 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여성 전용복합커뮤니티 공간을 설치·운영한다. 대전에서 처음으로 설치되는 여성 복합커뮤니티 센터에는 회의실과 토론장, 북카페, 품앗이 양육시설 등 여성 전용공간이 서구 복수동 주민센터 건물에 마련된다. 대전광역시는 여성단체의 관심을 반영해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2018년 여성 친화 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을 공모해 사업을 신청한 서구와 유성구를 대상으로 10월 18일 선정위원회를 열어 서구를 사업대상으로 확정했다. 여성 전용복합커뮤니티 설치추진기획단 운영을 시작으로 2019년 3월 현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할 예정이며, 2019년 4월 시설 운영 여성단체 공모를 거쳐 2019년 6월 개관할 계획이다.

대전광역시, 시민 주도 도시정비사업 아카데미 개최

2018. 11. 01. | 대전광역시 | 도시정비과

대전광역시는 ‘도시정비사업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도시정비사업 아카데미에서는 도시정비사업 추진 현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조례 전부개정 등 ‘우리시 도시정비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최근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비사업 관리

및 추정 분담금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시스템 소개와 사례발표 등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시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지난 2015년부터 실시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대전광역시의 추진방안을 설명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 공함으로 시민의 도시재생 역량 향상은 물론 침체한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및 시행

2018. 10. 18. | 울산광역시 | 건축주택과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규정이 국토교통부의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고시내용에 맞게 개정·시행된다. 울산광역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도시관리계획 등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 하고 대지 규모가 확정되면 교통영향평가 및 경관심의를 진행한 후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토록 심의 절차를 개선하는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시행키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 ① 우선 심의신청부터 심의안건 상정, 결과공개까지 건축위원회 업무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② 국토교통부 고시내용에 맞게 적용 범위 및 운영원칙, 위원회 심의대상을 신설하고, 심의의결 절차 및 방법 또한 국토교통부 고시내용에 맞게 정비, ③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인 경우 「울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준수해 계획하도록 명시했다. 이밖에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로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교통성 검토서 제출 참여자를 교통기술사에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도 가능하도록 했다.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문화투어·건축모형 만들기 등 ‘여름건축학교’ 운영 및 ‘서포터즈’ 발대

2018. 08. 07. | 세종특별자치시 | 건축과

세종특별자치시가 건축여름학교 및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고등학생 여름건축학교’는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한솔고, 성남고 등 7개 고등학생 20명이 참여해 건축문화투어, 건축사 특강, 팀별 건축모형 만들기 등 2일간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진행되었다. ‘대학생 서포터즈’는 홍익대, 고려대, 충북대, 충남대 등 9개 대학 19명이 위촉됐다. 세종건축문

화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8월부터 10월까지 SNS를 비롯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고등학생 여름건축학교 튜터로도 참여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건축문화제에 학생, 시민들이 많은 관심과 참여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시행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축사업 3건 설계 경제성(VE) 검토로 예산 절감

2018. 10. 01. | 세종특별자치시 | 공공건설사업소

세종특별자치시가 조치원을 제2복컴 건립사업을 비롯해 세종특별자치시립도서관 건립, 아름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등 3건의 공공건축사업에 대해 설계VE 검토를 실시하여, 264건의 창의적 아이디어 반영과 29억 원의 예산 절감을 통해 공공건축물의 가치를 향상하는 등 기능은 높이고 비용은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해에도 공공건축공사에 대해 설계VE 검토를 실시해 23억 원을 절감했으며, 창의적 아이디어 285건을 반영해 시설물의 가치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바 있다.

주거위기 일시 해소 ‘안심하우스’ 문 열었다

2018. 11. 08. | 세종특별자치시 | 금남면

세종특별자치시 ‘행복한 미래금남’은 안심하우스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개관한 안심하우스는 금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세종특별자치시공동모금회 후원매칭금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금으로 재원을 마련했다. 안심하우스는 방, 화장실, 부엌, 거실, 다용도실, 마당, 텃밭을 갖췄으며, 일시적 단기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1일부터 최장 2개월 까지 이용할 수 있다. 금남면은 이번 안심하우스 개관으로 재난·재해로 주거 관련 위기에 놓인 지역주민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개소

2018. 11. 19. | 세종특별자치시 | 도시재생과

세종특별자치시는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비 180억, 시비 180억 등 총 3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조치원역 주변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도시 중심성 기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이다. 이번에 문을 여는 현장지원센터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업대상지 내에 설치되는 조직으로, 행정과 주민 간 소통창구, 주민역량 강화, 사업 홍보·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경관 및 공공공간

미술·건축 전공 대학생, 서울 곳곳을 공공미술로 변화시킨다

2018. 10. 03. | 서울특별시 | 디자인정책과

‘2018년 「서울은 미술관」 대학협력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변화한 서울 곳곳의 활용되지 않던 고가도로 하부공간에 공공미술이 설치돼 주민들이 오가며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프로젝트는 서울특별시가 2016년부터 추진 중인 「서울은 미술관 프로젝트」의 하나로 각 팀별로 예산을 지원하고 공공미술 실무를 지원할 공공미술 전문가인 디렉터와 큐레이터 멘토를 배정하여 추진되고 있다. 2018년 6개 대학교, 8개 팀 참여한 가운데 성북구 정릉동 일대, 을지로 인쇄골목, 월곡동 일대, 홍익문화공원 일대 등 8곳에서 지도교수를 중심으로 최소 7명에서 최대 20명의 대학생으로 구성하여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서울특별시는 대학협력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이 정규 수업에서 경험할 수 없는 생생한 공공미술 사업의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갤러리가 아닌 도시 속 공공미술 영역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걸으면서 힐링해요~” 부산광역시, 명장공원 조성사업 시행

2018. 09. 04. | 부산광역시 | 공원운영과

부산광역시는 ‘명장공원’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대상지인 ‘명장공원’을 동래구, 금정구, 해운대구 3개구에 걸쳐 있는 도심지 내 근린공원으로 조성하여 장애인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비롯해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8~2019년까지 시비 20억 원을 들여 소나무 숲의 생태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숲과 연계한 생태프로그램, 자연 속에서의 휴식을 통해 심신을 치유하는 힐링 친환경 산책로(540m)를 조성할 계획이며, 산책로에는 유모차나 휠체어가 진입할 수 있는 목재데크가 설치된다. 또한, 산책로 주변에는 장애인주차장과 다목적운동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숲속 도서관 아로마원 숲속 놀이 공간을 조성해 자연 속에서의 휴식을 통해 심신을 치유하는 힐링 할 수 있는 공원으로 2019년 8월 준공 예정이다.

▼ ‘명장공원’ 조감도



아낌없이 주는 놀이터 송상현 광장에 ‘도시놀이터 프로젝트’ 추진

2018. 09. 14. | 부산광역시 | 공원운영과

부산광역시는 송상현 광장에서 ‘도시놀이터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 놀이터는 30여 개의 LED 풍선이 열매처럼 매달린 나무 형상의 구조물을 중심으로 다양한 즐길 거리가 탑재된 문화공간으로 4차원의 이용이 가능한 공감각적인 놀이 및 휴식공간으로 즐거운 놀이와 조망까지 연출되는 문화형 놀이터이다. 또한, 사방치기와 달팽이 놀이 공간도 마련되어 세대 간 벽을 허무는 소통의 공간도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작품은 재능기부로 기획·디자인되어 더욱더 큰 의미가 있으며, 2018년 12월 9일까지 운영되었다. 부산광역시는 이야기

놀이터가 시민들에게 소소한 즐거움과 휴식을 제공하는 문화시설로 역할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향후 도심 속 공원과 공공공간으로 사업을 점차 확대해 일상의 즐거움이 가득한 행복 도시 부산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 도시놀이터 프로젝트



4년간 1조6백억 투입, 공원일몰제 대상 지역 약 97% 지켜낼 것

2018. 10. 16. | 부산광역시 | 공원운영과

부산광역시는 공원일몰제 대상 공원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공원대책을 발표했다. 주요공원의 보전을 위해 이기대수변공원, 청사포수변공원, 에덴유원지에 대하여 보상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정적 투입만으로는 공원일몰제 해소가 어렵다는 정책적 판단하에 법령과 제도에 의한 규제, 국·공유지의 공원 재지정, 민간공원 조성사업, 토지은행 제도의 국가 예산 차입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며, 공법적, 행정적, 재정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제가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으로 보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등을 통하여 부족한 도시공원을 확충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도심 열섬화 방지를 위해서 강과 산을 잇는 green network 연계사업으로 지속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시민이 체감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확충에 시정의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광역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환경문화사업 4개소에 여가 녹지 조성사업 추진

2018. 06. 07. | 대구광역시 | 도시계획과

대구광역시는 2018년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 4개소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내 경관개선과 누리길 및 여가 녹지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주요 내용으로 ① 나불지 경관개선사업: 나불지 일원에 데크로드 및 수상 쉼터 조성, 다양한 수생식물 및 수목을 식재하여 생태기능 복원을 통해 녹색 경관을 제공, ② 진밭골 야영장 조성사업: 수성구 진밭골에 야영장을 조성하여 인근에 있는 청소년 수련원과 진밭골 산림욕장과 연계하여 시민들에게 자연 속의 휴식공간을 제공, ③ 삼필산 누리길 조성사업: 휴식공간 및 자연체험 공간이 부족하다는 주민여론을 반영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삼필산에 가벼운 산책길과 함께 여가활동 공간을 조성, ④ 감문지 여가 녹지 조성사업: 수변 산책로, 야외 운동 시설 등을 설치하여 특작 농업으로 운동 및 여가활동이 부족한 인근 주민들에게 산책과 함께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구광역시는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을 통해 결과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게 되고, 시민과 함께 지켜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 점새늪 연꽃 생태공원



대구광역시, 학교 주변 보행환경 및 노후 경관개선 위해 ‘디자인에 기초한 학교주변 환경개선사업’ 실시

2018. 07. 11. | 대구광역시 | 도시디자인과

대구광역시는 ‘디자인에 기초한 학교주변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였다. 이번 사업은 노후된 5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통학하면서 주변 경관도 함께 개선하기 위하여 셉테드(CPTED) 기법 등 다양한 디자인이 중점이 되었다. 보차도가 혼재되거나 보행공간이 부족한 곳에 인도신설과 담장 위치의 조정, 안전펜스 설치 등 시설개선을 통해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였고, 황색 신호등, 옐로우 카펫 등의 설치로 운전자들의 스쿨존 인지 강화는 물론 범죄예방을 위한 CCTV, 보안등, 비상벨 확충도 함께 하였다. 아울러, 즐거운 통학환경을 위해 학교 주변 노후 옹벽, 담장에 어린이들이 동심을 느낄 수 있도록 생동감 있는 벽화, 아트타일을 설치하였고, 진입로 경관개선, 조형물, 독특한 디자인 편의시설의 설치로 쾌적한 환경조성에도 노력하였다. 대구광역시는 학교 주변 환경개선사업 완료 후 학생 및 인근 주민들의 반응이 좋고 도시 경관개선 효과도 확인됨에 따라 2019년부터 사업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 인도신설 및 담장 위치 조정(동구 송정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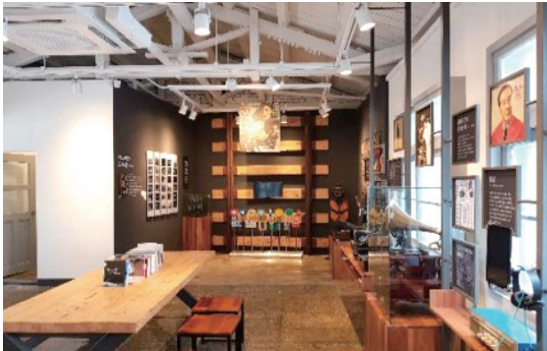
대구광역시, 운영 종료한 ‘역사’ 공공디자인 통해 전시관 및 휴식공간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생

2018. 07. 31. | 대구광역시 | 도시디자인과

대구광역시는 2006년 운영을 종료한 고모역을 공공디자인을 통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단장하고 개방했다. 이번 사업은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8년 7월 사업을 완료했다. 복합문화공간은 고모역의 역사 및 문화적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원형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도심 속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고, 고모역과 지역 철도역사와 관련된 자료와 함께 추억의 가요와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사진, 영상, 물품 등이 전시된 ‘전시관’, 예전 간이역의

추억을 떠올리며 가볍게 산책할 수 있도록 산책로, 파빌리온, 벤치가 설치된 ‘휴식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확충하였다.

▼ ‘고모역’ 복합문화공간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 주민역량 강화하는 ‘소규모 재생사업’ 4곳 착수

2018. 08. 24. | 대구광역시 | 도시재생과

대구광역시는 ‘18년도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본격 착수에 들어갔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① 청년과 장인의 꿈이 자라나는 수제화 골목 : 중구 성내동 수제화 골목을 중심으로 수제화 장인 간 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콘텐츠 발굴 및 창업 프로젝트 추진, ② 물길따라 꽃길따라 대봉2동 가로환경 개선 프로젝트 : 중구 대봉동 건물바위 일원에 강이 흘렀던 공간적 특징을 바탕으로 특화 공간 조성 및 가로환경 개선 사업, ③ 사람이 찾아오는, 상인이 즐거운 칠성시장 축제 : 북구 칠성시장 일원의 스토리 및 콘텐츠 발굴로 축제 기획, ④ 화원, 다시 꽃피시길 프로젝트 : 달성군 화원역 일원의 지역 자원을 활용한 골목 투어를 기획하는 것이다. 대구광역시는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도시재생 활성화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하여 구·군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동대구역 광장 경관개선 업무 협약 체결

2018. 11. 19. | 대구광역시 | 도로과

대구광역시는 동대구역 광장 경관개선을 위해 한국철도공사, (주)신세계 동대구복합환승센터, 대구광역시설공단과 함께

동대구역 광장 경관개선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주)신세계 동대구복합환승센터에서는 광장 내에 대형 크리스마스트리 설치 및 동대구역 광장 경관개선을 위해 백화점 건물 북쪽 면을 활용하여 경관조명을 추가 설치하고, 한국철도공사에서는 동대구역사 북측의 구관 리모델링 및 경관조명시설을 설치 후 신관 건물에 설치된 경관조명시설과 같이 운영함으로써 광장의 밝은 이미지를 강조하게 된다.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설공단은 동대구역 광장 경관개선을 위해 다양한 조명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포토존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즐길 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 사진으로 도시변화 담은 ‘도시경관 기록 아카이브 시스템’ 개발

2018. 06. 07. | 인천광역시 | 도시경관과

인천광역시는 ‘도시경관 기록 아카이브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 또 화보 제작으로 인천 경관을 홍보하고 경관기록DB도 계속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 시스템에는 신문기사, 블로그, 사진 관련 SNS 등을 빅데이터 분석해 시민의 관심이 높은 지역을 선정한 뒤 촬영한 7천 400여 장의 사진이 유형별로 담겨있다. 또 근대 개항도시의 역사가 담긴 1980년대 이전의 옛 사진 330여 장도 수집해 놓았다. 인천광역시는 ‘도시경관 변천 기록 및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시스템 자료와 운용에 관해 최종 점검한다.

인천광역시, 명상숲 및 옥상녹화 등 도시숲 조성사업 30개소 진행

2018. 07. 24. | 인천광역시 | 공원녹지과

인천광역시는 ‘2018년 인천광역시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명상숲, 나눔숲 및 나눔길, 옥상녹화, 백범도시숲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명상숲 조성사업은 학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학생들의 정서함양, 자연체험, 생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나눔숲·나눔길은 녹색 자금을 지원받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내 숲을 조성하여 거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교통 약자층(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목재데크 등 산림체험 활동시설을 설

치하는 사업이다. 백범 도시숲 조성사업은 고물상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부평구 십정녹지를 쾌적한 생활환경으로 조성하고자 한 사업이다.

▼ 명상숲 조성(계양구 계수중학교)



인천광역시, 야간경관 계획 수립 위해 친환경 조명 가이드라인 마련 및 야간경관 명소 발굴

2018. 08. 20. | 인천광역시 | 도시경관과



▲ 야간경관 시범사업(문화예술 회관 일원)

인천광역시는 「빛이 아름다운 국제도시 인천 만들기」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빛이 아름다운 국제도시 인천 만들기」는 국제도시에 어울리는 야간경관 형성계획을 수립을 통해 친환경 조명 가이드라인 마련, 10대 야간경관 명소를 발굴하는 용역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관내 모든 건축물과 조명시설에 적용되어 쾌적하고 안전한 조명을 설치하는 지침으로 활용될 것이다.

인천광역시, ‘인천색’ 발굴하여 원도심 색채 개선 시범사업 추진

2018. 08. 20. | 인천광역시 | 도시경관과

인천광역시는 인천만의 색(10종)을 발표하여 원도심 곳곳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인천 문화예술의 중심인 문화예술회관 광장에 인천색 홍보패널을 설치하고 벤치와 계단에 인천색을 입혀 시민들에게 포토존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동구 송월동 동화마을과 만석동 주꾸미 거리를 잇는 만석고가교에는 인천 바다색과 정서진 석양색을 입혀 방문객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있다. 부평구 동소정굴다리와 검단검암역 고가하부 색채디자인도 착공에 들어갔다. 인천광역시는 인천색을 시 전체로 확산시키기 위해 ‘색채디자인 및 컬러링 사업’ 관련 색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천색에 대한 활용법을 교육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모든 개발사업과 건축물, 공공시설물 등에 적용될 인천색의 활용법에 대한 전문 교육과정으로서 다양한 우수 사례 소개와 함께 색을 통해 도시 환경을 개선해가는 방법을 공유하였다.

▼ 인천 대표 환경 10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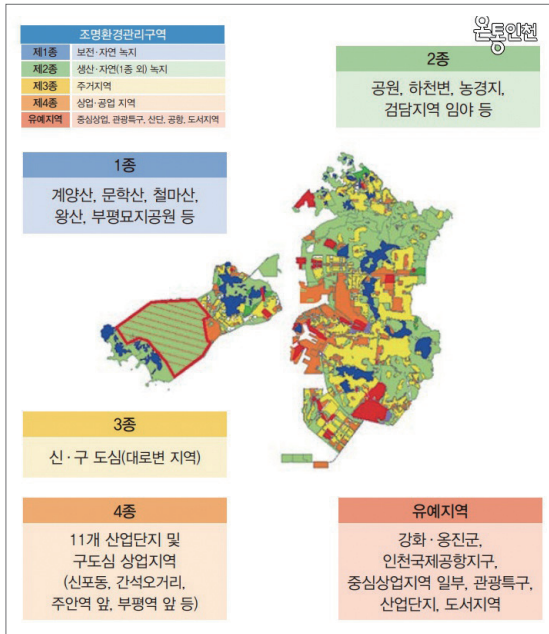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빛 공해 관리 위한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 위해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2018. 08. 24. | 인천광역시 | 환경정책과

인천광역시는 2019년 인천지역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과 빛방사허용기준 적용에 따라 관계기관들과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추진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경찰 생활 안전 관련 보안등 증설요구와 빛 공해 분야 규제에 대한 상호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좁은 골목길은 밝아지지만, 주거지로 침입하는 빛을 줄여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

이다. 인천광역시는 빛 공해 방지를 위해 강화·옹진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전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하였고, 2019년 1월 1일부터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시행된다. 빛 공해 관리의 핵심은 필요한 조명영역은 밝게 유지하되, 과도한 조명을 줄여 수면 방해 등의 피해를 줄이는 것으로 이번 인천광역시-경철간 간담회를 통해, 빛 공해 저감이 어두운 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범죄를 유발한다는 오해가 풀릴 것이며, 빛 공해를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 인천광역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 조명환경관리구역(출처 : 인천광역시 공식 블로그 온통인천)



인천광역시, 저층 주거지 정비 및 빈집조사 등 원도심 활성화 도시재생 추진

2018. 09. 10. | 인천광역시 | 도시재생과

인천광역시는 원도심의 저층 주거지를 정비해 되살리는 소규모 마을 재생사업인 ‘더불어 마을’을 매년 10곳 이상 조성할 계획이다.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닌 기존의 마을을 보전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해 마을을 다시 살리는 주민 주도의 소규모 마을재생 사업이다. 사업 전과정에 걸쳐 주민들의 역량 강화, 소통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괄계획가나 사회적

경제, 문화, 복지 등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원도심의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빈집 정보를 조회하고 활용도 할 수 있는 ‘빈집은행’을 2019년에 구축한다. 빈집이 밀집된 구역을 정비 활용하여 행복주택, 공공임대상가, 청년 주택, 원주민을 위한 주민공동시설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지역 수요자 맞춤형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한국감정원과 함께 9월부터 진행 중이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감정원과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들이 빈집 정보를 조회·활용할 수 있는 ‘빈집은행’을 구축해 운영 예정이다.

▼ 빈집을 활용해 조성한 송림동 마을공원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경관 가치 향상 주력

2018. 10. 18. | 인천광역시 | 도시경관과

인천광역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도서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특색 있는 경관 이미지를 확보하기 위해 경관자원을 조사·발굴하고, 경관 목표와 실행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도서지역 경관(관리)계획」(이하 도서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도서경관계획은 18개월간 진행하는 용역으로, 주민의식조사, 주민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 관계부서 협의,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등 시민, 전문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12월에 도서경관계획을 확정·공고하고 실행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 그늘목 식재로 보행 편의 및 도시숲 조성 계획

2018. 10. 22. | 인천광역시 | 공원녹지과

인천광역시는 자치구별 횡단보도 및 교통섬에 그늘막을 설치한 지역에 그늘막을 대신할 그늘목(木)을 식재하여 지속 가능한 푸른 도시숲을 조성키로 하였다. 가로변 녹색 그늘목(木) 식재 대상지에 대한 일제 조사를 완료하고, 연차별로 녹색 그늘목(木)을 식재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그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그늘목 식재는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독립수나 수림대 형태로 녹음수를 심을 계획이며, 그늘목을 심은 곳은 현장여건을 고려해 1~3그루씩 심어 울창한 녹음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며, 기존 가로수는 전지를 지양하여 가로변 녹음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그늘목은 비용도 적게 들고 미세먼지 흡수와 도시 열섬화 방지 효과가 있고 여름이면 넓은 그늘이 시민에게 청량감을 주는 그늘목(木)을 심어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녹색 그늘 제공과 함께 가로변 도로 경관을 향상하기로 했다.

▼ 가로변 녹색 그늘목(木) 조성(예시)



인천광역시, 도시 숲 조성 등으로 녹지공간 확충 및 무장애 나눔길 조성 추진

2018. 11. 05. | 인천광역시 | 공원녹지과

인천광역시는 ‘그린 에코 시티, 인천’ 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까지 공원·녹지 분야 3대 과제 12개 실현지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3대 과제인 친환경 생태 도시 숲 조성, 역사·문화 둘레길 조성, 실외놀이터 확충을 골자로 도심 곳곳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도시 숲·쉼터, 녹지공간을 확충

하고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인천형 둘레길을 조성한다. 또 IT 기술을 접목해 창의적인 놀이터로 꾸민 5G 놀이터를 10곳 꾸밀 계획이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① 도시 숲과 쉼터, 공원, 길가와 하천가의 녹지공간을 늘리고 인천 도심에 위치해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로 숲길 사업, ② 석남 녹지 잔여 구간과 부평구 십정동 일원 십정녹지의 잔여 구간에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던 고물상 등 건물을 철거하고, 공단이 즐비한 지역을 소음과 공해 차단 기능을 할 수 있는 전천후 도시 숲으로 새롭게 탄생시켜,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친환경 생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관내 공원과 산림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 목재 데크 공법으로 산책길을 만들어 휠체어나 유모차로도 산 정상까지 오를 수 있도록 한 무장애 나눔길을 2019년까지 남동구 장사산 근린공원, 미추홀구 수봉 근린공원 그곳에 조성할 계획이다.

▼ 도시 숲 조성 전경

▼ 인천대공원 무장애 나눔길



친환경생태도시로 거듭 산길~바닷길~따라 인천 역사·문화 둘레길 조성

2018. 11. 06. | 인천광역시 | 공원녹지과

인천광역시가 역사·문화 둘레길을 조성하고, 창의놀이터를 확충해 녹색도시를 구현한다. 오는 2022년까지 민·관 협치를 통한 시민 주도형 사업으로, 역사·문화·자연이 살아있는 인천형 테마길 ‘인천 역사·문화 둘레길’로 새롭게 꾸밀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2년까지 원도심 곳곳에 실외놀이터 10곳을 확충할 계획이며, 놀이터의 컨셉을 창의/반응 놀이시설, 모든 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공간, 자유 공공통신망, 무장애 통합 놀이터, 범죄예방 환경설계로 잡고, 전세대를 아우르는 문화거점·소통의 공간으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인천광역시는 또 장기적 과제로 인천대공원 등 실내 공간에도 공공놀이터를 마련해, 미세먼지 등 나쁜 대기 질로 인한 성장기 어린이 활동 위축의 대안을 마련하고 상업적 실내놀이터 이용 부담으로 생기는 놀이 기회 형평성 문제 해결을 꾀하는

등 다양한 사업과 아이디어 도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2G~5G(차세대) 놀이터 계획

2G	3G	4G	5G
			
콘크리트, 철강을 이용한 놀이시설	조합놀이대 (FRP) 고무칩 포장	물·나무·흙 자연요소를 이용한 창의놀이	창의놀이+인터랙션 기술·와이파이 = 차세대 놀이터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단방향 서비스(일방적 순활동)			양방향 서비스(교류)

광주광역시, 도시열섬 완화 및 녹지확대 등 위해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 추진

2018. 08. 27. | 광주광역시 | 공원녹지과

광주광역시가 ‘시원하고 푸른 광주 만들기’대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세부적으로 도심입체녹화 225만㎡ 조성사업은 도심지 내 부족한 녹지 확충을 위해 도로변 옹벽·건물 벽면 및 옥상에 담쟁이 등 벽면녹화와 함께 토양을 깔고 심는 기존 공법이 아닌 부직포와 화분을 이용해 투자비용이 적고 유지관리가 편리한 신개념 옥상녹화 등 입체녹화 활성화를 통해 도심지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사업은 도로 및 산업단지 등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에 녹지기능 강화용 도시숲을 조성하고 도시공원 등에 미세먼지 농도 저감용 수목을 복층으로 식재 할 계획이다. 녹지 한평 늘리기 사업은 도심 자투리 공간, 골목길 내대지 등에 수목을 식재하고 녹지공간을 확충한다. 아울러 거점 공간별 녹지확대는 도심 내 학교 등에 명상숲 조성, 아파트 등 바람길을 막고 있는 담장 허물어 나무 심기, 보행자 전용도로 및 가로경관에 초록이 넘치는 녹도 조성,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경기장 주변 녹화사업 등을 통해 쾌적한 녹색도시를 조성하는 계획이다. 광주광역시는 3,0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시원하고 푸른 도시 광주 만들기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광주광역시, 도시경관 자원 보존 등 위한 ‘2018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3곳 선정

2018. 10. 08. | 광주광역시 | 도시계획과

광주광역시는 ‘2018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은 아름답고 매력 있는 도시경관 자원을 보존하고 장려하기 위해 광주광역시가 2006년부터 해마다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으로, 공공·민간·주거부문으로 나눠 아름다운 도시문화 경관에 기여한 대지 내 조경, 벽면·옥상녹화, 공개공지 조성, 가로공원 쌈지공원 조성 등을 선정하고 있다. 공공건축물 부문에 선정된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는 시민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청사 전면의 조경공간이, 민간건축물 부문의 ‘백리향’은 주변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녹지공간 조성, 주거부문의 ‘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트’는 조형물, 다양한 나무를 심은 조경공간을 아파트 거주민뿐 아니라 외부 주민들도 즐길 수 있도록 개방한 점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대전광역시, 제24회 도시경관포럼 개최

2018. 06. 26. | 대전광역시 | 도시경관과

대전광역시는 ‘제24회 대전광역시 도시경관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도시 경관적 요소로서 색채를 재조명하고, 대전광역시가 추진 중인 ‘상징색 개발 용역’ 마무리에 앞서, 관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에서 색채적 특색으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국내·외 선진도시의 사례를 제시하고, 대전광역시의 인문 및 자연환경 분석을 통한 대표색 및 상징색의 정립

방향과 향후 상징색을 이용한 도시 마케팅 활용방안과 관리 방안을 제시하면서, 도시에서 색채가 갖는 경관적 요소로서의 의미를 청중들에게 환기시켰다. 대전광역시는 이번 포럼에서, 추진 중인 대전 상징색 정립에 관한 토론의 성과가 시민과 공유되기를 바라며, 수렴된 의견은 대전광역시 정책 방향에 참고해 앞으로도 포럼이 시정과 시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정책 공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대전광역시, 제24회 도시경관포럼 개최

2018. 06. 26. | 대전광역시 | 도시경관과

대전광역시는 ‘제24회 대전광역시 도시경관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도시 경관적 요소로서 색채를 재조명하고, 대전광역시가 추진 중인 ‘상징색 개발 용역’ 마무리에 앞서, 관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에서 색채적 특색으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국내·외 선진도시의 사례를 제시하고, 대전광역시의 인문 및 자연환경 분석을 통한 대표색 및 상징색의 정립 방향과 향후 상징색을 이용한 도시 마케팅 활용방안과 관리 방안을 제시하면서, 도시에서 색채가 갖는 경관적 요소로서의 의미를 청중들에게 환기시켰다. 대전광역시는 이번 포럼에서, 추진 중인 대전 상징색 정립에 관한 토론의 성과가 시민과 공유되기를 바라며, 수렴된 의견은 대전광역시 정책 방향에 참고해 앞으로도 포럼이 시정과 시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정책 공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대전광역시, 근대건축물을 테마로 한 ‘원도심 근대문화 탐방로 조성사업’ 추진

2018. 07. 05. | 대전광역시 | 도시경관과

대전광역시는 원도심 일원의 근대건축물을 테마로 보행 네트워크를 구성해 대전의 역사를 체험하고 즐기는 역사문화관광명소를 조성하는 ‘원도심 근대문화 탐방로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보행자 동선 안내는 보도면의 투수 블록을 교체해 유도라인을 형성하고 바닥 명판, 도색라인을 통해 보행자에게 이동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보행자 유도 동선에는 중앙로에 있는 한약거리, 중앙시장, 스카이 로드 등이

표시되어 대전을 처음 찾는 외부인도 동선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원도심의 명소를 거쳐 갈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밖에 원도심 인근의 야간 볼거리 제공을 위해 근대건축물에 야간 경관 조명과 빔프로젝터 등을 설치하고, 목적고 하부 수면에는 수중 프로젝션 맵핑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전광역시, 지역대학 협력하여 공공공간·가로경관 개선·범죄예방 사업 등 ‘공공서비스디자인 공모전’ 추진

2018. 09. 21. | 대전광역시 | 도시경관과

대전광역시는 품격 높은 공공디자인 정책과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공공서비스디자인 공모전’을 추진했다. 시·구 사업부서의 주요조사를 통해 아이디어와 디자인 개발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했고, 지역대학의 관련 학과를 대상으로 전공수업과 연계해 진행이 가능한 과제에 대한 공모전 참여 접수를 받았다. 선정과제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디자인, 갑천대교 하부 안심 산책로 조성, 굴다리 보행로 개선 및 안심길 조성사업, 관저중학교 삼거리 일대 담장 정비사업, 대전광역시 시 경계 안내표지 디자인 개발, 우암사적 역사문화탐방로 조성사업, 고속도로IC 관문 경관 조성사업, 공원, 산책로 등 공원, 나무 해설 안내표지 디자인 등 모두 8개 과제며 주로 공공공간, 가로경관 개선, 범죄예방 사업 등이다. 공모전에서 선정된 수상작품은 추진 예정인 사업에 직접 적용하거나 검토 중인 사업의 아이디어나 디자인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주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2018. 11. 14. | 대전광역시 | 공원녹지과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세먼지 공기 정화를 위해 대전광역시가 대규모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추진한다. 2019년도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사업의 일환으로 대규모 대덕산업단지 및 재생사업지의 유희토지와 시설녹지 생태축 등을 우선 사업지로 정해 미세먼지가 인근 주거지역으로 유입·확산되는 것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 저감 차단숲 조성은 산업단지 오염원 발생 저감을 위한 수목확충과 가로수 다열 복층

식재 등 다기능 숲 조성을 통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어 간다. 대전광역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차단숲 조성사업을 통해 산업단지 주변 오염물질 저감과 공기질 개선 등 쾌적한 도심 환경에 기여할 것이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전광역시민이 나무 심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대전 상징색은 첨단과학도시 지향 ‘미래은회색’

2018. 11. 27. | 대전광역시 | 도시경관과

대전광역시는 대전을 나타내는 미래색, 첨단색, 역동색, 품격색 등 10가지 대전 색(色)을 발굴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는 지역색을 바탕으로 대전 10색을 선정했으며, 대전 10색 중 대전 상징색으로 ‘미래은회색’을 선정했다. 그동안 일부에서 제기되었던 ‘대전은 질서 있고 정돈된 모습이지만, 특색 없는 도시’라는 인식을 대전 색을 통해 ‘대전이 개성과 매력 넘치는 도시’로 거듭나도록 풀어 갈 계획이다. 한편, 대전광역시는 이번에 선정한 대전 색을 시는 물론 자치구 및 관계기관과의 업무 공조를 통해 실행력을 확보하고, 조화로운 색채 계획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공공디자인과 도시마케팅 분야에 대전 색을 활용해 대전의 도시경쟁력과 브랜드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 대전광역시 상징색



울산광역시, 남산로 하부도로 경관조명 개선으로 야간통행 보행환경 개선

2018. 07. 31. | 울산광역시 | 환경정책과

울산광역시는 남산로 하부 아치 구조물 경관조명 개선공사를 완료했다. 동굴피아에서 태화강전망대로 이어지는 남산로 구간의 하부도로 아치 교각에 야간통행 편의성을 제공하고, 태화강 지방정원의 강변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야간에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아름답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남산로 하부도로의 아치 구조물 18경간 하부에 전기 인입 및 배관 케이블 설치를 하여 LED 조명등을 좌우로 총 36개의 경관조명을 설치하였다. 울산광역시는 어두웠던 산책로를 개선함으로써 야간 산책로를 이용하는 보행 약자의 안전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 남산로 하부도로에 경관조명 개선사업



울산광역시, 태화강 ‘2018 제13회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우수상 선정

2018. 09. 12. | 울산광역시 | 도시창조과

‘태화강 지방정원’이 ‘2018 제13회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우수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태화강 지방정원은 ‘울산광역시 태화강지방정원 운영 조례’ 제정과 함께 지방정원으로 정식 등록을 마쳤으며, 2018년 4월 2018태화강 정원박람회 개최를 통해 67개소의 정원을 조성했다. 심사위원들은 울산 시민정원사 네트워크, 십리대숲지킴이 자원봉사회 등 10개 단체와 울산광역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박람회가 끝난 지금에도 ‘태화강 한평가꾸기’, ‘훼손된 작품정원 재정비’ 등 시민들에 의해 지속적인 정원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 매년 3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 태화강봄꽃대향연, 가을국향 등의 울산만의 자연문화 축제와 여름이면 백로, 겨울이면 떼까마귀의 환상적인 군무를 볼 수 있는 세계적인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이들 세계적 생태자원들의 관광 자원화와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백로·철새 학교 등) 개발을 통해 새로운 문화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도 큰 호평을 받았다.

울산광역시,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2018. 10. 12. | 울산광역시 | 도시창조과

울산광역시는 사단법인 ‘맑은도시’가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양성과정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직원, 지역 내 활동 경험이 있는 마을활동가 및 지역주민, 도시재생 관련 분야 전공자 등 20명이 선발되어 실시된다. 교육은 수강생 간 팀을 구성하고 팀별 담당 전문가의 지도로 대상지 선정, 현장답사, 현황 분석, 사업화 방안 도출, 토론 및 발표순으로 진행된다. 울산광역시는 마을활동가·코디네이터 등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도시재생 역량 강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호수공원 ‘2018년 아시아 도시경관상’ 수상

2018. 08. 20. | 세종특별자치시 | 안전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의 랜드마크 ‘세종호수공원’이 UN 해비타트가 수여하는 ‘2018년 아시아 도시경관상’을 수상했다. 세종호수공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중심에 있는 호수를 중심으로 5개 주요 테마섬으로 이뤄져 있으며, 산책로 8.8km와 자전거도로 4.7km를 갖춰 인근 주민의 휴식 및 문화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세종호수공원 내 생태탐방과 계절별 체험 프로그램, 음악회, 전시회 등 각종 문화공연과 행사를 유치해 사계절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는 곳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2018년 아시아도시경관상’ 수상은 세종호수공원의 안전과 지속성, 지역 환경과의 공존, 지역의 문화·역사 존중,

예술성, 지역발전 공헌 등에서 가치와 아름다움을 인정받은 결과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수상 사실을 알리는 입간판을 공원 입구에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벌이고, 이번 수상을 계기로 세종호수공원이 세계적인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세종호수공원



세종특별자치시, 주민 요구 반영하여 보행거리 2곳 경관개선 추진

2018. 09. 19. | 세종특별자치시 | 아람동

세종특별자치시 아람동이 아람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옆 금연거리 350m와 도담동 싱싱장터 옆 보행자 거리 820m 구간에 대해 경관개선사업을 시행한다. 아람동 북컴 옆 보행자도로는 세종특별자치시 최초로 금연 거리로 지정된 곳이며, 도담동 싱싱장터 옆 보행자 거리는 BRT 도로와 인접해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1생활권의 대표적 거리다. 이에 아람동은 도담동과 함께 2018년 초 주민추진위원회를 구성, 경관개선사업의 세부내용을 가다듬었다. 특히 주민추진위원회는 회의와 벤치마킹 등을 거쳐 주민이 직접 경관개선사업의 세부내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아람동 금연 거리에는 보행에 지장을 주는 적치물을 철거, 장미식재 및 정자·조형 벤치 등 설치, 금연거리 입구에 야간 조명 등주 설치, 금연 홍보용 바닥조명 설치 등이 추진된다. 도담동 보행자 거리에는 청단풍·꽃잔디·산철쭉 식재를 통한 아름다운 터널 조성, 핀 조명등 설치로 야간 안전보행 확보 및 볼거리 제공, 그늘 의자 등 보행 편의시설 추가 확충 등을 추진한다.

마을만들기

서울특별시, 청년 아이디어 발굴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 수상작 선정

2018. 10. 01. | 서울특별시 | 주거환경개선과

서울특별시가 <제9회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을 개최한 결과, 수상작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마을만들기’ 부문의 우수상으로 선정된 작품은 자생 가능한 마을의 보유 자원과 도시재생사업을 결합하는 ‘생생개봉통’, 마을이 가진 자원을 연결하고, 공동체와 다양한 세대를 위한 공간 만들기 등에 중점을 둔 ‘마을품 희망을 품다’, 멈춰 있는 마을에 청년들이 유입되고 활력을 더하는 환경 조성 방안을 제시한 ‘동숨결(동선구역에 숨결을 연결하다)’, 공유경제를 마을 전체에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한 ‘빌리지’ 등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부문에서는 중랑구 면목동 배꽃마을의 지리적 특성과 가파른 지형을 활용해 주거 공간 사이사이에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고, 공공아트센터와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한편 청년과 노인을 위한 세어하우스를 제시한 ‘사.잇.길-사람을 잇는 길’이 최우수상에 선정되었다. 서울특별시는 우수작품 중 자치구 및 주민의 사업 의지, 실현 가능성 및 지역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사업으로 연계할 계획이며, 해당 작품을 공모한 학생 일부는 ‘마을만들기 예비전문가’로 선정하여 사업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 입주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주택 문제 해결하도록 돕는 ‘아파트관리 열린주민학교’ 운영

2018. 06. 18. | 대구광역시 | 건축주택과

대구광역시는 아파트관리 열린주민학교를 운영한다. 아파트 동대표 등 입주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공동주택 관리방법, 회계 처리 기준 등에 관해 사례 중심의 강의를 한다. 2018년에는 교수, 회계사,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권역별로 순회하면서 4회 실시한다. 교육 주제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공동주택 회계에 대한 이해로 구성되어 있다. 아파트관리 열린주민학교는 4년

동안 총 12기가 운영되어 1,715명의 수료자를 배출했으며 올해 참가 인원은 800명 정도로 예상된다. 대구광역시는 투명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 상호 간 교류 및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며, 열린주민학교를 통해 입주민의 역량이 강화되고 더불어 사는 아파트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대구광역시, 행안부 ‘2018 국민디자인단 특별교부세지원 과제’에 ‘마을계획단’ 선정

2018. 06. 27. | 대구광역시 | 정책기획관

대구광역시는 ‘2018 국민디자인단 특별교부세지원 과제 공모’에서 ‘마을계획단’이 최종 선정되어 도평동 마을계획단 국민디자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국민디자인단」은 서비스 디자이너, 마을코디, 마을주민, 사업 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며 우리의 생활 속에서 불편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을 찾아 정책을 창의적으로 디자인하는 활동을 말한다. 「마을계획단」은 주민이 직접 마을의 문제와 의제를 찾고 실행해가는 활동으로 주민의 자치 역량 향상과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향후 「국민디자인단」은 도평동과 검단동 마을계획단 회의 및 현장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마을계획단 정책을 재디자인하고 사업 확산을 위한 운영매뉴얼을 제작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 청소년 주도 우리마을 ‘소셜픽션’ 개최

2018. 07. 06. | 대구광역시 | 교육청소년정책관

대구광역시는 ‘온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라는 목적으로 우리 마을 교육 나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의 미래를 그려보는 소통 프로그램인 ‘소셜픽션’을 개최했다. 소셜픽션은 청소년들과 마을진행자가 참여하며, 마을에서 겪은 재미난 경험, 좋았던 기억과 우리마을의 행복한 모습 상상하기 등 긍정 탐구 기반의 청소년 참여 워크숍으로 진행되었다. 이 워크숍은 청소년 스스로 자신이 사는 동네의 문제에 대한 탐색과 해결의 주체가 되는 체험의 장, 실천학습의 장이었으며, 또한, 참여 청소년들이 마을에 대한 상상력과 스토리를 구성하고 이를 블록을 활용하여 구현하게 되며, 모둠 활

동을 통해 마을에 대한 스토리를 구성하여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우리마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동으로 실천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 형성하는 2018년 하반기 ‘담장허물기’ 사업 추진

2018. 08. 03. | 대구광역시 | 자치행정과

대구광역시는 2018년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공공부문 3개소 이상, 민간부문 34개소를 목표로 예산 6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였다. 1996년부터 시작한 담장허물기 사업은 관공서 126개소, 주택·아파트 518개소, 상업시설 77개소, 보육·복지·종교시설 124개소, 공공의료시설 24개소, 학교 50개소, 기업체 17개소, 기타 7개소 등 총 943개소, 32.1km의 담장을 허물고 가로공원을 조성했다. 이를 통해 이웃 간 소통은 물론 마을공동체 문화형성, 대도심의 녹지환경 조성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으며, 해마다 시민들의 참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 ‘담장허물기’ 사례



대구광역시, 시민 주도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창조도시 마법학교’ 운영

2018. 09. 20. | 대구광역시 | 청년정책과

「포럼창조도시를 만드는 사람들」은 ‘창조도시 마법학교’를 개강했다. 마법학교는 지난 2년간 100명이 넘는 수강생과 수료자를 배출하였고, 2018년도 시민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상상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회의 도시’, ‘즐거운 도시’, ‘참여의 도시’라는 큰 틀에서 7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와 토론의 장을 제공했다. 시민참여와

사회혁신, 영화제를 통한 도시 활성화, 문화예술이 살아있는 도시 대구, 50플러스가 만드는 모두를 위한 미래, 누구나 예술가가 되는 도시, 시민참여로 만들어 가는 초일류 대구, 우리 모두의 가능성을 높이는 점프 등 총 7회 강의를 진행되었다.

인천광역시, ‘원도심 하우징 닥터’ 주택점검 서비스 및 ‘마을주택 관리소’ 서비스 실시

2018. 07. 26. | 인천광역시 | 주거환경과

인천광역시는 저층 주거지의 노후 된 주택(1세대)에 대해 주택 무료 점검 서비스인 「원도심 하우징 닥터」의 종합 주택점검 활동을 했다. 하우징 대상 건축물은 준공 된 지 15년 이상 경과된 다세대, 연립, 단독 주택으로 주택의 관리 주체가 각 구청 건축과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전문가들은 이사 오기 전 안전점검과 관리 주체에게 향후 유지관리 방안을 설명하고, 동구 마을주택 관리소와 연계하여 도배, 장판, 전기 등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집수리 서비스도 제공하였다. 마을주택 관리소에서는 전기, 상·하수도, 목공, 도배 등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집수리 서비스 및 자력 보수를 위한 공구 지원, 쓰레기 집하시설 정비, 꽃길 조성, 담장 허물기 등 마을 주거환경 정비, 공동체 모임 구성 및 활성화 등 주민공동체 꾸리기, 직장인을 위한 택배 보관소 운영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2015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서비스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이며,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다.

광주광역시, 주민주도로 유희공간 리모델링하는 ‘마을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 8곳 추진

2018. 07. 19. | 광주광역시 | 지역공동체추진단

광주광역시는 ‘마을 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을 내에 주민 중심의 공동체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하며, 주민센터 창고나 학교 빈 교실, 마을회관, 아파트단지 빈 공간 등 유희공간을 주민교육장, 주민 쉼터, 마을 카페 등으로 조성한다. 사업은 먼저 다양한 공동체 활동으로 공간이 필요한 마을공동체가 주민 회의를 거쳐 장소, 공간 활용방안 등을 결정해 공모에 참여하면 심사를 통해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으로 선정

되면 전문건축사가 사업공간을 방문해 공간조성 방향, 추진 방법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디자인 스쿨’을 3~4회 진행한다. 여기서 나온 의견은 공간설계도에 반영되며, 주민 간 이견을 조율한 후 최종 확정된다. 또한, 실제 공간을 사용할 주민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간 운영방안 및 사용규정 등을 정해 직접 운영하게 된다.

대전역 옆길 어두운 골목은 잊어주세요

2018. 06. 22. | 대전광역시 | 균형발전과

대전광역시는 마을미술프로젝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커뮤니티 사업인 ‘정동마켓’을 연다고 밝혔다. ‘정동마켓’은 마을주민과 마을미술프로젝트 작가들이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만들어진 다양한 작품 및 생활 공예품을 전시 판매하는 행사로, 액세서리 만들기 목공예 체험 등을 즐길 수 있으며, 다양한 먹거리도 마련되어 있다. 행사가 열리는 지역은 청소년 통행 금지 구역으로 현재 빈 점포들이 많아 슬럼화된 곳이나, 2017년부터 마을미술프로젝트 작가들이 입주해 주민들과 함께 마을을 변화시키고 있는 곳이다. 대전광역시는 대전 시민과 방문객들이 이 행사를 즐겨 마을 이미지가 변화되고 주민공동체 조성에 발판이 되면 좋겠다고 하였다.

시민이 시민을 돕는 마을공동체를 가꿈니다

2018. 10. 16. | 대전광역시 | 지역공동체과

대전광역시는 ‘자치구와 함께 하는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의무 권장사업은 중간지원조직 운영, 대전형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민관 소통 활성화 거버넌스 구축(비예산)이며, 선택사업은 공동체지원센터 공간조성,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사업 등이다. ‘공동체 중간지원조직 운영 사업’은 시민주도로 마을공동체 활동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위탁과 구청 직영방식 중 민간위탁의 경우 인건비까지 지원한다.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은 공동체의 성장 단계별로 지원 금액을 결정해 자치구에 배정, 추진할 예정이다. ‘민관 소통 활성화 거버넌스 구축 사업’은 자치구와 동, 주민자치조직, 마을활동가 등이 사업주체가 되어 정기적인 소통과 관계망을 형성, 사회적 연대가 강화되도록 할 방침이다. ‘공동체지원센터 공간조성 사업’은

공동체의 소통공간 조성을 희망하는 2개의 자치구에 공간조성 리모델링 비용과 시설·장비 구입비를 지원한다.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은 기초마을 학교 및 마을 아카데미 등 주민교육과 마을활동가 인재양성을 위해 전문교육이 필요한 자치구에 사업비를 지원한다.

대전광역시, 마을활동가와 함께하는 허심탄회 개최

2018. 10. 19. | 대전광역시 | 자치행정과

대전광역시는 청춘다락에서 마을활동가와 함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허심탄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대전광역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대전형 좋은마을만들기 등 생태계 조성, 리빙랩 시범 마을 10개 조성, 시민공유공간 100개 조성, 5개구 공동체 지원센터를 신설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마을주민들이 모여 자신들이 속해있는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결정하는 마을공동체가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의 실현이며, 마을활동가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였다. 한편 대전광역시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허심탄회’를 매월 개최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본격 추진

2018. 10. 25. | 대전광역시 | 자치행정과

대전광역시는 주민대표기구를 통해 동 단위 마을 현안을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위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공개모집과 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중 공개추첨을 통해 위원을 선정해 주민 대표성을 확보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한 동과의 협의권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의 사무에 관한 수탁 처리 권한, 주민총회 개최와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업무 수행 권한을 갖게 된다. 대전광역시는 시범사업 지원을 위해 시범동 마을활동가, 주민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간사 등 인건비, 주민자치학교 운영비, 주민자치회 사무공간 조성비, 주민자치회 사업비 등으로 2019년부터 2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참여 예산제와 연계해 주민자치사업 재원을 확충함

으로써 안정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울산광역시, 마을 공간조성 등 주민들이 계획하고 추진하는 ‘2018년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

2018. 06. 22. | 울산광역시 | 지역공동체과

울산광역시는 ‘2018년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추진했다. 지원 규모는 2억 원이며 신청 주체는 시 전역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모임·단체로 시 및 구·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주민참여자 명단을 작성해 구·군 마을공동체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모집 분야는 자유 공모, 지정 공모로 나누어 마을공동체 형성, 마을공동체 활동, 마을 공간조성, 주민 네트워크 운영 지원 등 마을의 문제와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계획하고 추진하는 다양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 사업이다. 지원 대상 사업은 울산광역시와 울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가 실무심사 후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하는 ‘마을단위 마을만들기’ 3개 마을 선정

2018. 09. 09. | 세종특별자치시 | 농업축산과

세종특별자치시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마을 단위 마을만들기(자율개발) 공모 대상에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세종특별자치시 내 3개 마을에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국비 3억 5000만 원과 시비 1억 5000만 원 등 마을당 5억 원씩 총사업비 15억 원이 투입되어, 살기 좋은 농촌 마을 만들기 사업이 추진된다. 마을별로 금남면 영대2리는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마을 인근 폐교 공터를 활용한 울여울마당을 조성하고, 마을 경관 회복을 위해 영농폐기물집하장과 가로등을 설치하게 된다. 장군면 하봉2리는 마을 내 문화자원을 활용해 마을 고유의 문화를 보존·계승하고, 야외운동 공간조성 및 소지한마당 축제 개최를 통해 원주민과 이주민의 단합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전동면 송정2리는 마실길 산책로와 소공원, 쉼터, 목욕 시설 등을 설치해 마을 경관을 개선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연계 사업의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됐다.

세종특별자치시, 농촌 지역 안전 인프라 확충 위해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2018. 09. 19. | 세종특별자치시 | 재난관리과

세종특별자치시가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에서 연동면이 사업대상지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연동면에는 2019년 1년간 시비 4억 원을 투입해 과속단속카메라·안전펜스 등 교통 5개 사업, 배전함 교체·호스릴일체형 소화전 설치 등 화재 2개 사업이 추진된다. 또, 해충퇴치기 등 감염병 1개 사업, 태양광조명시설·농약보관함 등 자살 및 범죄예방 2개 사업, 자동심장충격기·휴대용제설기 등 취약계층 보호 2개 사업이 추진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연동면을 포함해 5개 면을 대상으로 2019년~2022년까지 4년간 안전 인프라 구축과 주민참여형 안전문화 운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시설물 및 매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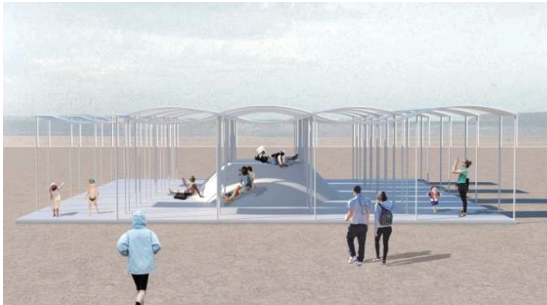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공모전 수상작 선정 - 총 55점 선정, 우수 작품 전시 -

2018. 07. 25. | 부산광역시 | 도시경관과

부산광역시는 ‘2018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공모전’에서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그린디자인, 부산!”이라는 주제로 신재생에너지 활용 디자인, 에너지 절감디자인, 친환경 경디자인 세 가지 분야의 공간, 시설물, 시각 등 디자인 전 부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대학·일반부 금상은 ‘잇따라, 부산’과 ‘Sunflower’가 차지하였으며, 모래가 하강하면서 발생하는 중력에너지를 이용한 가로등과 한번 사용된 물을 다시 정수할 수 있는 필터를 기둥으로 만든 간이 샤워 공간 디자인이다. ‘Sunflower’는 바다 위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기능뿐 아니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서 창의성과 상징성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중·고등부 최우수는 ‘GREEN PIXEL’로 타일을 움직여 그림을 만드는 타일 스왑 퍼즐 원리를 차용하여 디자인한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부산광역시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우수 디자인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적용 및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 대학일반부 ‘잇-따라 부산’ 수상작



대구광역시, ‘제26회 대구옥외광고 대상전’ 개최

2018. 08. 31. | 대구광역시 | 도시디자인과



▲ 창작간판디자인 대상(작품명: 벽면 에코사인 시스템)

대구광역시는 ‘제26회 대구옥외광고 대상전’을 개최했다. 이번 대상전에서는 창작모형 조형물, 아름다운 간판, 창작간판 디자인 총 3개 분야에서 공모하여 심사하였으며, 특히 창작간판 디자인 부문은 향후 활용 가능성을 고려한 독창적이고 조형미가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였다. 대상 수상자는 창작모형 조형물 분야 ‘지구 한 바퀴 바이크숍’, 창작간판 디자인 분야는 ‘벽면 에코 사인 시스템’이 선정됐다. 행사 첫날은 개회식과 함께 ‘대구옥외광고 대상전’ 수상작에 대한 시상 및 출품작품 전시와 옥외광고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함께 실시하여,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과 광고사업 종사자들의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마인드 함양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인천광역시, 시민 체감 공공디자인 프로젝트로 ‘지하 공간 및 안전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및 가이드라인 구축

2018. 07. 10. | 인천광역시 | 도시경관과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6차 개발’을 착수했다. 이 사업은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6차 개발’은 지하 공간(지하도 상가) 안전디자인과 지진대피 안내표지판, 그늘막, 바람막이, 소화기, 응급시설물 보관함 등 안전시설물에 대하여 표준디자인 개발과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특히 지하 공간(지하도 상가)은 ① 유니버설, ② 안전(일상안전/사고 안전), ③ 범죄예방 분야로 분류하여 선도적인 인천형 지하 공간 안전디자인 매뉴얼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각종 재난 재해와 범죄예방 등 시민의 안전과 결부된 디자인 사업인 만큼 공간체험, 행태분석, 설문 조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실효성 있는 디자인을 개발할 계획이며,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여 TFT를 구성·운영한다. 아울러, 시민과 지하도 상가 상인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과 교육, 안전디자인 공모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및 안전디자인 공모 등 ‘공공디자인 포럼’ 개최

2018. 10. 25. | 인천광역시 | 도시경관과

인천광역시는 ‘2018 인천 공공디자인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인천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공공디자인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인천의 색부터 범죄예방 안전디자인까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감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즐겁게 참여하는 행사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행사는 “I-COLOR DAY(인천 컬러 데이)”라는 주제로 퍼스널 컬러 강연과 스톱모션 제작 워크숍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워크숍에서 제작한 스톱 모션 영상은 인천 색 홍보를 위하여 다양하게 사용될 예정이다. 두 번째 행사는 “디자인으로 안전한 인천 만들기”라는 주제로 범죄예방 및 안전디자인 공모전 시상식과 함께 주제 발표, 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인천광역시는 『2018 인천 공공디자인 포럼』을 통하여 시민과 함께 공공디자인 정책을 공유하고 범시민 디자인 운동으로 확산 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 ‘제10회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공모전’ 당선작 발표

2018. 06. 26. | 대전광역시 | 도시경관과

대전광역시는 ‘제10회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공모전’의 심사결과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커뮤니티 도시, 대전’을 주제로 대상(大賞)에는 시설물 디자인 부문에 출품한 ‘모퉁이의 기적’이 선정됐으며, 금상에는 ‘感(감); 느끼고, 깨닫고, 닿다.’가, 은상에는 ‘파사비트’가, 동상에는 ‘SMART ECO TOILET’과 ‘별자리 공원’이 각각 선정됐다. 대상 작품은 도심 속 어두운 골목길에 생기는 다양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작품으로, 공간의 사각지대를 밝힘으로써 이를 통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고, 다양한 기술의 결합을 통한 과학 도시 대전의 이미지를 잘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 모퉁이의 기적



울산광역시, 안전 근무환경 조성 위해 ‘안전디자인 환경개선 시범사업’ 추진

2018. 07. 12. | 울산광역시 | 도시창조과

울산광역시는 기업과 근로자의 안전디자인 인식개선 및 문화 확산,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단지 안전사고 0(제로) 생활권 조성(울산광역시)」의 ‘안전디자인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참여기업별 맞춤형 안전디자인을 개발하여 진행, 2019년까지 작업장 내 안전사인물 설치 및 도색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업체별 자부담은 사업비의 20% 정도다. 지원자격은 “울산광역시 소재 상시 근로자 수 10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울산시와 울산

발전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7월 31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했다. 한편 울산시는 이번 사업으로 부주의한 행동으로 발생하는 산업단지 안전사고를 예방해 근로자의 인명피해 최소화 와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행안부 주관 ‘2019년 간판개선사업’ 선정

2018. 08. 20. | 세종특별자치시 | 건축과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로 상가 밀집 지역이 ‘2019년 간판개선사업’ 대상지에 선정되었다. 선정된 지역은 20년 이상 노후 건물 비율이 83.9%나 되고 각종 불법광고물이 무질서하게 난립해 있어 정비가 시급한 지역으로 꼽힌다. 이번 공모 과정에서 조치원로는 청춘조치원프로젝트를 통해 전선 지중화, 보행환경 개선, 노후 보도블록 및 배수로 교체 사업을 주민주도로 추진·완료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선정으로 쾌적한 주민 생활공간 조성은 물론, 상권 활성화 및 지역발전 기반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사업추진 시 주민협의회를 통해 사업 전반에 걸친 의견수렴 및 간판디자인, 사업 방향을 결정하고, 노후 건물 입면 개선 등 경관 및 환경 개선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

건축 및 도시

천안 최초 영어특화 ‘청수도서관’ 문 연다

2018. 06. 15. | 천안시 | 중앙도서관

천안시문화도서관사업소에 따르면 천안시 8번째 공공도서관인 ‘영어특화 청수도서관’이 문을 연다. 청수도서관은 지상 4층, 지하 1층으로 1층부터 3층까지 아트리움으로 조성돼 자연스럽게 햇빛이 실내로 들어오는 친환경 녹색건축물로 지어졌다. 1층은 어린이자료실과 유아자료실, 2층은 영어자료실, 3층 종합자료실, 4층 북카페와 옥상정원으로 조성됐다. 도서관의 대표 공간인 2층 영어자료실은 시민들이 친숙하게 영어공부를 할 수 있도록 영어 원서가 잘 배치되어있으며, 가상공간에서 영어와 만날 수 있는 가상체험실을 마련하여 영어 친화적 환경으로 꾸몄다. 청수도서관이 본격 가동되면 영어가상체험실과 영어독서수준진단 프로그램 등으로 학생들은 영어를 쉽고 재미있게 접하고, 주민들은 지식을 공유하고 개발할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청수도서관



천안청년몰 ‘흥흥발전소’ 활성화 및 확장지원사업 선정

2018. 08. 14. | 천안시 | 도시재생과

천안명동대흥로상가 청년몰 ‘흥흥발전소’가 중소벤처기업부의 ‘2018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지원사업’에 선정됐다. ‘흥흥발전소’는 이번 선정으로 마케팅·홍보, 컨설팅, 시설보강 등 총 3억을 지원받게 됐다. 흥흥발전소는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설립돼 지난해 생활소품, 패션, 식당, 카페 등의 14개 점포가 입주했으나 현재는 19개로 청년상인 점포가 늘어났다. 시는 이번 지원사업 선정을 계기로 흥흥발전소가 더욱 다양한 서비스, 발전된 문화·놀이 공간으로 거듭나 원도심 활성화, 청년상인 자생력 강화,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임시 개관

2018. 09. 13. | 천안시 | 자치민원과

천안시와 아산시 두 도시의 상생과 협력으로 시민 문화수요 충족과 안전을 책임질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가 임시 개관했다.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는 KTX천안아산역 인근에 지난 2016년 12월 착공에 들어가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됐다. 지하 1층에는 다목적실(강당), 문화프로그램실, 카페와 휴게실이 위치하고, 지상 1층에는 자료실을 갖춘 ‘상생도서관’이 자리 잡았다. 지상 2층부터 지상 4층에는 양 시 교통정보 수집과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통합운영센터가 조성된다. 특히, 이번에 임시 개관하는 상생도서관은 3만 2천여 권의 장서 구비, 각종 도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근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 간 문화 교류와 소통을 도모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새로운 ‘백제 시대 전축분’ 확인

2018. 06. 07. | 공주시 | 문화재과

공주시가 무령왕릉과 유사한 형태의 새로운 백제 시대 전축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주대학교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진행해 교촌리 전축분의 위치를 확인함으로써, ‘새로운 백제 시대 전축분’과 80여 년 만에 재회하게 된 것이다. 조사 결과, 백제 시대 전축분 1기와 방형의 석축단 시설을 확인했다. 전축분은 일제강점기 3호 전축분으로 조사된 것으로, 무령왕릉·송산리 6호 전축분과 같은 터널형의 구조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조사단은 교촌리 전축분이 무령왕릉 축조를 위한 연습용의 미완성분인지, 아니면 백제 웅진기 중국적 예제(禮制)의 도입과 함께 수용된 전축분의 새로운 유형인지, 무령왕릉 이전에 조성된 왕릉격의 무덤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성격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 성과가 세계유산 백제 역사유적지구 공주의 웅진기 왕도경관을 체계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백제 시대 전축분



공주하숙마을에 숲속 작은도서관 지역 작가 코너 개설

2018. 11. 16. | 공주시 | 공주시 도서관

공주시 도서관이 공주하숙마을에 위치한 숲속 작은도서관에 지역 작가 코너를 개설했다. 이번 지역 작가 코너는 나태주 시인 등 유명작가를 비롯해 많은 지역 작가들이 활동하고 있음에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 착안, 공주가 명실공히 문화도시임을 알리고 지역 주민의 독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만든 숲속 작은도서관은 시,

수필집 등 약 150여 권의 장서를 비치하고 독자들이 가볍게 읽을 수 있도록 지역 작가 코너를 별도로 마련했다. 지역 작가 코너는 공주시 문인협회의 협조로 작가들의 작품집을 받아 비치하였는데, 지역 작가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지고 이용객들이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어, 문학작품을 통한 지역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주시 도서관



보령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2년 연속 선정 ‘패거’

2018. 09. 04. | 보령시

보령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중심시가지형 분야의 대천 1·2동 원도심이 선정되었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대천 1·2동 원도심에 Viva 도시활력센터 및 원도심 도시숲 공원 조성, 스마트 안심가로, 근대 역사문화 박물관 및 역사문화공원, 역사문화 테마가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특화산업 거점, 주민역량강화 지원사업 등 모두 21개의 세부사업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건립’은 현 보령경찰서 부지 및 대천1동사무소, 수도사업소 부지를 활용해 보건소 등 공공편의시설을 원도심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될 경우 원도심의 유동인구를 늘려 공동화를 막고, 시민 편의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큰 시너지 효과를 만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보령시,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추진 ‘드라이브’

2018. 11. 12. | 보령시

보령시는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 위원 위촉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방안 회의를 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여성

친화도시 사업 추진현황 점검, 모니터, 지도 및 평가, 여성친화도시 사업 발굴·제안, 사업검토, 교육 홍보, 일상생활 시 불편한 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상호협력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그동안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 경과보고를 통해 놓여촌 양성평등 마을 만들기 등 성평등 정책추진 인프라 구축, 5070 중년남성 요리교실 운영 및 찾아가는 여성친화도시 교육 등 가족 친화 환경 조성으로 2014년도 여성가족부 장관상, 2015년도 기관 표창과 대통령상을 받는 성과가 있었다. 아울러, 2019년도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한 사업계획 보고에서는 사업의 연속성과 차별성으로 기존의 미비한 정책을 보완하고, 여성 인재 DB 구축, 정책의 성인지적 개선 체계화와 활성화, 여성·어린이회관 복합 가족지원센터 건립, 농어촌 성평등 시범 마을 활성화, 여성친화 서포터즈 활동 모니터링 결과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아산 중앙도서관, ‘2018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최우수상 수상

2018. 10. 19. | 아산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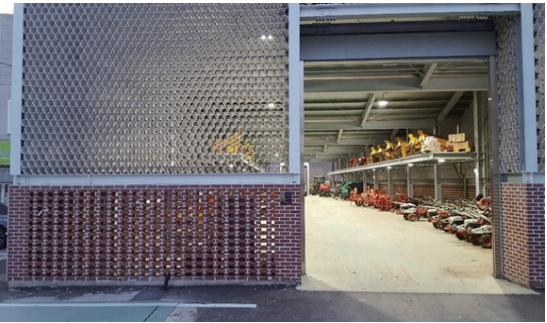
아산시는 ‘2018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에서 최우수상(국토교통부장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은 재실자의 건강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패시브 건축기법을 도입하고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높은 우수 건축물을 발굴해 시상하는 국내 최고의 건축문화 행사이다. 이번 심사에서 아산 중앙도서관은 전국 도서관 중 최초로 제로에너지와 패시브 건축물 인증을 모두 획득했다는 것과 패시브 건축물 구현을 위해 해당 직원들이 현장에서 땀 흘리며 노력한 점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아산시는 2012년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공공건축물 건립에 패시브 건축기법을 도입해 온양6동 행정복지센터, 아산 장애인 체육관, 중앙도서관 등을 건립했고, ‘아산 녹색건축 여행코스’를 운영하는 등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녹색건축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산시 농기계보관창고 ‘2018 신진건축사대상’ 우수상 수상 패거

2018. 11. 22. | 아산시

아산시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보관창고가 유해 배기가스 없는 건축물로 인정받으며 ‘2018 신진건축사대상’ 우수상을 받았다. 농기계보관창고는 PVC 파이프를 건축물과 접목해 투명성과 자연채광 및 자연통풍의 효율을 높인 건축물로 농기계 대여 시 상하차 작업을 하는 지게차 및 기타 농기계 등에서 배출되는 유해 배기가스로부터 직원들의 건강을 고려하였다. 이를 위해 증축창고의 벽체를 PVC 파이프를 이용해서 시공, 통기성을 향상해 유해 배기가스로부터의 위험을 최소화해 직원들의 건강 유지 및 쾌적한 근무여건을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아산시농업기술센터는 대여 농기계의 효율적인 보관으로 내구연한 증대 및 이용률을 극대화해 어려운 농촌 현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 농기계보관창고 모습



김홍신 문학관 착공 및 집필관 준공식 열려

2018. 06. 25. | 논산시 | 문화예술과

홍상문화재단은 인간시장 작가 김홍신 문학관 착공 및 집필관 준공식을 했다. 내동 일원에 건립 중인 김홍신 문학관은 총 1617㎡(489평) 규모로 교육관, 세미나실, 전시실, 카페 등을 갖추게 되며, 2018년 12월 준공, 집필관을 작가들의 창작실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홍신 작가는 문학관이 누구와도 편안하게 문학을 말하고 문학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하였다. 논산시는 김홍신 문학관을 통해 인문학으로 시대를 이야기하고 인문학의 도시 논산을 선도

하는 최적화된 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다.

▼ 김홍신 집필관



논산시, 고령친화도시 선포식.... 시민 모두 행복한 동고동락논산

2018. 10. 02. | 논산시 | 100세행복과

논산시는 (사)대한노인회논산시지회 주관으로 노인의 날 행사와 고령친화도시 선포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친환경적인 기반조성,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 어르신이 존경받고 더불어 살아가는 논산 등 내용을 담은 선언문 선포를 통해 고령친화도시 기반 마련과 정책 추진으로 어르신은 물론 시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활력있는 논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논산시는 논산시가 고령친화도시 가입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사회·경제적 참여가 자유롭고 살고 싶은 도시로 선진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으며, 전국 최고 효(孝)도시는 물론 시민 모두 행복한 논산을 만들어 가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계룡시에서 ‘2018 충남건축 · 공공디자인문화제’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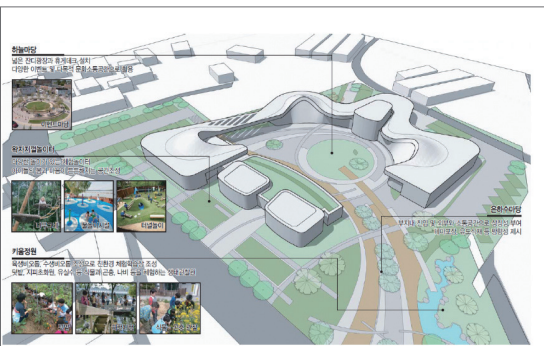
2018. 10. 11. | 계룡시 | 문화체육과

계룡시에서 ‘2018 충남건축 · 공공디자인 문화제’를 개최했다. 예로부터 풍수지리상 대길지로 알려진 계룡시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맥(脈)’을 주제로 자연과 건축, 자연과 공공디자인, 자연과 인간 사이를 잇는 관계와 소통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공공디자인전 및 건축문화대전은 충남 분야와 함께

계룡시 분야의 출품 테마를 추가로 공모받아 그 의미를 더했다. 공공디자인전 계룡시 분야에는 계룡시 과목정 공원과 계룡IC톨게이트 디자인 개선안을 공모했고 건축문화대전은 계룡복합터미널조성과 계룡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출품 테마로 했다. 행사는 건축문화제 세미나, 도시디자인 탐사발표 등 학술세미나와 가가호호 프로젝트, 찾아가는 박물관, 나만의 인장디자인체험, 유리공예체험, 조아저씨 창의체험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3D프린터, 주택 VR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4차 산업기술을 접목해 건축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높이고 미래지향적인 충남 건축 및 디자인산업을 선보였다.

계룡시 공립어린이집 및 감성체험장 건축 설계 공모작 선정

2018. 10. 29. | 계룡시 | 문화체육과



▲ 설계 공모 당선작

계룡시는 ‘공립어린이집 및 감성체험장 신축사업 건축 설계제안’ 공모에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창의적인 공간 연출과 경제성, 기능 등을 균형 있게 갖추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룬 자연 친화적인 설계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했다. 먼저 공립어린이집은 80명 이상 정원을 수용할 수 있는 보육실, 교사실, 조리실, 놀이터 등을 갖추고 감성체험장과 연계한 효율적인 시스템, 영유아 행동 특성 등을 반영한 설계를 요청했다. 감성체험장은 오감체험관, 문화예술체험관, 주변 자연과 교감하는 실외체험관 등 어린이의 창의성 및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건전한 놀이체험 공간 구성을 주문했다. 또한, 향적산, 지역 마을 자원과 연계 가능한 체험시설과 장난감 도서관 공간의 설계도 요청했다. 당선 작품은 어린이

집과 감성체험장의 효율적 배치 및 진출입로에 대한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디자인 전체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곡선을 활용해 재미를 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진시, 차별 없는 양성평등 도시 만들기 본격화

2018. 07. 08. | 당진시

당진시가 제23회 평등문화 공감축제 기념식에서 ‘여성친화 도시 선포식’을 함께 갖고 양성평등 도시 실현을 위한 행보를 본격화했다. 세대와 성별을 아우르는 시민대표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여성친화’ 4글자로 된 4행시 형태의 선포문을 참석자 전원이 낭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017년 제2단계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 된 이후 2018년 1월 여가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여성 인력풀 집중 모집과 2018년 사업계획 수립 등 선포식에 앞서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기반마련에 주력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당진시는 선포식 이후 여성친화도시추진협의회 구성과 시민참여단 정비를 추진하고, 여성친화 도시 시민 대토론회 개최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면천읍성 복원사업 추진

2018. 08. 29. | 당진시



▲ ‘면천읍성’ 남문

면천읍성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옛 면천면사무소와 면천초등학교의 철거 공사가 2018년 8월에 모두 마무리돼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당진시는 지난 2007년부터 조선시대 대표적인 호국관방 유적인 면천읍성(충청남도 지정기념물 제91호)에 대한 정비와 복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4년에는 면천읍성 남벽 135m와 남문이 복원됐으며, 2015년에는 면천읍성 내 영랑효공원도 7,500㎡ 규모로 조성됐다. 이후 현재까지 성안마을 조성사업과 더불어 읍성 서남치성 구간에 대한 복원사업이 추진 중이며, 옛 면천면사무소와 면천초등학교는 읍성 내 관아 복원을 위해 철거가 마무리됐다. 향후 당진시는 실시설계와 더불어 서남치성 복원에 필요한 정밀발굴조사에 돌입하는 한편 충청유교문화권 개발사업과 연계해 2019년부터 관아, 객사 및 동원복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식물생태학습원 준공

2018. 11. 07. | 당진시

당진시농업기술센터는 완공식을 하고 식물생태학습원을 시민들에게 전격 개방했다. 센터 본소 농심테마파크 내에 조성된 학습원에는 아레카야자, 코코넛 야자, 디펜바키아 같은 교목 80종 86주를 비롯해 관목 49종 122주, 지피류 40종 100본 등이 식재돼 있으며, 아열대식물 존과 온대식물 존, 선인장원, 유실수 존 등 4개 구역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식물생태학습원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호기심과 창의력을 심어주고 어른들에게는 동심으로 돌아가 옛 추억에 잠길 수 있도록 종이비행기를 형상화했다. 농심테마파크에는 이번에 조성된 학습원 외에도 자생식물원을 비롯해 동물농장 등 다양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어 센터가 농업기술을 선도하는 기관을 넘어 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 식물생태학습원



금산역사문화박물관 개관

2018. 06. 04. | 금산군 | 문화공보관광과

금산군은 금산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금산역사문화박물관 개관식을 했다. 금산역사문화박물관은 총 94억 원이 투입됐으며, 10,270㎡의 대지에 연면적 2,488㎡ 지상 3층, 지하 1층의 건물로 지어졌다. 군은 사업추진을 위해 2014년부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획재정부 평가 및 심의 통과, 자문위원 구성, 건축설계 공모 및 확정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쳤다. 금산역사박물관은 1층 금산역사관과 2층 금산생활관으로 나뉜다. 1층에는 선사 시대, 삼국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 근·현대관 등 5개의 전시실로 구분, 시대별 변천사를 연출했다. 2층은 금산민속문화관, 지구촌 생활민속관으로 꾸몄다. 주요 전시 자료는 금산에서 출토된 구석기 유물을 비롯해 제원면 수당리 유적, 음지리 금동여래입상, 태조대왕 태실, 덕흥대원군 태석함, 임진왜란 자료 및 유물, 독립운동과 인물, 향토유물 등이다. 부속시설로 기획전시실, 세미나실, 어린이 체험실 등이 들어섰다.

▼ 금산역사문화박물관



금산군 진산역사문화관 개관

2018. 06. 04. | 금산군 | 문화공보관광과

금산군은 진산역사문화관 개관식을 했다. 사업추진을 위해 2015년 충청남도 금산교육지원청으로부터 건물을 매입한 뒤 2017년 건축설계 및 전시설계를 시작으로 1년여의 공사기간을 거쳐 이번에 준공을 하게 됐다. ‘진산사건 자료실’에는 천주교대전교구유지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진산사건 관련 사진, 문서 등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최초의 천주교 박해인

신해박해(진산사건)의 배경과 한국역사 속의 진산사건의 위치를 재조명했다. ‘진산문화실’에는 행정구역의 변동 등이 있었던 진산의 역사, 문화, 교육, 사상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진산면 실학로를 따라가다 보면 한국천주교 최초의 순교자가 활동했던 진산성지(국가등록문화재 진산성당)와 금산군의 최초의 개신교인 지방교회가 있으며, 장태산으로 이어지는 진산성지 순례길도 마련돼 있다. 또한, 동학사상도 일찍이 들어와 서장옥, 조재벽, 최사문 등이 활약했던 곳이기도 하다. 임진왜란 당시 최초의 육전승전지인 이치대첩지에는 충청남도지정문화재 원율장군 이치대첩비가 생생한 전투장면을 전하고, 인근에는 진산향교, 태고사 대웅전 등 많은 역사 문화적 자원이 산재해 있다.

▼ 진산역사문화원



서천군 장항문화예술창작공간, 농림축산식품부 유휴시설 활용 우수사례 공모 당선

2018. 10. 25. | 서천군 | 도시건축과



▲ 장항문화예술창작공간(구 장항미곡창고)

서천군 장항문화예술창작공간(구 장항미곡창고)이 ‘제2회 농촌 빈집 및 유휴시설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받는다. ‘장항문화예술창작공간’은 일제강점기 수탈의 아픔을 간직한 미국 창고였다가 2012년 공장미술제를 시작으로 군에서 매입해 리모델링을 완료한 후 2014년도에 시범운영, 2015년부터 인형극단 또봄이 문화예술창작공간으로 위탁운영하고 있다. 이곳은 공연, 전시, 체험, 교육 등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돼 주민과 방문객, 예술가가 함께 공존하는 공간의 역할을 해내며 장항 구도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됐다.

장항포럼T ‘장항의 옛길’ 개최

2018. 11. 20. | 서천군 | 도시건축과

서천군이 지원하고 군산대학교 지역재생센터가 운영하는 2018년 장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장항포럼 T’를 개최했다. 장항의 과거를 진단하고 미래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된 ‘장항포럼T’는 풀무길, 장항선 철길과 금강 물길 따라 장항의 역사와 문화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역의 정체성을 발굴하기 위한 ‘장항역사문화연구회’는 매달 정기적인 세미나와 장항읍 대상 자산 발굴 및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심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청양군, LH와 손잡고 공공임대주택 180호 짓는다

2018. 08. 21. | 청양군 | 건설도시과

청양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추진에 들어갔다. 이날 협약에 따라 앞으로 청양읍 교월리에 공공임대주택 18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특징은 주민과 지자체, LH가 협업을 통해 주변 지역 기반시설 정비,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마을정비사업을 공공임대주택사업과 연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존 주거목적의 공공임대아파트와 차별화된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공급모델이다. 특히 청양군은 LH 공공임대주택 유치는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확보는 물론 도심지로의 주민 이탈을 방지하여 인구증대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뛰고, 놀고, 쉬는 흥동 어린이도서관 ‘두밀리책방’ 준공

2018. 06. 21. | 홍성군

충남 홍성군 흥동면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어린이도서관 ‘두밀리책방’이 준공식을 마쳤다. 충북대 건축연구회 및 밝맑도서관, 갯골 어린이집의 후원으로 두밀리책방은 기존보다 크고 안정된 10평 건물에 우수어린이 도서 3,500권을 갖춘 어린이도서관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마을 주민들이 힘을 모아 설립한 흥동면의 밝맑도서관은 어른들에게는 지친 하루 속 삶의 여유를, 어린이도서관 두밀리책방은 미래의 숲인 어린이들에게 삶의 지혜를 줄 수 있는 마을 지혜의 산실이 될 전망이다.

▼ 두밀리책방



홍성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본궤도에 오른다

2018. 08. 16. | 홍성군

홍성군은 홍성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최근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홍성역세권 도시개발은 서해선 복선전철과 장항선 복선화, 내포신도시의 도시첨단산업단지와 홍성역 간 연결도로 개통 예정 등 홍성역 일원의 여건 변화에 발맞춰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 부지는 홍성역 앞 홍성읍 대교·고암리 일원이다. 용도별 면적은 주거용지 4만 1437㎡, 상업시설용지 2만 6693㎡, 복합업무시설용지 1878㎡, 공원과 광장,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용지는 8만 4475㎡이다. 홍성군은 충남도청 관문 홍성역과 시외버스터미널이 위치해 교통 및 상업의 중심지역으로 급부상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

겠다고 하였다.

▼ 사업대상지



내포신도시에 ‘한옥 어린이 체험시설’ 생긴다

2018. 10. 19. | 홍성군

홍성군은 ‘2018년 한옥기술개발연구 신한옥형 공공건축물 유형 모델 개발 및 실증을 위한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홍성군은 국비 8억 원을 지원받아 내포신도시 용봉산 인근 한옥마을 조성 사업지 내에 2020년까지 어린이 체험 및 복지시설을 한옥으로 건립할 수 있게 됐다. 규모는 지하 1·지상 1층, 건축 연면적 396㎡로, 건축물 내에는 놀이나 교육, 공예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과 시청각 교육실, 다목적 쉼터, 창고와 화장실 등 부속 시설이 들어선다. 시설 외부에는 야외 학습장을 조성해 전통 공연이나 놀이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뒤편 용봉산에는 친환경 놀이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홍성군은 이 사업을 통해 한옥 신기술을 적용한 모델을 개발해 관내 한옥 건축 기반을 마련하고, 고품격·친환경 한옥 보급·확산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포첨단산업단지 입주 1호 기업, 첫 삽 뜨다!

2018. 11. 19. | 홍성군

홍성군 내포첨단산업단지 제1호 투자협약 기업인 한양로보틱스(주)가 첫 착공식을 했다. 내포첨단산단은 철강 등의

기존 주력산업과 함께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부품, 태양광 등 전략산업이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아이디큐’, ‘봉봉전자’, ‘한별’, ‘동양테크윈’ 등 다수의 기업이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착공을 시작한 한양로보틱스(주)는 1988년 회사를 설립해 30년 이상 인천에서 자동취출로봇 분야를 선도해온 기업으로, 지역인재 채용을 위해 홍성공고 학생들을 매년 2~3명씩 채용해 온 모범 기업이기도 하다. 이번 이전으로 연간 1천 대 규모의 자동취출로봇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된 한양로보틱스(주)는 81억 원을 투자하여 90여 명을 고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으로, 2019년 상반기 준공과 제품 생산을 위해 최대한 공정을 단축할 방침이다. 한편, 자동차대체부품 인증센터와 유니에어공조, IDQ주식회사 등 유망 기업의 착공 등이 예정되어 있으며 인근에는 수소에너지 관련 산업단지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 세워지고 있어 미래 4차 산업을 선도할 충남 경제의 새로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군청사,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 ‘녹색건축 우수등급’ 획득

2018. 07. 11. | 예산군

예산군 신청사가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녹색건축 우수등급’ 본인증을 획득했다. 예산군 신청사는 설계단계부터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녹색건축 우수등급을 목표로 예비인증을 획득했으며, 공사완료 후 인증기관의 평가를 통해 본인증을 획득했다. 신청사는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2만 5805㎡, 주차대수 603대로 방문객의 주차난이 해소되고 민원실은 전시공간과 카페, 모자 휴게실 등 주민편의 공간의 설치돼 행정과 문화가 공존하는 공공시설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예산군은 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군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쾌적한 근무환경 및 군민의 쉼터 공간 제공을 위해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 덕산온천관광지, 대규모 공공개발사업으로 개발 박차

2018. 10. 24. | 예산군

내포신도시 개발에 따라 최근에 중대형 시설 건축 허가가 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은 물론 관련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예산군은 리솜리조트(덕산스파캐슬)의 경우 인수가 결정됨에 따라 덕산지역 전체가 재도약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가족호텔업도 준공 예정이며,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역시 대규모 시설로 공사가 완료되면 중국 관광객을 비롯해 국내외 많은 관광객을 맞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덕산지역의 개발 열기는 오피스텔 건축으로 이어진다. 또한, 두 개의 대규모 사업을 공공개발로 추진하고 있다. 하나는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으로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하고 보부상과 경제활동의 역사성을 배울 수 있는 다목적 관광시설로 탄생할 예정이다. 다른 하나는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으로 휴양, 힐링, 관광 및 미용 등의 시설이 갖춰지고 타 시설과는 차별화된 블루오션 전략으로 접근하는 사업이다.

▼ ‘덕산온천관광지’ 숙박시설 조감도



태안군, 해수부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 4개 분야 선정!

2018. 06. 18. | 태안군

태안군이 ‘2019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를 확보했다. 해수부의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에서 거점개발사업 분야(남면 몽산포권역), 마을단위 특화개발(고남 영목마을), 생활기반 정비(소규모계류장 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태안군) 등 4개 분야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은 몽산포 권

역 지역 특성에 맞는 ‘소포장 용기 개발 사업’, ‘몽산포 붓짐 거리 조성’, ‘야간경관 조성 사업’ 등을 신청했으며 인근 상권의 소비 유발효과, 주민 호응도, 사업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최종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의 경우 영목마을의 영목행복 힐링공간 조성, 오션투어 생태체험시설 조성, 브라이트 스페이스 조성 등이 우수한 경제적 효과를 인정받아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밖에, 신규 생활기반 조성사업으로는 소규모 계류(하역) 시설정비사업이 지원되며, ‘지역역량강화사업’에도 태안군이 선정되는 등 무려 4개 분야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둬 지역 농어촌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태안군 ‘몽산포항’



태안군, ‘생태 1번지 슬로시티 태안’ 슬로투어리즘 전문가 양성

2018. 11. 29. | 태안군

태안군은 ‘태안군 슬로투어리즘 전문가 과정’을 운영했다. 이번 과정은 슬로시티 기본 이념·취지, 슬로운동, 에코투어리즘에 대한 전문 지식 교육으로 슬로시티 인증지역에 걸맞은 관광의식 전환의 계기로 삼기 위해 실시됐다. 교육은 태안 관광의 역할과 의미, 지역자원의 스토리텔링, 슬로시티의 기초 이해, 슬로관광과 공정여행·책임여행, 슬로시티와 슬로투어리즘, 자연생태자원과 관광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육 수료생에게는 ‘한국슬로시티본부’와 ‘국제슬로시티연맹’의 공식 수료인증서가 발급됐다. 한편 슬로시티(Slow City)는 지역 고유의 전통문화와 자연환경에 기반을 두고 여유로운 삶을 통해 느낌의 미학을 추구하는 국제운동으로, 태안군은 2017년 ‘국제슬로시티 호주총회’에서 천혜의 관광자원을 토대로 국제슬로시티 인증을 받은 바 있다.

경관 및 공공공간

천안시, 민간공원 조성사업 추진 본격화

2018. 07. 13. | 천안시

천안시가 일몰제를 앞두고 대규모 해제에 따른 혼란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민간업체의 제안을 통한 일봉, 청룡, 노태, 청수, 백석공원 등 5곳의 실시계획인가를 얻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몰제가 시행되면 근린공원 지정이 자동으로 해제돼 난개발 및 환경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토지보상과 공원 조성비가 2조 원에 육박해 막대한 재정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백석공원의 경우 민간공원 조성을 위한 협상대상자 선정 제안공고로 7개 업체가 사업참가 의향서를 제출했고, 시는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제안서를 접수받아 제안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일봉 공원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2018년 말까지 협약체결과 함께 토지보상금을 예치 받아 2019년 상반기에는 실시계획인가와 토지보상에 착수한다. 일부에서 민간공원개발에 대해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도시공원 민간개발은 일부 공원만 제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천안시는 생태·환경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지역은 생태 공원으로 조성하고, 가용지(韃孫지) 위주로 비공원시설을 배치해 난개발을 방지할 방침이다.

천안시, 도시공원 일몰제 적극 주민 홍보 나선다!

2018. 08. 22. | 천안시 | 산림휴양과

천안시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민간공원사업 바로 알기’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기로 했다. 또 환경단체, 일봉산지기주민주민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도심 녹지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 폐제화에 따른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봉, 청룡, 노태, 청수, 백석공원 등 5개 공원에 민간공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 6월 실효전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할 계획이다. 도시공원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에서 5만㎡ 이상의 일부 공원만 제한적

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도시·공원·환경·교통·문화재·교육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련위원회 심의·평가를 꼭 이행해야 하며 그 과정 중에 전문가 또는 시민 의견 수렴 등의 행정절차가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그러므로 독단적 사업추진이 불가함은 물론 관련위원회 등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생태·환경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지역은 생태적인 공원으로 조성하고 가용지(韃孫지)를 활용한 개발로 난개발을 방지할 예정이다.

천안역지하도상가로 가면 아찔한 트릭아트 포토존이!

2018. 11. 16. | 천안시 | 시설관리공단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은 천안시 도시재생과와 천안역지하도상가에 트릭아트 포토존 설치를 완료했다. 천안 원도심의 상징인 지하도상가에 트릭아트 포토존을 설치해 방문객과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공단은 지하도상가에서 ‘시민 행복 만들기 문화교육’의 일환으로 10여 개의 무료강좌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트릭아트 포토존 역시 천안의 새로운 놀 거리로 자리 잡아 지하상가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천안역 지하도 상가의 ‘트릭아트 포토존’ 설치 모습



공주시, 2018 대한민국 국토대전 수상작 선정

2018. 06. 20. | 공주시 | 창조도시과

공주시가 ‘2018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공주기독교박물관과 공주 하숙 마을 조성사업을 ‘삶에 공간이 보물이 된다’라는 주제로 출품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두 대상건축물은 지난 100년 간 공주의 근현대

일반 서민의 삶과 함께하여 주민들의 기억과 추억으로 가장 진하게 남아있는 가치들을 붙들어 두고, 이 향수들을 공유하고 나눔으로써 공주 원도심의 가치를 높여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활성화에 매개로 삼고자 추진한 사업이다. 이렇게 공주 근대사 복원과 학창시절 추억을 콘텐츠로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함으로써, 기존의 건물을 잘 활용해 공주 원도심의 재생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 공주하숙마을



공주시, 흥미진진 ‘2018 공주 문화재 야행’ 개최

2018. 06. 21. | 공주시 | 창조도시과

공주시가 ‘2018 공주 문화재 야행(夜行)’을 개막식을 시작으로 원도심 일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야행은 (夜景), 야로(夜路), 야화(夜畵), 야설(夜說), 야식(夜食), 야시(夜市), 야숙(夜宿) 등 ‘8夜(야)’라는 테마로 진행되었다. 야경(夜景)은 제민천 일원에서 ‘청사초롱로드’와 ‘다리 위 빛의 향연’ 등 문화재와 문화재를 아름다운 빛으로 연결하며, 야로(夜路)는 공주 골목길 해설사와 함께 원도심을 돌아보는 ‘골목길 투어’ 등 다양한 걷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야사(夜史)는 어린이가 관광객에게 지역의 문화재를 설명해 주는 ‘꼬마 해설사’ 프로그램이 진행돼 색다른 재미와 교육적 가치를 높였다. 야화(夜畵)는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여 만드는 ‘시화전’이 공주문화원 전시실에서, 야설(夜說)은 ‘역사 상황극’, ‘프린지 공연’, ‘동네 이야기꾼에게 듣다’ 등이 원도심 곳곳에서, 야식(夜食)은 ‘들차 시음회’가 시간이 정지된 음악공원에서 개최되었으며 야시(夜市)는 지난해 많은 예술가가 참여하여 호평을 받은 ‘예술가의 거리(Art Street)’가 감영길 일원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프리마켓’이 우체국길에서 개최되었다.

▼ 2018 공주 문화재 야행(夜行)



공주시, ‘제3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대상 수상

2018. 10. 29. | 공주시 | 도시정책과

공주시는 2018년도 ‘제3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시상식에서 공공기관 부문 대상을 받았다. 공주시는 신관동 매산동길에 대한 범죄예방 디자인(CPTED) 사업을 추진해 어두운 골목길 조도 개선 및 벽화 그리기, 안전펜스·안심 거울·주민 쉼터, 방범시설 설치 등 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범죄 발생률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했다. 앞으로 신관동 번영2로, 신관동 흑수골길, 옥룡동 중골1길 3개 지역에 대해 지속해서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최초로 공주경찰서와 협업으로 원룸촌 일대 학생, 여성 등의 성범죄와 절도 등의 위험 취약가구에 대해 인증된 방범창·방범 방충망 등 방범시설을 지원해 주기도 했으며, 강도·절도 등 강력범죄 및 여성범죄 지역에 대한 민·관·경이 함께하는 안심 순찰 실시, 일정기준 범죄예방 안전기준 요건을 충족한 원룸에 대한 학생 안심 원룸 인증사업을 추진해 학생들이 안심하게 거주하면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범죄 취약계층인 여성, 학생이 범죄로부터 더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공주시, 코리안 특급 박찬호 골목길 조성

2018. 11. 01. | 공주시 | 창조도시과

공주시는 공주시 산성동 일원에 조성된 박찬호 기념관 앞 광장에서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도시재생 선도사업

중 하나인 테마가로 골목길 조성사업이다. 이 골목길은 박찬호 선수가 살았던 집이 위치한 곳으로, 박찬호 기념관을 비롯해 야구체험관, 전망대, 야구 조각공원 등이 들어선다. 박찬호 기념관은 박찬호 선수의 생가를 리모델링해 2층 7개 전시실로 구성되는데, 1층 전시실에는 박 선수의 초·중·고 시절 소장품을 비롯해 해외 124승 승리구 등 중요 소장품이 전시된다. 2층 전시실에는 박 선수가 가장 오래 몸담았던 LA다저스 구단 라커룸이 재현되며, 해외 구단 활동 시절 유니폼, 사인볼, 글러브, 배트 등이 전시된다. 또한, 야구체험관에서는 박찬호 선수와 가상 대결을 할 수 있는 체험시설도 마련된다. 공주시는 박찬호 기념관을 공주 원도심의 활력 거점 시설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관광 루트를 활성화해 야구에 꿈을 가진 유소년과 부모들은 물론 많은 관광객을 원도심으로 불러들이는 또 하나의 명소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 ‘붉은벽돌 마을’ 사업 대상지



아산시, 「2025 도시경관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주민 열람 공고

2018. 06. 25. | 아산시

아산시는 「2025 아산시 도시경관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착수해 관계기관 및 관련실과 협의, 주민공청회, 아산시경관위원회 심의 등 법적·행정적 절차를 거쳐 경관관리계획 재정비를 완료하고 주민열람 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관관리계획 재정비는 2012년 이후 변화된 도시여건 속에서 지속적인 경관정책을 수립해 균형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경관법」 제15조에 따라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조사하여 정비하여야 하는 법정 관리계획이다. 재정비된 경관관리계획은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경관현황을 재조사하여

분석하고, 기정 관리계획의 경관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을 재검토하여 관리목적에 부합하는 부문별 경관 설계지침을 정비했으며, 경관관리 매뉴얼 등 세부 실행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아산시, 제1호 아동참여놀이터(윙푸름놀이터) 개장

2018. 09. 13. | 아산시

아산시는 아동 친화 도시 연계사업으로 추진한 제1호 아동참여놀이터인 ‘윙푸름놀이터(제37호 공원)’ 개장식을 했다고 밝혔다. 윙푸름놀이터는 아동참여놀이터로 2017년 8월 관련 부서 공무원, 학부모, 아동 관계자 및 어린이 청소년의회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고 2차례 ‘아산아 놀자’ 캠프를 개최해 아동 의견을 수렴해 탄생하게 됐다. 또, 아동 참여공원 조성 후 가장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인근 용화초등학교 학생과 관계자,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제37호 공원 아동참여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아산시는 시민과 아동과 전문가가 참여해 조성한 윙푸름놀이터는 함께 즐길 수 있는 첫 공원으로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어린이공원은 이처럼 아이들이 참여해 즐길 수 있는 특색 있는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아산시, 배방읍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본격 착수

2018. 11. 08. | 아산시

아산시가「모산로 중심상권 경관개선 및 행복한 골목길 조성 사업」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배방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사업(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일원)은 장항선 이설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시행하는 주민주도의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이다. 그동안 주민과 함께 하는 도시재생대학, 타운홀미팅, 퍼실리테이션 등을 통해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주민시범·공모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주민참여에 주력해 왔다.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배방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승인되고 이와 더불어 구모산역일원에「모산역문화플랫폼 및 문화어울림공간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이 진행중이다. 이번 착수하는「모산로 중심상권 경관개선 및 행복한 골목길 조성사업」은 모산로 상가입면 색채보수 및 보행환경개선, 가로

환경 개선 및 간판정비, 노후주거지역 담장 허물기 및 범죄 예방환경 등을 통해 모산로 상권을 활성화하고 공수리 원도심 일원에 안전한 골목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 4월 완료될 예정이다.

서산시, 성연면 농촌 마을 산뜻한 경관으로 ‘탈바꿈’

2018. 06. 08. | 서산시 | 도시과

서산시는 성연면 소재지인 평 1리 일원에서 진행됐던 농촌 마을 경관개선사업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곳에는 파고라, 체력단련시설 등이 설치된 공공쉼터와 하천생태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징검돌이 조성됐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가로등과 조명볼라드 및 좋은 글귀가 적혀있는 펜스도 설치됐다. 성연천 교량에 설치된 경관조명은 아름다운 야경을 연출할 전망이다. 건강 트레킹코스에는 이를 안내하는 이정표와 중간지점에 행운천 마을의 볼거리와 특색이 담긴 스토리안내판도 세워 눈길을 끈다. 특히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회가 주도로 참여한 점이 눈길을 끈다. 앞으로 서산시는 12억 원을 들여 오는 2020년까지 부석면 창리를 비롯해 3개 농촌 마을에서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성연천 교량



논산시,안전하고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평가2년 연속 수상

2018. 07. 04. | 논산시 | 희망마을건설과

논산시가 ‘2018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 평가결과, 기관 표창을 받게 됐다. 그동안 논산시는 지속적인

소하천 정비사업을 통해 도시경관 개선과 재해 예방, 하천 본래 기능 회복은 물론 친환경적인 공간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으로 평가된 하천은 연산면 화악리에 있는 화악 소하천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27억 원을 투입해 1.03km 구간에 하천 정비를 완료했다. 특히,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여울, 소 등 친환경적 하천시설물을 설계에 반영하고 지형에 맞는 친환경적 호안공법 시공을 통해 재해 예방은 물론 하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 정비된 ‘하악 소하천’



논산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화지3동’ 선정...원도심 활성화 ‘탄력’

2018. 09. 03. | 논산시 | 도시재생과

논산시는 ‘2018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화지3동 건강생활지원센터 일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화지 3동은 일반근린형 ‘희희락락! 동고동락! 함께해서 행복한 화지마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 1차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및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모, 공동체 공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적 통합 도모, 주변 지역과 공간적 연계를 통한 도시공간 혁신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사업 주요 내용으로 폐양조장을 이용한 복합커뮤니티센터, 논산시 거점 센터, 다목적공원 및 주차장, 한방특화거리, 주거지 재생사업 등 원도심 골목상권 활성화와 주민복지 향상 및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공동체 강화에 중점을 두고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진행된다. 그동안 논산시는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도시재생센터를 개소,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주민협의체 지원을 비롯해 도시재생 맞춤형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는

등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응방안 수립 및 주민참여와 역량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앞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지역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지역 주민 의견수렴으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논산 탐정호에서도 수상레저 즐긴다”

2018. 09. 21. | 논산시 | 미래사업과

논산시는 논산 탐정호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내수면 마리나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어 탐정호 관광 명소화 추진을 위해 수변데크 둘레길을 조성해 운영 중이며, 출렁다리조성사업, 착수 예정인 딸기향 테마공원 등의 수변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내수면 마리나는 이러한 탐정호 수변 관광개발사업에 힘을 실어주고, 기존 관광개발사업들과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논산시는 이번 에 선정된 마리나 사업과 현재 추진 중인 출렁다리, 딸기향 테마공원 등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로 탐정호가 우수한 복합수상 관광지로 거듭나게 됐으며, 내수면 마리나 개발 및 관광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였다.

▼ 탐정호



논산시,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호응’

2018. 10. 24. | 논산시 | 건강도시지원과

논산시는 ‘주거환경개선 프로그램’운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과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조공사와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

가정에 직접 방문해 평가 실시 후 시공을 진행한다. 시공비용은 무료이며 안전손잡이, 핸드레일 및 경사로 설치, 주거개선 용품 및 일상생활용품 등을 제공한다. 2018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1차로 5명의 장애인에게 계단 핸드레일, 화장실을 포함한 안전손잡이 설치를 제공했으며, 2차로 4명의 장애인이 상담 및 주거환경 평가를 마치고 10월 시공되어 총 9명이 혜택을 받게 되었다. 수혜 대상자들은 핸드레일을 비롯해 거실, 부엌 및 화장실 변기 옆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해 일상생활에서 가장 어려웠던 불편사항 해소로 생활의 질이 개선되었다는 반응이다.

당진시, 지역 경관 가치 재조명한다

2018. 08. 17. | 당진시

당진시는 ‘지역 경관자원조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지역 경관자원의 유형을 재설정하고 경관자원조사체계 구축과 경관구조 및 경관자원, 경관의식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지역의 경관구조와 국내외 경관자원 사례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관리와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관자원의 유형 재설정의 경우 산림 경관, 해안 및 도서 경관, 농촌 경관, 시가지 경관 등 10가지로 구분한 시의 2012년 기본경관계획의 경관자원 유형을 특성과 유형별로 일목요연하게 통합·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경관자원조사 분석 기법으로는 능선부 흐름 기준으로 경관구조 단위를 파악하고 산세의 흐름과 해안 경관 특성 파악에 유용한 지형분석과 도시지역 내부 경관파악과 경관 축, 개방공간, 스카이라인 등의 파악에 유용한 도시 패턴 분석 외에도 경관적 중요성과 경관 민감 지역 파악이 가능한 조망점과 가시권 분석도 활용된다. 당진시는 5년 단위로 재정비되는 도시기본계획과 경관계획 등 관련 계획에 활용하고 우수경관자원 활용사업과 경관 관련 지구 지정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당진시, 고대면 농촌 중심 활성화 사업 본격 돌입

2018. 10. 25. | 당진시

당진시는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 중인 ‘고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 최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고시했다고 밝혔다. ‘고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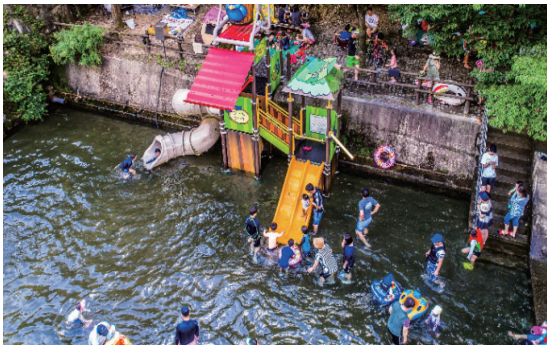
사업'은 고대면 중심지인 용두리 마을을 거점화해 농촌다움을 유지하면서 환경정비를 통해 지역민에게 쾌적한 정주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이다. 주요 사업은 다목적회관 건립(29억), 지역 경관개선 사업(5.2억), 지역 역량강화 사업(10억) 등이다. 이중 핵심사업인 다목적복지회관은 고대면 용두리 일원에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돼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활동과 문화·복지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금산산림문화타운 '관광지-휴양림' 부문 소비자 만족 1위 선정

2018. 07. 24. | 금산군 | 문화공보관광과

‘금산산림문화타운’이 (사)한국전문기자협회가 선정한 관광지-휴양림 부문 소비자 만족 1위에 올랐다. 금산군 남이면 건천리 일원의 ‘금산산림문화타운’은 중부권 최고의 생태종합휴양 단지로, 지리적 위치가 뛰어나 전국 여행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 한 해에 10만여 명의 휴양객들이 다녀간다. 남이자연휴양림과 금산생태숲, 느티골 산림욕장, 목재문화체험장,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가 하나로 연계돼 계절 다양한 프로그램과 자연을 느낄 수 있다. 생태교육, 휴양, 산림치유를 모두 즐기고 경험할 수 있어 가족형 휴양객들이 많이 찾는다. 금산군은 도시를 떠나 인근 자연에서 오감 만족 힐링을 누릴 수 있고, 산림자원이 풍부한 청정 숲에서 다양한 동식물과 체험, 물놀이, 캠핑까지 즐길 수 있어 남녀노소 모두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 금산산림문화타운



부여군, 규암 근대문화 거리에 예술이 꽃피다

2018. 09. 30. | 부여군

부여군은 2016년 규암리가 가진 근대문화자원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관계형성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 주민주도 마을 가꾸기 사업, 규암 문화관 개소 등 1차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기반으로 민속행사 전승 사업, 관광·체험프로그램 개발사업, 마을목공소 및 마을마켓 조성, 빈집정비공사 등 2, 3차에 걸쳐 2017년 사업을 마무리했다. 이러한 기반조성과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통해 형성된 규암리 마을의 강점이 점차 힘을 발휘하고 있으며, 현재 규암리 마을에는 예술인 공방(염색공방, 섬유공예공방 등)과 공예소품 판매점, 책방, 주점 등 근대문화 거리 조성사업으로 정비된 옛 건축물의 주인 찾기가 활발하다. 이렇게 조성된 규암리 마을에는 앞으로 청년 창작 거점기지가 될 사비청년공예창작지구기반과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테마거리가 조성된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사비공예창작지구지원단 구축, 사비공예예술교육프로그램 등도 지원한다.

▼ 예술인 공방



바람에 넘실대는 부여 물억새 은빛 물결 속으로

2018. 10. 26. | 부여군

부여군은 ‘2015년 국가하천 수변공원 관광 자원화 사업’에 선정되어 조성되기 시작한 ‘물억새 생태공원’은 봄·여름이면 황금빛 야생화 금계국이 만발하고, 가을이면 은빛의 억새밭이 장관을 이룬다. 특히 자전거도로 및 수변공간 이용객을 위한 진입광장, 전망테크 등 편의시설이 만들어져 접근성이 좋아졌으며, 공원 곳곳에 쉼터인 정자를 확대 설치해 산책하면서 잠시 쉬어갈 수 있게 만들었다. 관광 자원화를 위한 억

새미로원과 데크길도 완성하였고, 2019년에는 아름다운 야생화와 물억새를 배경으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을 설치하고, 전망테크, 휴게 쉼터, 산책로 등 관광객의 수요에 맞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물억새 생태공원



서천군,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 관광 재도약 사업 ‘박차’

2018. 06. 07. | 서천군 | 도시건축과

서천군은 ‘구 장항역’ 리모델링을 통한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재도약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장항화물역 리모델링 사업’은 구) 장항역에 플랫폼을 구축하여 근대도시 장항을 체험 할 수 있는 ‘장항 도시탐험역’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기존 역사 건물을 리모델링한 2층 규모의 ‘장항 도시탐험역’은 다양한 스토리로 장항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장항 이야기 뮤지엄을 비롯해 도시탐험카페, 어린이 라운지, 전망테크 등 편의시설과 체험형 콘텐츠로 구성된 복합공간으로 새롭게 탄생하며 미디어 콘텐츠와 게임을 결합한 개구쟁이 쌀깨비와 함께하는 장항 대탐험 미션인 장항누비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서천군은 그동안 장항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장항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6080 골목길 프로젝트 사업, 근대유산 미국창고와 6080 골목길 음식테마 사업 등에 대한 연계성을 강화하고 사업내용의 중복방지 및 조정을 위해 주민, 전문가, 관련 부서 중심으로 ‘장항 활성화 사업 T/팀’을 구성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다. 또한, 향후 실시 예정인 장항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장항공공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장항화물역 철도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장항 복합

문화테마 지구 조성 등에 향후 3년간 약 3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장항화물역 리모델링 사업’ 조감도



서천군, 머물고 싶은 최고의 생태관광 도시 조성 ‘총력’

2018. 07. 16. | 서천군 | 생태관광과

서천군은 ‘생태관광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서천군만의 체험(학습)프로그램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천군은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해 생태·역사·농어촌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학습)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관광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2018년 7월 자연환경해설사협회와 주민 등으로 구성된 생태관광 협의체를 출범하고 지역공동체와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서해안을 중심으로 펼쳐진 습지, 유부도, 철새의 기착지, 갯벌 등을 천혜의 자연자원은 있지만 이를 활용한 생태관광에 대한 인프라의 부재, 전국 지자체의 농어촌체험 마을 증가에 따른 농촌관광객 확보의 문제점, 경유형 관광객 증가에 대한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생태관광 협의체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물적자원인 숙박, 식당, 체험장 등을 생태자원인 자연환경해설 프로그램에 접목해 특화된 1박 2일간 머물 수 있는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개발 및 추진 방안을 마련해 서천군의 특색 있는 생태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태 관광객을 확보함으로써 실질적 지역 소득증대에 기여할 방침이다.

서천군, 안심 골목길 조성 범죄예방 효과 기대

2018. 08. 09. | 서천군 | 도시건축과

서천군은 우리 동네 안심 골목길 조성으로 범죄예방과 환경 개선을 위한 경관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범죄예방과 노인들의 어두운 밤길 통행 안전을 위해 노인 인구수가 많은 서면 마량리 지역과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서천읍 군사리 뒷골목 일원을 대상으로 2017년~2018년 7월까지 경관개선 사업을 추진했다. 서면 마량리 마을 내 골목길에 CCTV, 로고젝터, 안내사인 등 설치와 담장 도색을 실시했으며, 특히 빛을 비추 특정 문구나 이미지를 연출하는 로고젝터는 골목 바닥에 밝은 메시지를 표출해냄으로써 주민들이 어두운 밤길을 이용할 때 안심과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서천읍 군사1리부터 2리까지 위치한 뒷골목에 다양한 안심벽화 등을 그려 유쾌하고 재미있는 거리로 만들어 범죄 심리 억제 등 범죄예방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 로고젝터 적용 모습



청양군 도시지역 어린이놀이터 점검 및 보수 완료

2018. 06. 20. | 청양군 | 건설도시과 도시팀

청양군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해 시가지 공원 놀이시설을 일제 점검하고 보수를 완료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어린이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파손되거나 고장 난 시설과 주변 환경을 점검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 공원 4개소(청양3, 정산1)에 대해 탄성포장재 부분보수, 각종 놀이기구 도색 및 세척, 바닥 모래 교체, 공원 주변 잡초제거, 파손된 벤치 보수 등

정비작업을 진행했다. 청양군은 놀이터의 사용자가 어린이들인 만큼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하였다.

▼ 어린이놀이터 점검 및 보수 완료 사진



청양군 백세건강공원 내 어린이 놀이터 신설

2018. 06. 26. | 청양군 | 건설도시과

청양군은 청양읍 백세건강공원에 어린이 놀이터 신설 공사를 완료했다. 이 놀이터에는 어린이들의 신체발달과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놀이기구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마련되었고, 기존에 천편일률적인 플라스틱 제품의 개성 없는 놀이기구를 대신해 특색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천연 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천연 목재 소재의 모험 놀이대가 설치되었다. 청양군은 안전하고 쾌적하며 아이들이 행복한 놀이 공간이 되도록 어린이놀이터 관리와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 ‘백세건강공원’ 내 어린이 놀이터 설치 모습



지역 문제 디자인으로 해결

2018. 10. 24. | 청양군 | 건설도시과

청양군은 충남공공디자인센터 주관으로 공공디자인 컨설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방재성 센터장의 시·군 공공디자인 컨설팅 현황 및 지원사례 소개순으로 진행됐고, 참석자들은 공공디자인 컨설팅 절차 및 활용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청양 부군수는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또 추진 예정인 경관개선사업, 범죄예방거리 조성사업 진행 시 디자인 컨설팅을 활용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특색 있는 공간 창출과 도시경관 향상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방재성 센터장은 공공디자인 컨설팅은 공공사업 진행 시 군민들이 사용하는 공공시설을 안전하고 합리적인 생활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사업 추진 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 컨설팅 설명회



홍성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 지정

2018. 06. 26. | 홍성군

홍성군은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선도지구로 지정·고시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부품, 태양광 등 충청남도 전략산업 중심의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철강 등 기존 주력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과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홍성군 지역경제의 내발적 발전을 도모하고, 내포신도시를 지속가능한 자족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투자선도지구 지정으로 인한 규제

특례와 인센티브, 이로 인한 홍보 효과 등으로 민간투자 및 기업유치도 한층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내포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홍성, 이응노의 집 창작 스튜디오 예술가를 만나다

2018. 08. 01. | 홍성군

충남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은 ‘이응노의 집’ 예술가들의 스튜디오를 개방하는 <오픈 스튜디오>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2018년에 선정된 작가 5인은 권용주, 장태영, 정상철 작가(이상 컨테이너동), 박세연, 박유미 작가(이상 한옥동)로 이들은 지난 주 주민들에게 스튜디오의 문을 활짝 열고 그간의 창작 활동과 과정을 공개했다. 오픈 스튜디오 둘째 날에는 정상철 작가와 박승진(design studio loci) 조경 건축가가 함께 ‘10개의 키워드로 만나는 조경과 건축 이야기’ 특강을 진행하고, 박세연 작가와 이응노의 집이 협력 기획한 청소년교육프로그램 ‘예술가와와의 산책’, 외부 미술 전문가를 초청하여 작가의 작업 역량을 강화하는 ‘예술가-전문가 1:1 비평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응노의 집 관계자는 앞으로 입주작가들이 구상한 예술 세계에 집중하여 작품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 ‘오픈 스튜디오’ 행사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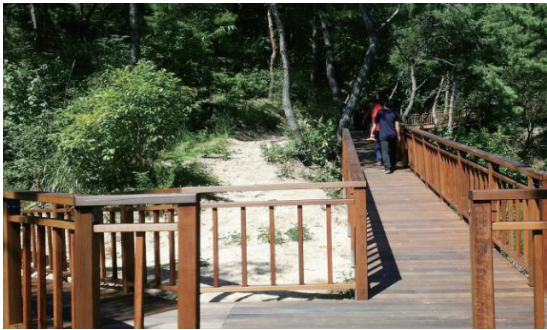


홍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무장애 숲길’ 조성한다

2018. 08. 28. | 홍성군

홍성군이 용봉산 일대에 무장애 숲길 1km를 확대 조성한다. 이미 지난 2016년~2017년까지 홍예 공원에서 충남도지사 관사를 지나 보훈 공원을 연결하는 1km의 트레일 조성을 완료한 바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무장애 숲길 조성사업은 2020년 완성을 목표로 충남도지사 관사에서 용봉산 자연휴양림 구룡대 매표소를 연결하는 신규노선 1km를 추가 조성할 계획인데, 조성이 완료되면 예산군의 숲길과 연계하여 용봉산의 아름다운 경관을 찾는 모두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2017년에 완료된 ‘무장애 숲길’ 조성 모습



홍성군, 도심 속 녹지 즐길 수 있는 ‘녹색 신도시’ 조성 총력

2018. 10. 24. | 홍성군

홍성군이 주민들의 녹색 도시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신도시 공원·녹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내포신도시의 공원·녹지 면적은 100ha로, 앞으로 개발을 앞둔 지역까지 합하면 약 120ha까지 이를 전망이다. 홍성군은 많은 사람이 넓은 녹지를 깔금하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즐길 수 있도록 2017년 7월 1일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했으며, 연 1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계절별 단계적 공원·녹지 관리에 힘쓰며 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봄·여름에는 꽃과 화목 관리에 집중하여 공원·녹지 내 잡초 제거에 주력하고 있으며, 가을·겨울에는 수목의 가지치기를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도로변 교통장애수목 정비사업, 보행자

도로 예초작업 등을 실시하고 전국 최초로 친환경 스팀장치를 이용한 스팀 제초기를 이용하고, 또한 2019년 정부 예산이 확보될 경우 신도시에서 홍성읍까지 이어지는 홍주천변 도깨비 길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도시생환경 등산로를 정비해 자연과 사람이 하나 되는 녹색 도시환경 조성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 홍예공원 전경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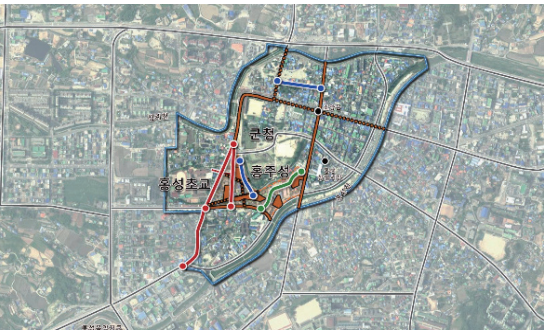


홍성군, 2019년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공모사업 선정

2018. 10. 29. | 홍성군

홍성군은 ‘2019년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으며,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홍성초등학교와 홍주성 주변 도로의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사업을 연계 추진하며 교통량이 많은 홍성초 정문 앞 도로를 보행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대체도로를 개설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 교통약자의 보행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더 나아가 원도심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 사업대상지



홍성군, 내포신도시 내 특화 거리 조성한다

2018. 11. 05. | 홍성군 |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홍성군은 내포신도시 근린상업지역 내 보행자 전용도로에 이팝나무, 맥문동, 산철쭉 등의 수목을 식재해 주민들에게 녹색의 도심 환경을 제공하고, 경관조명 및 불라드 등을 설치해 은은하면서도 아름다운 야간경관을 형성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거리를 거닐 수 있는 특색있는 명품거리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특화 거리 조성사업과 함께 근린상업지역 내에 30면의 노상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상가 및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불법 주차를 예방할 계획이다. 신도시 시설관리사업소는 특화 거리 조성으로 지역민과 지역상권의 상호 작용을 통한 소비지출의 증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주민들에게 이야기·감성·휴식이 공존하는 공간을 제공하여 내포신도시만의 아름다움을 담아내고 누구나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태안군, ‘서울엔 청계천, 태안엔 샘골!’ 생태 문화쉼터 ‘샘골 도시공원’ 조성

2018. 10. 26. | 태안군

태안군은 생태문화 공간 ‘샘골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샘골 도시공원’은 2020년까지 하천복원과 공원쉼터, 산책로, 기타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계절 물과 함께하는 생태 학습장 조성, 문화와 자연을 연결한 쉼터 공간 조성,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성장관리 지역 설정 및 관리방안 수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하천 정비를 통해 사계절 생태학습·현장체험 등이 가능한 어린이 학습공간을 조성하고, ‘쉼터공간’을 조성해 주민들의 문화 감증을 해소하고, 기존 백화산 등산로와 연계해 군민들의 건강증진 및 힐링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또한, 공원이 조성되면 백화산 등반 시, 태안읍과 공원을 거쳐 가게 돼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을 만들기

천안시 신두1리, 농촌현장포럼에서 장관상 수상

2018. 11. 09. | 천안시 | 일자리경제과

천안시 ‘섬머리 마을’이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최한 ‘2018년 농촌현장포럼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에 선정되었다. 섬머리 마을은 ‘현장포럼으로 눈을 뜬 신두1리’라는 주제로 마을지도 제작, 간판식 교체, 마을 홈페이지 제작 등 활기찬 마을환경 개선에 집중한 것이 높이 평가받았다. 2017년에는 1개 마을, 2018년 1개 마을, 2019년에는 2개 마을이 일반농산어촌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일반농산어촌사업 선도지역으로의 도약을 시도하고 있다. 천안시는 매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주민주도적 농촌현장포럼이 밑거름이 됐기 때문이며, 활기찬 농촌을 가꾸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천안시-도교육청, 행복교육지구 업무협약 체결

2018. 11. 09. | 천안시 | 교육청소년과

천안시는 충청남도교육청과 행복교육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행복교육지구는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주입식 경쟁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주민, 교사, 학부모 등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지역밀착형 교육공동체를 구축으로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먼저 ‘공교육혁신 지원 사업’은 자유 학년제 운영, 학교혁신 연구회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지원하고, 마을과 함께하는 유휴교실 프로그램, 천안교육 축제 한마당 등 지역 기반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또한, 학부모 아카데미 등 교사와 학부모 간의 활동 지원 및 천안 시민참여학교 같은 지역특화과제도 함께 추진한다. ‘마을교육 활성화 사업’은 마을학교, 마을축제, 마을교육 활동가 양성 등을 추진하는 마을학교 및 청소년 마을지기와 마을인성학교, 마을교육자원 박람회 등을 운영하는 지역 연계학교를 지원한다. ‘마을교육 생태계 조성사업’은 행복교육지구 추진 협의체를 운영해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복지센터 운영으로 교육복지 안전망을 촘촘하게 한다. 아울러 마을교육공동체 자료를 발간해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는 사업을 실행할 예정이다.

공주시 옥룡동 버드나무길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본격 착수

2018. 06. 17. | 공주시 | 창조도시과

공주시가 ‘옥룡동 버드나무길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사전 행정절차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요청을 위한 주민공청회 및 전문가 토론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한 설문조사, 사업추진협의회 개최 등 다양한 주민 의견수렴이 반영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거지 지원형으로 노후 주택개량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으로 주거복지를 실현해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이미 올 상반기에 사업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통과했다. 사업 규모는 옥룡동 버드나무길 일원에 대해 4년간 진행되며, 주요사업으로 공산성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공산성 은개골 정비사업, 공용주차장 조성사업과 집수리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실버·청년 임대주택사업 등 총 24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주시,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국비 151억 확보

2018. 09. 05. | 공주시 |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농촌혁신공동체팀

공주시가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10개 사업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기초생활거점사업에 탄천면 40억 원, 계룡면 40억 원, 의당면 40억 원 비롯해 마을만들기사업·시군역량강화사업에 이인면 신영2리 5억 원, 계룡면 중장1·2리 각각 5억 원, 반포면 송곡2리 5억 원, 의당면 유계리 5억 원, 정안면 사현1리 5억 원 등이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탄천면, 계룡면, 의당면 등 낙후된 면 소재지 개발을 통해 고유의 테마가 살아있는 농촌 발전 거점으로서의 중심지 기능회복을 목표로 2019년부터 5년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이인면 신영2리 등 6개 마을의 마을만들기사업을 통해 마을별 기초생활기반확충, 문화복지, 경관 생태 분야 인프라구축 및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령시, ‘충청남도 제5회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3개 분야 입상

2018. 07. 03. | 보령시

보령시는 ‘충청남도 제5회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시·군 분야와 아름다운 농촌만들기(마을분야) 분야의 성주4리가 최우수, 문화복지 분야에 성주면 개화3리가 장려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최우수로 선정된 ‘성주면 성주4리 먹방마을’은 과거 보령지역의 석탄산업을 주도했던 곳으로 폐광 이후 낙후된 주거지의 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개보수 및 공원 조성, 삭막한 담벼락의 동화 같은 벽화 그리기, 독거노인 생활 홈, 탄광촌을 주제로 마을 인형극 창작 및 공연 등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 등이 인정받았다. 보령시는 앞으로 보다 많은 마을이 참여해 마을의 무너진 공동체 회복과 침체된 농촌 마을에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아산시, 부서 간 협업으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프로젝트’ 가동

2018. 07. 16. | 아산시

아산시는 홍성 거북이마을에서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및 관련 업무 공무원 대상으로 ‘2018년 현장활동가 육성 기본과정 교육’을 진행했다. 충남농촌활성화지원센터 주관으로 시행한 이번 교육은 우리 농촌의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에 앞장설 수 있는 핵심주체를 육성하는 실습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아산시는 그동안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던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시기 및 방법이 상이·복잡하고 일부 사업이 중복됨에 따라 사업의 융·복합 관리와 조정이 필요하게 되어 2018년 아산시 협업과제로 ‘살기좋은 농촌마을 만들기’를 선정하게 되었고, 첫 수행과제로 부서 간 의견 공유와 협업을 위해 5개 관련 부서, 4개 사업시행 면(面), 중간지원조직이 현장 활동가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다. 앞으로 아산시는 마을만들기 행정협의회 상시 운영과 효율적인 주민홍보를 위한 사업 합동 설명회 개최 등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운영과 공무원 역량 및 주민홍보

강화로 더불어 살기좋은 아산시 마을만들기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아산시, 이야기가 있는 우리 마을에 놀러 오세요

2018. 11. 29. | 아산시

아산시가 ‘2016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민들의 참여 의지, 경관개선 및 마을활성화 효과가 높은 배방읍 공수1리, 도고면 신언2·3리 등 총 3개소를 선정하고 사업을 진행·완료했다. 배방읍 공수1리는 주민 주도형 실개천 살리기 사업으로 산책로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실개천에 서식하는 버들치, 동자개, 치리 등을 조형물로 설치하는 등 친수공간으로 조성했다. 도고면 신언2리는 과거 도고장터의 스토리를 벽화로 구성하였으며, 도고면 신언3리는 고려 고종의 몽진 행렬, 궁터 및 궁밭마을 옛 농가의 정겨운 풍경을 파노라마 형식의 벽화로 전개해 마을의 전통과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구성했다.

서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국비81억5천만 원 확보

2018. 09. 05. | 아산시

서산시가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 공모사업’에 총 3개 사업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부석면과 성연면의 기초생활거점육성을 위해 각 40억 원, 서산시 시군역량 강화를 위해 1.5억 원이 투입된다. 이번 공모에서 서산시는 주민교육과 선진지 견학을 하는 등 주민역량 강화에 힘을 쏟고 마을발전계획서 작성, 사업 소재 발굴 등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산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거점 기능 강화로 우리 지역주민들의 기초생활수준 및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논산 채운면 야화1리,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은상’ 쾌거

2018. 08. 31. | 논산시 | 희망마을건설과

충남 논산시 채운면 야화1리 돌고개 솥대마을이 ‘제5회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에서 경관·환경 분야에서 은상을 받았다. 그동안 ‘돌고개 솥대마을’은 폐품과 재활용품을 활용해 창의적으로 마을 경관을 조성하는 한편 2016년부터는 해바라기와 솥대 거리를 만들어 주민들의 힘으로 매년 마을 단위 해바라기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마을의 유래 ‘5화지지(5花地之)’에서 마을의 경관 테마인 ‘5花(화)’ 갤러리를 발굴해 진도배기 갤러리, 해바라기 정원 갤러리, 이야기 담장 갤러리, 모듬창작 갤러리, 마을정원 갤러리 등 5개 갤러리를 조성해 이야기가 있는 특별한 마을로 조성했다.

▼ 해바라기 축제 모습



논산시, 주민과 함께하는 도랑살리기운동 협약

2018. 10. 01. | 논산시 | 환경과

논산시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도랑살리기운동 협약식을 했다. ‘도랑살리기운동’은 논산시, 환경단체, 마을주민이 도랑정화 활동(쓰레기 줍기, 수생식물 심기), 환경교육 등을 통해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계를 복원하는 활동으로 도랑을 보다 깨끗하고 생태적인 생활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매년 사업시행지를 선정, 도랑살리기운동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마을주민들과 함께 사업을 시행하고 제초작업, 조경석정비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생태적인 도랑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다. 2018년 사업시행지는 ‘상월면 신송리 옥골’ 도랑으로 이번 협약에 따라 주민들과 민관은 하천을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도량을 생태적으로 복원하고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논산시는 도량살리기운동에 공동 협력하여 하천·호소의 수생태계 복원과 보전 활동에 함께 노력하였으며,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동기 부여 및 환경보호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당진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5곳 선정

2018. 08. 20. | 당진시

당진시는 2018년도 5개 마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우수마을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은 불철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밭두령과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을 막기 위해 도입한 사업으로, 마을공동체의 서약을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특징이다. 239개 참여 마을 중 올해 우수마을로 지정된 합덕읍 회태리, 송산면 도문리, 송악읍 반촌2리, 정미면 승산리, 면천면 죽동2리 등 5개 마을이다. 당진에서는 우수마을 5곳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에서도 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불법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거뒀다. 당진시는 산불 예방을 위해 위험지역 내 CCTV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산불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형적 소각행위를 막기 위한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당진1동 원도심 활성화 기대감 증가

2018. 08. 31. | 당진시

당진1동 지역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18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돼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주민과 청년의 꿈이 자라는 플러그-인(PLUG-IN) 당진’이라는 테마를 가진 당진1동 도시재생사업은 2018년 7월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 중 일반 근린형 분야에 신청해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을 준비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조직 커뮤니티 거점 조성, 시민문화 예술촌 조성, 도심광장 및 거점주차장

조성, 전기자동차 창업지원센터 건립, 청년 주택 및 70~80 특화 거리 조성 등을 당진1동의 핵심 도시재생 사업으로 정했다. 사업은 2018년~2022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부여군, 충남도 첫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2018. 09. 03. | 부여군

부여군은 ‘역사와 문화가 숨 쉬는 동남리 향교마을 조성사업’이 2018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되었다. 동남리 향교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019년~2022년까지 4년 동안 주거환경개선, 마을경쟁력 강화, 공동체 육성 등 3가지 목표를 설정해 노후주택개량, 도로개설 및 소방도로 확충, 부여향교를 활용한 향교 스테이 조성사업, 동남리 생활문화플랫폼 구축사업, 역사문화거점사업 등을 추진한다. 특히 향교마을 주민들은 공모 신청 전부터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전문가 초청 교육, 도시재생 선진지 견학, 매실청 담그기 행사, 재능 나눔 모임 등 마을 재생을 위한 역량강화에 힘을 쏟아왔다. 부여군은 활력이 되살아나는 동남리 향교마을로 바뀔 수 있도록 향교마을 주민과의 소통은 물론 적극적 행정지원을 통해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하였다.

▼ 사업대상지



부여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123억 규모 선정

2018. 09. 04. | 부여군

부여군은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에 8개 신규사업이 선정됐다. 2019년도 국가 예산이 확정된 8개 사업은 기초생활거점사업(구룡면, 석성면 각 40억), 마을만들기사업(부여읍 상금1리, 남면 삼용1리, 석성면 비당리, 세도면 귀덕

1리 각 5억), 신규마을조성사업(부여읍 정동리 20억), 시·군 역량강화사업(3억)이다. 기초생활거점사업이 진행되는 구룡면과 석성면은 주민주도형 마을역량 강화와 환경개선, 거점화 사업 등이 2019년부터 추진되며, 부여읍 상금1리, 남면 삼용1리, 석성면 비당리, 세도면 귀덕1리는 마을이 가진 유·무형 자원을 발굴해 이야기가 있는 공동체 마을이 조성된다. 또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부여읍 정동리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주도형 상향식 농촌개발의 기반마련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강화, 지역개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구축 등 부여군 지역역량강화사업에 3억 원을 확보, 성공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서천군, ‘2018 마을미술프로젝트’ 최종 선정

2018. 07. 08. | 서천군 | 문화관광과



▲ ‘2018 마을미술프로젝트’ 주제

서천군이 ‘2018 마을미술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 마을미술프로젝트는 2009년 예술가들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 ‘예술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사업이며, 단년도 자유제안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천군 지역 출신 작가인 이필수 작가가 책임작가를 맡아 프로젝트를 이끌게 되었으며, 서천군 마을미술프로젝트 팀은 장항읍 문화예술창작공간과 철길 주변에 ‘장항역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미술작품을 설치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해 철길 주변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마을미술프로젝트는 장항선의 종착역이었던 장항 지역의 스토리텔링과 인근 주민의 추억을 미술작품으로 제작해 장항읍의 문화적 재생에

기여하고 주변 국립생태원과 장항 스카이워크를 찾는 관광객들을 장항시가지에 유입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천군,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100% 선정 쾌거 달성!

2018. 08. 31. | 서천군 | 건설과

서천군은 ‘19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사업’에 신청한 8건이 모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마을만들기사업, 고령 친화적 농촌형 임대주택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 등 8건 사업을 신청해 선정됨에 따라 총사업비 120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지로 선정된 판교면, 화양면에 어울림센터, 공동생활 홈, 다목적 광장, 체육공원 등을 조성해 먼 소재지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기산면 영모리, 종천면 산천1리, 문산면 북산2리, 한산면 마양리 마을만들기사업은 마을회관 리모델링, 쉼터, 보행로 정비 등을 통한 문화복지 및 경관개선사업을 할 계획이다. 지역 내 주거·문화·의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고령 친화적 농촌형 임대주택사업은 종천면 어메니티복지마을에 추진할 계획이다. 서천군은 주민들 모두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농촌 마을에 문화 공간 조성과 쾌적한 마을환경을 만들어 농촌 지역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청양군 장평면, 농촌축제의 대표 마을로 자리매김하다

2018. 11. 16. | 청양군 | 장평면 산업팀

‘2019년 농촌축제지원 공모사업’에 청양군 장평면 마을 축제 ‘지천 밤참 축제’와 ‘미륵댕이 칠월칠석 미륵축제’ 등 2개소가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은 미당애항청년회를 중심으로 마을 이장, 개발위원장, 장평면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직접 발로 뛰어 이룬 성과로, 전국 109개의 지역축제와 열띤 경쟁을 펼친 결과 농림부 심사위원회로부터 그 목적성, 추진 의지, 수행역량 등을 인정받아 최종 선정명단에 당당히 올랐다. ‘미륵댕이 칠월칠석 미륵축제’는 2018년 국비 지원 신규축제로 선정됐으며, 미륵댕이란 어원은 마을에 미륵부처가 있다는 의미에서 유래됐으며, 매년 애항청

년회를 중심으로 미륵제가 개최되고 있다. ‘지천밤참축제’ 역시 함께 최종 선정됨으로써 장평면은 무려 2개의 지역축제를 개최하는 전국에서도 돋보이는 농촌축제의 선두주자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장평면은 주민이 주인이 되는, 화합과 공동체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청양군 남양면 겨울 마스크트, ‘곤포 사일리지 눈사람’ 구경 오세유

2018. 11. 27. | 청양군 | 남양면

청양군 남양면주민자치위원회가 곤포 사일리지를 이용한 눈사람 캐릭터를 만들어 겨울에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해 지나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눈에 뽕뽕을 말아놓은 곤포 사일리지를 이용하여 12쌍의 눈사람 캐릭터를 만들어 마을의 주요 장소 3곳에 배치했다. 남양면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처음 눈사람을 제작했으며 올해 설치된 눈사람은 내년 봄까지 전시돼 남양면을 오가는 보는 이들의 눈을 즐겁게 할 계획이다.

▼ 곤포 사일리지 눈사람



‘홍성군 청년마을조사단’ 발대식 성공적으로 완료!

2018. 07. 10. | 홍성군

홍성군이 주관하고 홍성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주최하는 ‘홍성군 청년마을조사단’의 발대식이 진행됐다. 청년마을조사단은 마을 자원 발굴을 통해 주민주도의 마을 활성화를 유도하고 농촌 고령화로 잊혀가는 마을의 역사와 이야기를 기록하기 위해 홍성군이 군에 관한 관심과 애정이 큰 8명의 청년을 모집해 구성되었다. 주민설명회 및 청년마을조사단 발대식에는 원와마을주민 및 군 건설교통과장, 갈산면장,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사무국장의 홍성군 청년마을조사단 운영 목적, 역할 및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홍성군 청년마을조사단은 마을 자원조사와 지역이해에 필요한 기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7월부터 갈산면 4개 마을(원와, 압곡, 묵과, 내갈) 조사를 시작으로 12월까지 군내 60여 개 마을을 돌며 마을의 역사와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홍성군 ‘청년과 함께 만드는 마을만들기’, 우수사례로 손꼽혀

2018. 08. 16. | 홍성군

충남 홍성군은 ‘2018년도 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부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오누이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은 ‘농촌, 청년을 들이다’라는 주제로 초등학교부터 청소년, 청년, 사회적 약자에 맞춘 교육형 도농 교류 플랫폼 조성을 통해 오누이권역을 중심으로 사회적 농업과 농촌형 청년 활동의 다양한 모델개발, 마을 속의 학교를 실현하여 주민들 삶의 질 향상 및 농촌 활력 증진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홍성군은 일반농산어촌개발 포괄보조사업이 고령화, 과소화로 침체해 있는 농어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노력이 좋은 평가를 만들었으며, 앞으로도 각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수 사업을 지속 발굴 및 육성하겠다고 하였다.

홍성군 남문동 마을, 꿈 찾는 새봄 등지로 새롭게 변신한다

2018. 09. 06. | 홍성군

홍성군은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오관4리 남문동 일원에 주거복지 실현, 도시 경쟁력 향상 및 일자리 창출, 사회적 통합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청년임대주택,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으로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청년 창업공간인 컨테이너 점포 10호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며, 열악한 주거환경 인프라 개선을 위해

집수리 지원 사업, 마을 공원, 무료공영주차장 등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담장 정비사업, 안전한 보행환경 정비사업, 방범용 CCTV 설치 등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 및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의 주민역량을 강화해 자발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구항면 거북이마을,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금상 쾌거!

2018. 09. 06. | 홍성군

홍성군은 구항면 거북이마을이 충남도를 대표해 ‘제5회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소득·체험 분야에서 주민주도 마을만들기의 성공 사례를 널리 알리며 국무총리상 수상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거북이마을은 마을 내 생활, 경제, 문화공동체가 유기적으로 협력 연계하여 마을 활동을 이끌어가고 있으며, 특히 경제공동체 활동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 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주민 참여 중심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홍성군은 2000년 발생한 구제역 피해를 극복하고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우수사례를 보여준 거북이마을 주민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이뤄낸 값진 성과라고 극찬했다. 또한, 지난해 콘테스트에서 시·군 분야 대통령상을 받으며 마을만들기 행정지원시스템의 우수성을 입증한 만큼 이번 거북이마을의 우수사례를 군 전체로 확산시켜 제2, 제3의 거북이마을이 나올 수 있도록 행복한 마을만들기에 더욱 노력할 것이며, 신규 사업 발굴에도 앞장서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걷기 좋은 명품 가로수길 위해 민·관 함께 나서는 구항면

2018. 11. 15. | 홍성군

홍성군 구항면이 상지천변에 식재된 이팝나무의 생육을 촉진하고 걷기 좋은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하기 위해 칠톨굴 등 제거 작업에 나섰다. 관내 주요도로변 및 하천변 약 30km에 식재된 빗나무와 이팝나무 관리에 매년 3회 이상 100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칠톨굴 완전 제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벌리·신곡마을 주민들은 매년 상지천·남산천 제초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구항면은 앞으로도 상지천·남산천이 걷고 싶은 명품 가로수길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덩굴류 제거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예산군, 충남도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문화복지 분야 삽교 상하1리 ‘최우수상 수상’

2018. 07. 04. | 예산군

예산군은 삽교읍 상하1리가 ‘제5회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문화복지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삽교읍 상하1리는 1950년대 이전부터 현재까지의 마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 자료, 마을 상조회 물품, 옛 농기구, 마을주민 소장 유물 등 다양한 자료를 전시·기록해 놓은 마을박물관이 조성되어 있고, 마을주민들의 이러한 노력으로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다양한 동아리 활동과 마을행사, 봉사활동 등도 꾸준히 해오고 있는 마을이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노인회장은 ‘기록은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다. 초막골의 기록은 선조들과 만남이고, 오늘날 우리가 행복한 농촌 마을로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다’는 감동적인 발표내용으로 함께 참여하였던 많은 참석자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예산군덕산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농촌마을의 활력을 찾는다!

2018. 08. 24. | 예산군

예산군이 2020년까지 추진 중인 덕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순항중이다. 덕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내포 문화권 관광통로 덕산, 지역 관광의 장(場)을 열다’라는 비전으로 관광인구 집객을 통한 지역관광 홍보 및 관광서비스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전락사업으로는 활동거점 조성 및 관광객 집객을 위한 ‘장 만들기’, 지역관광 콘텐츠 육성을 위한 ‘장 볼거리 만들기’, 지역 브랜드 형성과 홍보를 위한 ‘장으로 초대하기’ 등의 3가지가 진행중이다. 시설조성사업으로는 올류마당 조성사업, 올류스튜디오 조성사업, 덕산시장 특화가로 조성사업, 덕산으로 오는 길 조성사업이

있으며 실시설계가 완료돼 공사 발주 준비 중이다. 지역역량 강화사업으로는 덕산시장 특화 먹거리 개발, 이야기가 있는 골목 가꾸기, 덕산 올류문화축제 운영, 덕산투어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중이다. 예산군은 덕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돼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사업 완료 시 중심지 거점기능이 대폭 강화돼 활발했던 옛 명성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공공시설물 및 매체

천안시 서북구,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 실시

2018. 09. 07. | 천안시 | 서북구건축과

천안시 서북구는 불당 신도시 지역의 불법광고물 근절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 합동 단속 및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쾌적한 불당 신도시를 조성하고자 다시 한번 진행됐으며 서북구청을 주축으로 불당동 주민 자치위원회, 옥외광고협회 천안시지부 등이 참여했다. 캠페인을 통해 ‘옥외광고물 설치 시 유의사항’ 홍보물을 배부하고 미신고 광고물 신고 유도 및 불법광고물 시정 계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옥외광고물 표시방법을 홍보했다. 또한, 불법 현수막과 벽보 등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을 제거해 좀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의 불당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천안시 서북구는 앞으로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옥외광고물 표시방법을 홍보하고 구청의 단속과 행정처분을 함과 동시에 입주민 스스로 쾌적한 불당 신도시를 조성하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천안시, 상징 마스코트 ‘유관순 열사’ 새롭게 디자인한다

2018. 10. 29. | 천안시 | 정책기획과

천안시는 ‘마스코트 리뉴얼을 위한 디자인 개발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한 후

2019년 3.1운동 100주년 기념과 유관순 열사 서훈 상향운동에 발맞춰 공표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시민들의 캐릭터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SNS 이모티콘 제작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전국적 분위기 속에서 천안을 널리 알리고 유관순 열사 서훈 상향운동의 국민 공감대 형성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천안시는 유관순 열사와 이동녕 선생 등 애국충절의 고장이라는 자부심을 발판삼아 우리 천안이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시민이 행복한 명품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였다.

아산시, 옥외광고물 단속 및 정비 추진

2018. 07. 26. | 아산시

아산시는 「옥외광고물 단속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불법광고물 관리와 정비 방향을 설정하여 단계별로 추진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을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구분하여 추진하되, 단기적으로는 현수막, 스티커, 전단지 등을 정비하고, 중·장기에는 에어광고, 입간판, 고정게시안내판, 간판 등을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선 7기 출범 100일 이내에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현수막, 스티커 등을 우선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시민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성과를 낼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이 오히려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고 민간설치 현수막보다 단속도 미온적이라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공공현수막도 정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산, “범죄 걱정 없는 아산시로 만들겠습니다”

2018. 09. 07. | 아산시

아산시는 아산경찰서, 삼성전자 TP센터와 함께 범죄 없는 아산시 만들기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추진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올해 삼성전자 TP센터 제반비용을 지원해 온양여고 주변에 스마트(블랙박스)보안등 5개소, 로고젝터 4개소, LED 보안등 4개소 총 13개소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아산시에 기부채납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산시는 아산경찰서와 긴밀히 공조, 자체예산을 확보해 범죄취약지역, 여성 및 학생 안전취약지역, 읍면동 등 안전사각

지대에 보안등을 확대 설치 추진하고 또한, 시민들의 범죄 불안 심리 해소 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접목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계룡시, 학교 주변 노후·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2018. 08. 29. | 계룡시 | 문화체육과

계룡시는 학교 주변 노후·불법광고물 일제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정비는 불법광고물로 인한 학생안전 위해요소를 차단하고, 더불어 제24회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를 대비해 청결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고자 점검반을 편성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반은 주중과 주말을 이용하여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및 주요 도시에 있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17개소 주변을 정비한다. 특히, 통학 길 차량 및 사람의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소재의 도로변과 가로변에 무분별하게 부착되어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불법광고물, 음란·퇴폐행위 전단, 벽보 등은 중점 정비 대상이다. 계룡시는 이번 정비결과 노후 및 불량·불법고정광고물은 업주의 자진 보수와 철거를 유도하고 안전상태가 불량하거나 위험성이 높은 간판은 충남옥외광고협회계룡시지부에 협조를 받아 현지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유동광고물은 발견 즉시 수거하고,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불법유동광고물은 특별 관리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당진, 우수광고물 보러 오세요

2018. 08. 28. | 당진시

‘제13회 당진시 우수광고물 전시회’ 개막식에서 ‘국수장수’가 대상을 받았다. 당진 최고의 우수광고물로 선정된 ‘국수장수’는 옛날 어머니가 직접 끓여주시던 화덕을 형상화해 제작했는데, 옛 모습과 친근한 표현을 잘 살린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대상작 외에도 ‘나래청년취업센터’와 ‘도로시 Coffee’가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차지했다. 행사 관계자는 당진시 우수광고물 전시회 수상작은 2016년과 2017년 대한민국 옥외광고 대상전에서 각각 대상과 우수상을 받으면서 작품성과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3년 연속

수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 옥외광고협회 회원사들은 창의적인 디자인과 신소재를 발굴해 도시경관과 어우러지는 옥외광고물을 개발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예산군, ‘2018 좋은 간판 나눔 프로젝트’ 착공

2018. 09. 27. | 예산군

예산군은 ‘2018 좋은 간판 나눔 프로젝트’의 간판 제작 및 설치를 착공했다고 밝혔다. 2017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이번 프로젝트는 획일화, 정형화된 기존 간판의 답습을 지양하고 창의적인 간판을 제시해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확산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예상된다. 이번 사업은 예산읍 천변로 일원 총연장 360m 구간이며 총 22개 점포의 노후화되고 무질서한 간판을 개선한다. 예산군은 이번 프로젝트를 ‘2018 예산장터삼국축제’, ‘구도심거리 경관개선사업’ 등과 함께 연계해 천변로 일대에 활기를 불어넣고 걷고 싶은 아름다운 거리로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